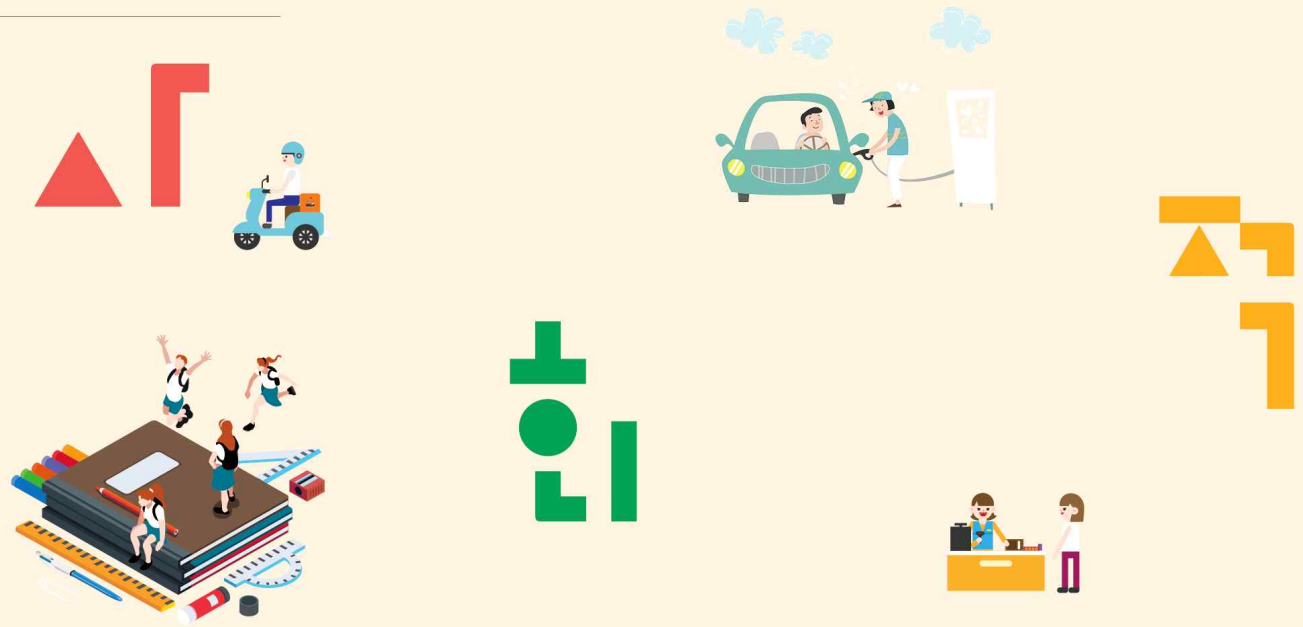




학교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간 플랫폼 구축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부교수 전병유
연구참여자 | 한신대학교 사회혁신대학원 석사과정 유승태
| 한신대학교 사회혁신대학원 석사과정 김현미

2016 사회적경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학교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간 플랫폼 구축 기초조사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Tel 02.353.3553 / Fax 02.383.3553 홈페이지 www.sehub.net / 이메일 info@sehub.net
편집총괄	디자인그룹 SNP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연구 요약	9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구성	25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29
1.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성격과 개입 방향	30
2.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41
3.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	52
제3장 공공·시장 부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취업지원 현황	55
1. 공공 부문의 지원 정책 현황	56
2. 시장 부문의 지원 현황	79
3. 공공 부문과 시장 부문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84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89
1. 조사개요	90
2.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및 시사점	96
3. 해외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124

제5장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방안 127

1. 주요 결과의 요약 128
2.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132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협동 플랫폼 구축 방안 133

부록 1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진로·취업지도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목록(2014년 기준) 137

부록 2 사회적경제 조직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141

부록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한 집단 인터뷰 사전질문지 145

부록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한 집단 인터뷰 질문 151

참고문헌 153

표 차례

[표 1] 공공 및 시장 부문의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틀	13
[표 2] 연구 내용과 방법의 구성	26
[표 3] 전국 및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32
[표 4]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2012년)	32
[표 5]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불이익 비교(학생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35
[표 6] 다비스터 등(Davister et al., 2004)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기준 ..	43
[표 7] 알터(Alter, 2007)의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45
[표 8]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수요와 사업 전략	51
[표 9] 공공 및 시장 부문의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틀	52
[표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60
[표 11]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프로그램	63
[표 12] 청소년쉼터 지원 프로그램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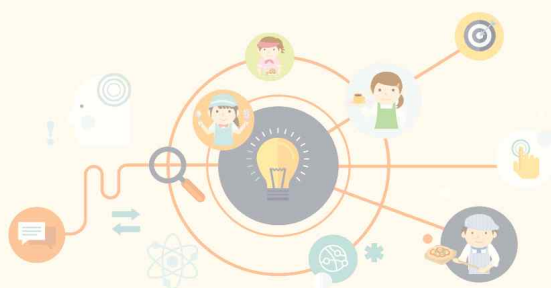
[표 1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원 프로그램	64
[표 14] 보건복지부-LH 주거 지원 사업	66
[표 15] Y.E.S 센터 교육 내용	68
[표 1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과 내용	70
[표 17] 각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73
[표 18]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지원대책 의견	74
[표 19] '1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	74
[표 20] '16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75
[표 21] 서울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중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76
[표 22] YOUTH STAND 일터학교 운영 프로세스	80
[표 23] SK 뉴스쿨 교육 과정	80
[표 24]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 기초 조사 개요	91
[표 25] 사례연구 대상 개요	92
[표 26] 사례 조직 조사내용의 구성	92
[표 27] FGI 대상 청소년	93
[표 28] FGI 대상자 사전질문지 구성	94
[표 29] FGI 질문 구성	95
[표 30] 커피동물원 직업훈련 단계 및 직급	98
[표 31] 커피동물원의 노동통합 모델	103
[표 32] 인디학교의 노동통합 모델	108
[표 33] 세품아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109
[표 34] 세품아의 노동통합 모델	114
[표 35]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창립선언문 일부	115
[표 36] 일하는학교 초기 교육 내용	116
[표 37] 일하는학교의 노동통합 모델	121
[표 38] 4개 사례 노동통합 모델의 비교	125

그림 차례

[그림 1] 학교 밖 청소년 노동배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개입 전략 개념틀	12
[그림 2]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연구를 위한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	13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플랫폼 기본구도	18
[그림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배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개입 전략	40
[그림 5]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과 공식- 비공식경제 관계 개념틀	47
[그림 6]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기호 설명	53
[그림 7]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	54
[그림 8]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연계망('16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58
[그림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61
[그림 10]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흐름도	61
[그림 11] CYS-Net 서비스 지원절차 체계도	62
[그림 1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서비스 지원 단계	63
[그림 13]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흐름도	67
[그림 14]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절차	70
[그림 15]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 효과(취업훈련 참가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85
[그림 16]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 효과(취업훈련 참가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85
[그림 17] 커피동물원 훈련 단계	98
[그림 18] 커피동물원 운영 체계(2014년 쉼터 분리 이전)	101
[그림 19] 커피동물원 운영 체계(2014년 쉼터 분리 이후)	101
[그림 20] 인디학교 운영 체계	107
[그림 21] 세품아 운영 단계 모형	110
[그림 22] 세품아 유스캠퍼스의 위기 청소년 발굴 절차	110
[그림 23] 세품아의 운영 체계	113
[그림 24] 일하는학교의 운영 체계	120
[그림 25]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신뢰 형성	123
[그림 26] 이탈리아의 소외계층 노동통합을 위한 연대작업	125
[그림 27]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플랫폼 기본구도	134
[그림 28] 노동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모듈별 클러스터 모형	134



연구요약



0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or the work integration of out-of-school youth)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을 규명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 및 시장부문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공급 실태 및 한계를 노동통합(work integration) 관점에서 분석하고, 2)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다중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규명하며,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해외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사례 발굴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0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다음 세 범주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 ① 학교 밖 청소년과 노동의 관계
- 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
- ③ 노동시장의 작동과정에서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기업의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도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경험 관련 선행연구 조사표를 검토했다.

나.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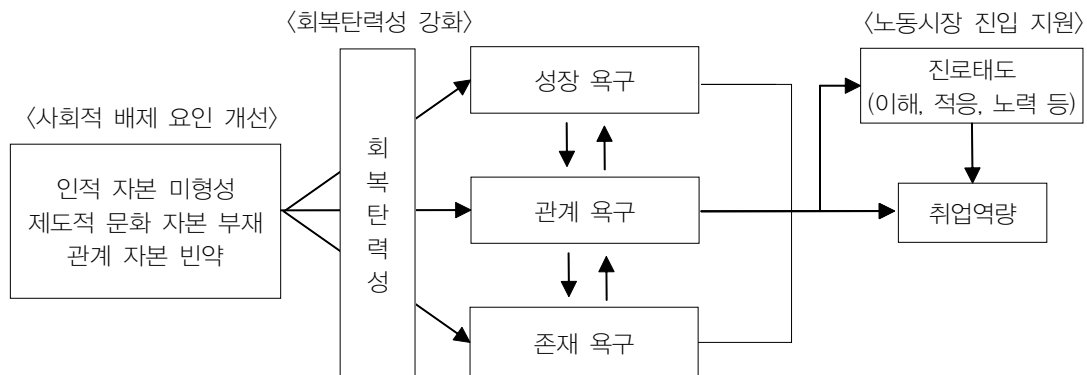
2009년 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고,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현장 전문가에게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과 범주화, 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검토받았다. 또한 정책의 현황,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다. 면접조사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만나 조직의 운영 실태,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과정, 다른 조직과의 협력모델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또는 교육·훈련 담당자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조직의 노동통합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고용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면접조사했다.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참여했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나 작업장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기술 향상에 끼친 영향, 현재 또는 미래 노동에 대한 기대의 변화 등을 조사했다.

라. 자료 분석틀

이상의 세 방법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자료는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한 아래의 개념틀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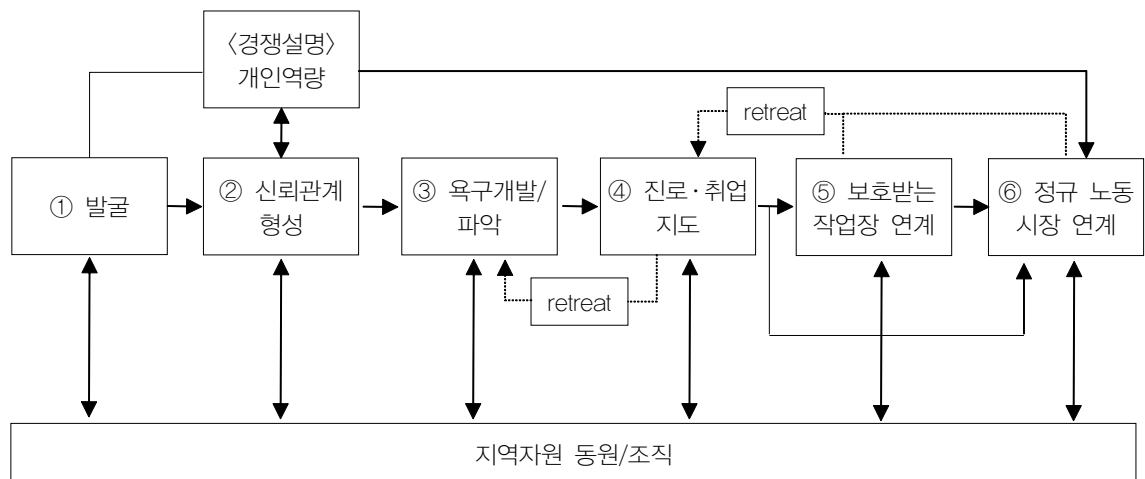
[그림 1] 학교 밖 청소년 노동배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개입 전략 개념틀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 및 시장부문의 진로·취업지도 서비스 공급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표 1]의 분석틀을 사용했다.

[표 1] 공공 및 시장 부문의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틀

노동통합 관점 범주	하위 범주
회복탄력성 강화 측면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지원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 지원 대상의 욕구 좌절-퇴행 상태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 지원 대상의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노동시장 진입 지원 측면	▶ 지원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게 적합한가? ▶ 지원 서비스는 효과성을 발휘하는가?
사회적 배제 요인 개선 측면	▶ 지원 대상의 자산·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가? ▶ 지원 대상의 관계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가? ▶ 지원 대상의 제도적 문화 자본 부재로 인한 불평등 상황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 지역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분석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을 수립하고, 이 모델에 근거해 각 사례 조직이 어떻게 노동통합 효과성을 발휘하는지 분석했다. 논리모델에는 청소년의 노동통합이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관계없이 청소년 개인의 역량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는 경쟁 설명(rival explanation)을 포함시켰다. 각 사례 조직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확보를 위해 경쟁 설명이 고려됐다.



[그림 2]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연구를 위한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

03 주요결과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 및 시장부문의 진로·취업지도 서비스 공급 실태

① 공공 부문의 공급 실태와 시사점

- [회복탄력성 강화 측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과 생활지원을 통해 위기 요인에 대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노동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연관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로 동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체험활동 지원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노동시장 진입 지원 측면] 직업훈련 정보가 축적되는 과정에 직업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훈련 과정의 내용·운영방식 등을 파악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업무와 비교해 미약하다. 그리고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해서는 그 전단계의 진로 동기 활성화가 먼저 이행돼야 하며, 이 단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 [사회적 배제 요인 개선 측면] 통합지원체계의 도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모델이 구축되고 있다. 통합지원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지원을 부처별로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생애 주기 모델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그에 맞는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통합지원체계의 주요 전달체계인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질적 수행주체들(민간)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② 시장 부문의 공급 실태와 시사점

- 근 몇 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에는 기업 사회공헌사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점, 각종 매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루는 사례들이 많아진 점,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조명 받고 있는 점 등이 몇몇 대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동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 YOUTH STAND 프로그램과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지원 방식은 대기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는 낯선 영역에서 대기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인 사업 구상 및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사례이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이점은 청소년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원제약을 이유로 성과를 단기간에 내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될 만한 사람만 뽑기(cream-skimming)’ 전략을 선택할 유혹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기적이고, 수혜 당사자 중심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 4개의 사례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서 다음 두 가지 공통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취업동기 활성화 이전에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을 취하며, 이 전략을 조직의 목표·활동과 조율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협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핵심모듈로 기능하며, 협동 플랫폼은 자원의 동원방식, 교육·훈련 구성 방식,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전략 등의 근간을 이룬다.

①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동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의 발굴, 신뢰관계 형성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이 조직의 프로그램을 이탈하거나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노동통합이 불가능했다. 또한, 강화된 회복탄력성은 노동통합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작용하며, 진로태도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 발굴 단계에서 안전한 주거·문화공간 및 제공, 심리·법률상담,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와 권익 옹호 활동이 이뤄짐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신뢰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적·제도적 전략을 통해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단계에서는 ‘대안가족 모델’, ‘수평적 동료 관계’, ‘생태적 가치’와 같은 문화적 전략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등 제도적 전략이 혼용되고 있었다.
- 또한 교육과정이 체험활동 중심으로 편성돼 있었고, 교육과정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욕구 개발/파악이 이뤄져 맞춤형 개입이 이뤄지고 있었다.

② 협동 플랫폼에서의 핵심 모듈 기능

-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설계, 교육·훈련 방식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동’의 원리로 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의 관계를 규율하며 조직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 플랫폼의 핵심 모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각 조직이 구상하고 있는 최종 노동통합 단계를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단일 조직 내에 모두 보유한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직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네트워크의 필요가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노동통합 과정의 각 단계에서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 이러한 신뢰기반 지역 협동 네트워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호받는 작업장을 공급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일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③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노동시장 진입 촉진-사회적 배제 요인의 개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관점을 가질 때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내부화하고 자기 경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택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복합성과 청소년 개인 상태의 비동질성, 조직 보유자원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떤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 자본이 공공적 성격의 시민적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이익집단의 논리가 될 수도 있다.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 자본이 시민적 자본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즉 호혜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환대(유사 가족 전략, 수평적 동행관계 프레임 등)의 확대 등 사회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추구하는 노력은 협동 네트워크가 생산하는 관계자본과 사회·경제적 장(field)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특징짓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4 정책제언 및 협동 플랫폼 구축 방안

가. 정책 제언

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해 심화 측면

-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에는 결핍 모델 접근이 아니라 회복탄력성 강화 모델 접근법이 필요하다.
-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과 생활지원을 위한 개입은 노동통합 관점에서 관련 부처간, 지자체 조직 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상호 연관 속에 추진돼야 한다.
- 진로 동기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② SEOs 협력·지원 측면

- 교육훈련 담당자 또는 직업훈련 교사의 근로 복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조직이 실제로 담당자들의 헌신에 기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서울시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성일 보이고 있는 SEOs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 SEOs 성과 측정 지표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련된 질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립지원 매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립지원 매장과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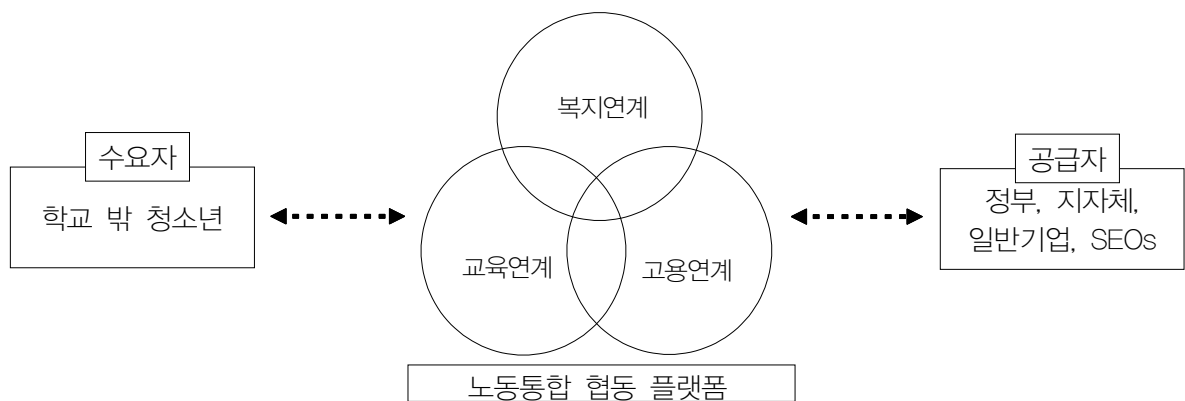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자립생태계 조성 측면

- SEOs를 통해 취업동기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일할 일자리의 양과 질은 계속 문제가 된다. 지역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밖 청소년의 SEOs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이후에도 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통합 관점의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나. 협동 플랫폼 구축 방안

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단계에서 수요자(학교 밖 청소년)와 공급자(정부, 지자체, 일반기업, SEOs 등) 연계가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은 복지, 교육, 고용 세 분야이다. 이 세 분야 서비스를 노동통합 플랫폼의 세 가지 핵심 기능요소로 볼 수 있다.
- SEOs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SEOs는 청소년에게 복지·교육·고용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SEOs는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SEOs를 연계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은 네트워크 규모의 확대와 정(+)의 관계에 있다.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플랫폼 기본구도

- 기존 SEOs의 서비스 공급 방식은 한 조직이 한두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통합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모듈별 SEOs 클러스터 조성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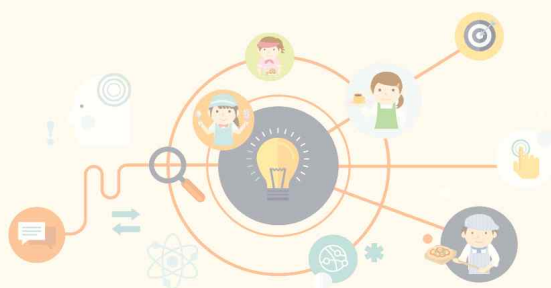
② 플랫폼 구축 방안

- [1단계] 먼저, 각 노동통합 단계의 모듈별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현재 어느 단계에서 어떤 SEOs가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방식, 활동 지역, 활동의 효과 및 한계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작업을 토대로 모듈별 클러스터 지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2단계] 노동통합 플랫폼 구축 시 기존 SEOs 중 핵심모듈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하고, 그 조직이 핵심모듈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3단계] 청소년의 존재욕구와 관련된 복지 정보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 유인(incentive)을 개발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한다.
- [4단계] 진로·취업 지도 서비스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SEOs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의 기회, 온·오프라인 정보교류의 장, 소셜프랜차이즈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제 1 장

서론



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위기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공교육 위기의 심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돼 옴. 매년 정규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전국 6만여 명, 서울시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비율로 따지면, 총 재학생의 1%(서울은 1.5%)를 상회함. 그런데 이 숫자는 파악된 청소년에 불과하며,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2012년 현재 28만 명에 이른다고도 보고되고 있음(윤철경 등, 2013).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삶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당사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킬 뿐 아니라, 범죄율 및 복지지출 상승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남기곤, 2011).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적절한 개입이 예방적 효과를 발휘할 경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큰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공공영역의 개입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갖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적 요인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집단적 개입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존 청년층 노동통합 정책은 이러한 측면을 포용하고 있지 못함. 또한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을 통한 개입은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집중돼 있어 공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유럽에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은 전통적 고용정책이 장기실업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1980년대 등장해 2000년 전후로 다시 집중 조명되기 시작함.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해있는 취업곤란계층을 위해 적극적 고용전략을 펼쳤으며,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생산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사회에 재통합시킴. 사회적

기업은 개방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잦은 결근을 견딜 수 있고, 노동자들의 개인적 요구에 맞춰 작업환경을 변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이런 측면에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조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충격 완충 장치(shock absorber)’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Borzaga and Loss, 2006).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EOs)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관련 법안이 도입(사회적기업육성법 2007.1.3.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2012.1.26. 제정)된 이후 한국에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기록함. 그러나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문제는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문화예술교육 분야, 재활용 환경 분야에 국한돼 매우 협소하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위기청소년·노인문제 등을 포용하는 기업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라준영, 2014 : 42).

청소년 대상 사회적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총 1,251개 사회적기업(2014년 현재) 중 위기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업은 총 36개며, 그중 이들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진로·취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6개에 불과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에서 집계. [부록 1] 참조.).

그러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노동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에서부터 노동시장 통합까지 각 단계에 개입하거나 각 단계를 연계하는 다양한 기업 및 사회조직을 발견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노동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을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SEOs for the work integration of out-of-school youth,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으로 정의하고 분석대상으로서 주목함.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제체제의 복원력(resilience)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의 특성이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짐(Sabatini et al., 2012). 그러나 사회적 신뢰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는 기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으며, 조직 내부의 신뢰가 어떻게 일반적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블랙박스로 처리해 옴.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긴급한 물질적·심리적 결핍에 대한 개입에서 시작해 청소년과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관계육구와 성장육구를 개발·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며, 이는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과 취업역량 강화로 귀결됨.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을 규명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이 연구목적을 위해 1) 공공 및 시장 부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공급 실태

및 한계를 노동통합(work integration) 관점에서 분석하고,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에 대한 다중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규명하며,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해외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사례 발굴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하고,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목표를 설정함.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 분야의 사례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됨. 그리고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과 관계망을 조직하는 방식과 과정 및 그 관계망의 성격을 밝힌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 공공부문-지역사회-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 방향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미시적 단위와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02 연구의 구성

| 연구내용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 간 협동 플랫폼 구축 방안 조사를 위해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함.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노동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이 취약계층 노동통합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론적 구성을 통해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도출함.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 및 시장부문의 진로·취업지도 서비스 공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함. 노동통합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노동문제 개입전략 분석틀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서비스 공급방식의 의미와 한계를 규명함.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입이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에 대해 갖는 효과성을 규명함.

넷째,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협력 플랫폼 도입 방안을 모색함.

| 연구방법의 구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문헌연구에서는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노동과정, 현황 파악을 위한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고찰, ② 기존 정책과 지원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한 정부·지자체 발간자료, 선행연구, 홈페이지 콘텐츠 분석,

③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홈페이지 콘텐츠 분석, ④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 인식 관련 선행연구, 조사표를 검토함.

전문가 자문에서는 2009년 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고,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현장 전문가에게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과 범주화,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음. 또한 정책의 현황,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함.

면접조사는 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만나 조직의 운영 실태,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과정, 다른 조직과의 협력모델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함. ②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또는 교육·훈련 담당자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조직의 노동통합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고용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면접조사함.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참여했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나 작업장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기술 향상에 끼친 영향, 현재 또는 미래 노동에 대한 기대의 변화 등을 조사함.

이 연구에서는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다음과 같이 준수함.

- ▶ Informed Consent : 면접조사 응답자로 연구에 참여하는 조직 담당자와 청소년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으며, 연구 참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
- ▶ Privacy and Confidentiality :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활용 범위, 연구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
- ▶ Payment and Compensation : 연구 참여자의 연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현금을 지급함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설명함.

[표 2] 연구 내용과 방법의 구성

구 분	해당 장	주요 내용	방 법
서론	제1장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내용과 방법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2장	▶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성격과 개입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노동 ▶ 사회적경제 조직과 노동통합 ▶ 정책 및 사례분석을 위한 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공공 및 시장 부문의 진로·취업지원 현황	제3장	▶ 관계 부처의 지원 정책 현황 ▶ 시장 부문의 지원 정책 현황 ▶ 공공·시장 부문 지원의 의의와 한계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제4장	▶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 ▶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 ▶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의와 한계 ▶ 해외 사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방안	제5장	▶ 주요 결과의 요약 ▶ 정책 제언	문헌연구

| 용어의 정의

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을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 즉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중도포기(장기 결석, 제적, 퇴학, 자퇴)했거나 비진학한 청소년으로 정의함.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외연을 정의하는 형식적 범주로서 이 법률의 기준(+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따르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 동기 형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함.

나. 노동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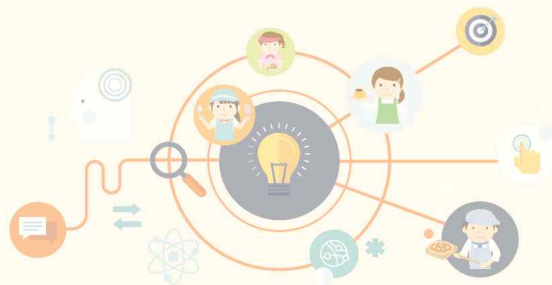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연구한 유럽 EMES 산하 PERSE 프로젝트의 정의를 따라 “노동역량이 희박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실업인구를 생산적 활동을 통해 일터와 사회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동통합을 정의함. 이때 노동통합은 ‘정규 또는 2차 노동시장으로의 통합’과 ‘일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짐.

다. 사회적경제 조직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이 목적을 위해 영리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운영방식을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만을) 취하는 조직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ISEs)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특정 법인격을 의미

라. 협동 플랫폼

이 연구는 볼드윈과 우더드(Baldwin and Woodard, 2009 : 19)의 정의를 따라, “시스템 내부의 다양성(variety)과 진화 능력(evolvability)을 지원하도록 여러 요소들 간의 연계를 규율함으로써 형성된 안정적인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플랫폼을 정의함. 협동 플랫폼이란 요소들 간의 연계를 규율하는 기준(rule)이자 조직 방법으로 ‘협동’ 원리를 도입한 플랫폼임.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단위를 기능에 따라 모듈화할 수 있다고 전제함.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리로 지역사회의 협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에서 협동 플랫폼의 이념형(ideal type)을 도출하고자 함.



제 2 장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01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성격과 개입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정규학교 중단 또는 비진학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선택을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이탈행동(deviant behavior)으로 보던 기존 관점은, 이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지만 비제도화된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돼 왔음.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옴. 이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변화된 시각에서는 이들 청소년의 선택이 특정 환경과 조건에 대해 적응적(adjustive)인 행동이었다고 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청소년과는 다른 적절한 교육 및 자립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해옴.

학교 밖 청소년은 정상적 교육과정을 중단했다는 의미에서 ‘사회이탈현상’으로 규정돼 ‘학교 중도탈락자’로 명명됐으며(교육부, 1996),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초까지 지속됨. 이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학교부적응’ 관점에서 이해한 1980년대 후반의 경향이 유지돼 온 것으로 볼 수 있음(서정아 등, 2006).

그러다가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문제시되면서 2002년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교육부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 대신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함(윤여각 등, 2002). 그러나 학교를 떠난 것을 학업중단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학업중단이라는 용어 역시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상과 부적응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2000년을 전후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므로 ‘학업중단’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2004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도입됨(한국청

소년상담원, 2004).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책이 포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학업지원만이 아니라 종합지원 대책의 정책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2012.7.30., 개정 2013.10.4.) 제2조(정의)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으로 정의함. 서울시는 2001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연세대 청년문화연구소에 위탁해 운영하다가,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2012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함(강석원 등, 2015 : 13-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5.28., 시행 2015.5.29.) 제2조(정의)는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정규학교 중도포기 청소년’ + ‘정규학교 비진학 청소년’으로 정의함. 또한 지원의 범주를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네 가지로 규정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말 공교육 위기론 이후 약 20년에 걸쳐 ‘학업(정규학교) 복귀 → 종합지원’으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 있음. World Bank는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 또는 생산적 시민으로서 사회통합을 막는 환경적·사회적·가족 조건들에 처해있는 12~24세 개인”으로 위기청소년을 정의함(Cunningham, 2008).

이와 유사하게, 여성가족부(2015)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위기청소년을 규정.

‘위기’의 의미는 보통 경제적 또는 물질적 조건의 결핍과 동일시돼 옴.

한편,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The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규정함(OECD 1996; 이창호 등, 2005 : 8에서 재인용).

나.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유형

매년 정규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전국 6만여 명, 서울시 1만6천여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전국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전국 및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총 재학생	7,617,796	7,447,159	7,236,248	6,986,847	6,721,176	6,481,492	6,285,792
	학교 밖 청소년	73,494 (1.0%)	71,769 (1.0%)	61,910 (0.9%)	76,589 (1.1%)	74,365 (1.1%)	65,487 (1.0%)	51,906 (0.8%)
서울	총 재학생	1,361,007	1,322,427	1,274,028	1,219,799	1,161,632	1,107,766	1,064,741
	학교 밖 청소년	16,723 (1.2%)	16,255 (1.2%)	13,381 (1.1%)	18,578 (1.5%)	17,924 (1.5%)	16,126 (1.5%)	12,384 (1.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각 연도(김성기 등, 2014 : 17에서 재인용; 2014년 수치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6 : 1에서 인용).

[표 3]과 같이, 2012년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27만8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단순히 공간적으로 정규학교 밖에 있거나 정규학업을 중단했을 뿐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포착되지 않는 존재임을 의미함.

[표 4]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2012년)

유형	인원	출처
정규학교 학생수(A)	6,721,176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B)	7,126,098	통계청(2013). 인구통계(출생신고 기준/사망자 이민자 제외).
기타학제 학생수(C)	50,231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유입학생수(D)	6,914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E)	83,345	
평생교육시설	18,738	(기준일 : 2013.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399	(기준일 : 2013.4.1.) 교육부 학생복지과, 시도교육청 조사자료 수합
유학/이민자	16,515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팀
해외이주/파견동행자	11,628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팀
직업훈련기관 재학자	2,500	추정치(취업사관학교 150명 포함)
보호관찰	18,534	2012 청소년백서, p.374. / 산출근거 : 보호관찰 전체인원 46,336명 × 0.4 (보호관찰자 중 학업중단을 어렵치)
소년원	2,559	2012 청소년백서, p.379.
소년교도소	114	2012 청소년백서, p.369.
장기입원자	5,358	건강보험공단 자료
미파악자(F)	278,260	$F = B - A - C + D - E$

* 출처 : 윤철경 등(2013), pp.28-30에서 정리.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령인구(8~18세)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산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범위(9세~24세)를 넓혀 살펴보면 2014년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57만여 명(57만4669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백혜정 등, 2015: 25-26), 또한 근로기준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으로 범위를 넓히고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인구 중 정규학교 중단·비진학 배경을 갖는 사람을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임.

백혜정 등(2015)의 추산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주민등록 인구 상 만 9~24세 청소년 수(A) : 1004만3241명
- 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B) : 512만7453명
-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수 추정치(C) : 434만1119명
- 학교 밖 청소년 수 = A - (B + C)

학교 밖 청소년은 단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적응/부적응 여부’, ‘현재상태와 욕구’, ‘생활영역’, ‘학업중단 요인’, ‘학업 중단 이후 생활유형’ 등이 있음.

이숙영 등(1997)은 크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구분하고, 적응형은 진학형(복교·검정고시학원·대안학교에서 수학), 취업형, 취업준비형(사설기술학원·직업훈련원 등)으로 세분함. 그리고 부적응형은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 요양),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구분함.

박창남 등(2001)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현재 상태에 따라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나누고 정착형은 욕구에 따라 하위 범주를 구분함. 정착형은 진학형, 취업형, 직업훈련형으로 세분하고, 비정착형은 시설수용형, 방치형(보호시설 거주)으로 나눔.

서정아 등(2006)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당면한 어려움, 활용하는 지원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 등 네 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구분함.

윤여각 등(2002)은 학업중단 이유가 학업중단 이후 경로를 상당부분 결정한다고 봄. 학업중단의 이유는 가정에 대한 ‘불만족→가출’, ‘생계 부담’(이상, 가정 원천), ‘학교에 대한 불만족’, ‘교과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이상, 학교 원천), ‘심각한 교칙위반→학생 비행문화 형성’, ‘건강악화·불치병’(이상, 학생 원천), ‘조기유학·이민’(이상, 부모 원천)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학업중단 이후 가능한 선택지는 일반학교 전학, 검정고시 준비, 유학, 대안학교 입학, 직업훈련기관(시설) 활용, 사회복지기관(시설) 활용, 취미시

설 활용, 집안일 조력, 아르바이트(가출 또는 비가출), 폭력집단 가입, 비행 참여, 매춘이나 호객, 선도보호시설 수용, 요양이나 치료가 있음.

윤철경 등(2013)은 발달의 과정·결과를 개인의 삶이 축적된 궤적으로 보는 럼버거(Rumberger, 2011)의 생애과정 관점을 이론적 모형으로 취하고, 학업중단 이후 경로특성에 따라 직업형, NEET(무업)형, 학업형, 비행형으로 구분함. 학업중단 사유와 생애사건 경험과의 관계로 볼 때, 학교부적응과 품행 문제로 학교를 중단한 경우 ‘학업형’이 적고 ‘비행형’이 많았음.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등 가족구성 변화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형·NEET형 비율이 높았음.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형·비행형 비율이 높았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5)은 ‘학업형(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무업형(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직업형(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비행형(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은둔형(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구분함.

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2012년 6월 이후 학업중단자의 3년차 이행경로 비율을 살펴보면, 33만6550명 중 중단 후 3년째에 학업형 50.4%, 직업형 32.4%, 무업형 11.1%, 비행형 6.0%로 추정됨. 무업형이 줄고(23%→11.1%), 직업형이 증가(17.9%→32.4%)함(윤철경 등, 2015 : 34). 즉,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온 후 선택하는 행동은 고정된 유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형과 유형을 횡단하거나 유형이 중첩된 영역에 존재하기도 함.

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노동 실태

(1)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실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규학교 중단 후 계획은 ‘특별한 계획 없음’(25.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학교 중단 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35.1%), ‘하고 싶은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름’(15.8%) 순으로 나타남.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진로를 선택했어도 이를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위기, 의욕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김지경 등, 2014 : 102-104).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구인구직 사이트)의 비율(69.4%)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소속 기관 담당자(12.0%), 친구선후배(7.5%), 가족(6.4%) 순으로 나타남.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 진로성숙도에 따라 정보의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그리고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한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김지경 등, 2014 : 106-111).

정규학교를 중단한 시점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요약하면,

①학교 중단 전에 진로를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하기 어려우며, ②이로 인해 학교 중단 후 진로 설정에 혼란을 겪게 되고, ③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혼자 극복하기에는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발달과 자립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음.

(2) 청소년 노동 실태

고용노동부가 2009년 11월 전국 중·고등학생 3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문에 따르면, 32.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교조가 2011년 6월 전국 고등학생 16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9%였으며, 1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함. 주로 식당(54.1%), 패스트푸드점(10.2%), 편의점(6%), PC방(2.9%), 주유소(2.8%)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서빙(56.1%), 판매(11.9%), 단순노동(11.3%), 배달(4.6%), 조리(3.6%), 청소(4.3%), 주유(2.6%) 등에 종사함.

서울의 임금근로자 중 10대 비중은 1.5% 수준이지만, 10대 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89.4%로서 가장 높은 수준임. 임시·일용근로자의 60%가 서비스업에 종사함. 서비스업 중 고용 안정성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점·주점업으로 근로자의 72.8%가 임시·일용직임. 조리·음식서비스직은 임시·일용근로자가 15만 명으로 그 수가 가장 많고, 특히 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음(신경희, 2014 : 13,20).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08년 5월 전국중고등학생 1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①근로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권위적 근로 강요 28.7%, ②임금·보상에서의 침해 25.1%, ③비인격적 대우11%로 조사됨(송태수, 2014 : 8-9).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안선영 등, 2013).

[표 5]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불이익 비교(학생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4.9%	61.1%
폭력, 부당해고 등 불이익 경험	21.0%	42.7%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28.7%	45.5%

* 출처 : 안선영 등(2013), p.51, 표 II-21 전재.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안선영 등, 2013)은 다음과 같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중1 3.4%, 중3 10.7%, 고1 19.0%, 고3 33.3%)
- 지역규모가 작거나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 일반계고보다는 특성화고에서(특성화고 50.2%, 일반계고 22.8%, 특목고/자율고 14.5%)
- 학업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낮은 편 22.3%, 높은 편 12.0%)
-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석사이상’이라고 답한 청소년에 비해 3~4배 높음)
-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낮은 편 26.9%, 높은 편 12.0%)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현재 노동시장은 경기 악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선별성이 증가하면서, 신규 고용 축소(경력자 중심 고용), 학력의 중요성 증가(고학력화), 자격증(어학연수, 어학 점수, 각종 자격증) 기준 강화, 봉사·실습 경력 요구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조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기회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로 연결되고 있음.

경제위기, 노동빈곤, 등록금 인상 등의 사유로 주로 청소년들이 일하던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 등이 20대 청년이나 장년들로 대체되고 있어 10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기회는 더 축소됨. 또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해고가 쉽게 이뤄지고 있음(배경내, 2014 : 18).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불안정노동 확대 : 건당 배달료를 받는 배달대행, 건당 추가수당을 받는 콜센터 물품 판매, 용역업체를 통한 택배 분류·상하차 일용직 등에 청소년 고용이 많음. 불안정노동은 노동조건 후퇴, 사회적 관계, 생활의 불안정화를 동시에 수반함(배경내, 2014 : 19).

I 자립 동기의 위기와 개입 방향

가. 사회적 배제와 학교 밖 청소년

유럽은 70~80년대 경제침체기를 거치면서, 장기실업→조세감소→복지재정 악화→사회양극화 심화를 겪게 됨. 이 과정에서 전통적 빈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예를 들어,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등장, 사회적 관계·문화·심리적 차원에서의 소외 등—이 나타나기 시작함.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출현해 1980년대 초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됐으며, 이후 그 의미가 확장돼 1980년대 중반 공화주의적 연대성의 위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됨. 이러한 의미 변화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상대어는 (청년층의) ‘사회 포섭(insertion)’에서 ‘사회적 유대(cohesion)’ 또는 ‘사회 통합(integration)’으로 바뀌어감. 이후에는 유럽연합 형성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확산됨(Silver, 1994).

실버(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연대(solidarity)’, ‘분화(specialization)’, ‘독점(monopoly)’ 세 개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주장함.

- ① ‘연대’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사회의 결속이 끊어진 것이며,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문화·도덕 측면과 관계됨. 여기서 초점은 개인-사회 관계에 있음
- ② ‘분화’ 패러다임에서 배제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개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차별의 영역을 의미함.
- ③ ‘독점’ 패러다임은 권력집단이 특정 문화적 정체성이나 제도를 통해 집단 밖의 사람들이 가치 있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강조함.

위의 세 패러다임은 사회적 배제 개념이 광의의 사회 연대 층위와 연결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미시적 관계 층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크로나우어(Kronauer, 1998)는 기존 빈곤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던 ‘하위계급(underclass)’ 개념과 결합하고자 함. 크로나우어에 따르면, 경제적 주변화와 사회적 고립이 결합될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함.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 소비, 제도, 사회적 관계, 문화, 지리적 공간 등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간의 관계의 산물이라고 봄. 또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사회적 삶의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어느 한 차원의 배제는 결국 점차적으로 삶 전체의 배제로 이어진다고 봄. 크로나우어에 따른 사회적 배제 개념이 갖는 장점은 빈곤상태에 처한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살피며, 배제의 층위를 경제적 결핍으로 국한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생산·재생산 매커니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임.

한국사회에서 정규학교 중단·비진학은 청소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함.

- 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구적·수단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형성의 기회로부터 배제됨
- ② 학력중심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졸업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격차를 좁히기 힘들 만큼 큰 의미를 갖는 자격증(credential)이자 제도적 문화 자본(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졸업장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경쟁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함.
- ③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돼 관계 자본(relation capital)을 형성하기 어려움. 관계 자본은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과 대비되는 용어이자 사회적 자본의 양면성 중 한 측면을 지칭함. 사회적 연결이 개인에게 발휘하는 도구적 효용성을 뜻함(이재혁, 200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에 저임금의 불완전 고용상태로 조기 편입되는 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조건을 개선할 어렵게 만듦.

나. 위험환경과 자립 동기의 위기

발라벤(Walraven, 1998 : 22-23)은 회복탄력성 모델(resilience model)에 근거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입은 ①위기를 초래하는 요인과의 대결, ②위기 아동·청소년의 개성과 (인지, 사회정서, 운동능력, 창조성 등등) 역량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봄.

- ▶ OECD CERl가 정의한 “위기에 처한(at risk)”이라는 용어는 ‘정규학교 실패 → 직업과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 증가 → 사회적 실패 또는 사회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감소’라는 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고 있음. 때문에 발라벤은 CERl가 사용하는 위기라는 용어 안에 아동·청소년의 장기적 발달 목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함.
- ▶ 위기 아동·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발달 과정에서 개성과 역량(인지, 사회정서, 운동능력, 창조성 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그것을 막는 위험 요인과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 근래 역량 개발이 강조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서 회복탄력성 모델(resilience model)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목적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규정함.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로인의 발생 단계와 개입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의 정규학교 중단 후 성인 이행기에서 만나게 되는 구체적 위기로인은 청소년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심리적 조건이 어떤 동기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음. 청소년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조건은 정규학교 중단이나 비진학을 결정하게 된 동기이자 앞으로의 선택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알더퍼(Alderfer, 1969, 1972)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수정해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 세 가지 욕구를 가정한 ERG 이론을 설립함. 알더퍼는 매슬로우처럼 낮은 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높은 단계 욕구가 활성화되는 충족-진행(satisfaction-progression)만 가정한 것이 아니라, 높은 단계 욕구가 좌절되면서 이미 충족됐던 낮은 단계 욕구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좌절-퇴행(frustration-regression) 가설을 추가함.
- ▶ 가령,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알더퍼가 구분한 성장욕구 및 관계욕구의 좌절을 불리와 생존욕구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게 될 가능성을 높임.
- ▶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마음의 상태를 갖기 힘들어 진로태도 성숙이 어려워짐. 또한 빈곤과 낮은 취업역량으로 인해 저임금-고강도-비인격적 대우의 노동 환경을 벗어나기 힘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좌절 경험을 누적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음.

- ▶ ERG 이론은, 인간 행동의 현상적 측면 이면에 다층적 욕구가 존재하며, 인간행동의 동기는 이 욕구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근거로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강점을 보임.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는 물질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존재욕구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상위 욕구들이 좌절되는 과정이 관련돼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정부의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 또는 민간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중도 포기하거나 집단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김지경 등(2014 : 133)은 심층면접을 통해 취약계층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관계·정서적 지원’임을 주장함. 존재욕구뿐만 아니라 관계욕구, 성장욕구에 대해 함께 고려함으로써 자립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서 중요함.

다. 개입 방향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영향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결핍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보호요인을 증진함으로써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됨(최지연 등,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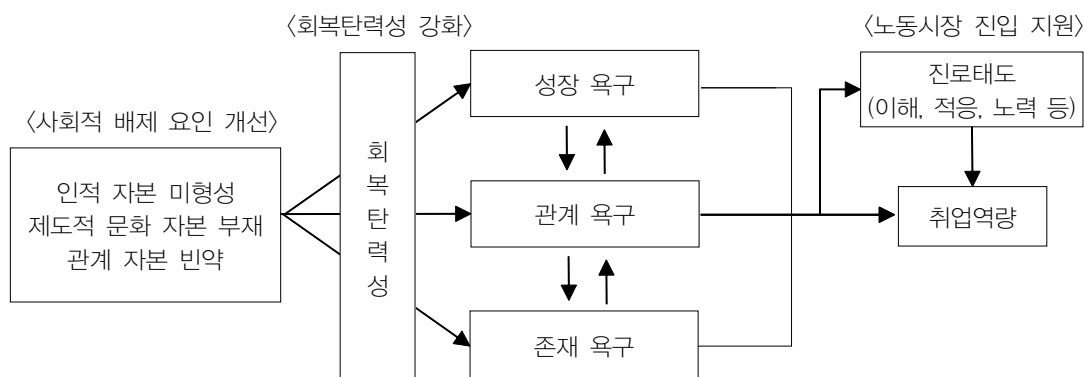
- ▶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란, 취약한 환경조건에서도 긍정적 발달·행동을 증진시켜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경감시키고 긍정적 결과를 유도하게 하는 요인임(Garmezy et al., 1985).
- ▶ 회복탄력성은 “적응이나 발달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데도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갖는 일련의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Masten, 2001 : 228). 회복탄력성은 개인적인 특성인 동시에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음. 따라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 가정·학교·친구·사회 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
- ▶ 러터(Rutter, 1987)는 특정 보호요인보다 보호가 일어나는, 즉 회복탄력성이 발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제(mechanism)가 작동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함. 네 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위험으로부터의 충격 감소, ②부정적 반응의 연쇄 가능성 감소, ③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확립 및 유지, ④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개방. 이 중에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확립 및 유지’에는 안전하고 화목한 사랑의 관계와 과업의 성공적 완수라는 두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 또는 교육기회나 직업훈련기회 등 그들에게 ‘결핍된’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자립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심리적 조건과 학교 밖 청소년이 선택하는 행동의 관계에 주목해야 함.

이 문제의식을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한 개입의 영역에 적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리고 이 이슈를 진로·취업지도 분야로 좁혀서 보면, 열악한 경제적 조건과 단절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진로결정의 동기를 갖게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개입을 위한 과제와 세 전략은 반드시 시간적 선후관계를 의미하지 않음. 1차적 과제인 회복탄력성 강화는 개입의 종료 시점까지 중요한 과제로 지속됨. 세 개입 전략은 개인에 대한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 환경 및 사회구조·제도의 개선도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음.

- ① 1차적 과제와 전략 :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 위험이 심리적 좌절을 초래하고 문제적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심리적 좌절을 막는 보호 기제가 작동하면 이미 청소년이 갖고 있는 취업역량의 발휘가 더 잘 될 수 있으며, 또한 인생 목표 설정 및 진로에 대한 이해, 적응력, 성취 노력 등 진로태도가 개선돼 취업역량 개발을 돕게 됨.
- ② 중기 전략 : 진로·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통합을 도울 수 있음.
- ③ 장기 전략 : 사회적 배제의 위험요소 세 가지—인적 자본 미형성, 제도적 문화 자본 부재, 관계 자본 빈약—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임.



[그림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배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개입 전략

위의 개념틀이 갖는 함의를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직의 활동 목표가 도출될 수 있음.

- ①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서는 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함.
- ②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 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는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과 취업역량 강화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함.
- ③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 개입하는 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배제 요인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부(-)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사회적 배제 요인 자체의 감소에 정(+)의 효과를 발휘해야 함.

02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 노동통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가. 노동통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계

(1)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과 범주

유럽의 PERSE(Performance socio-économique des entreprises sociales d'insertion par le travail) 프로젝트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연구한 대표적 사례임. PERSE는, 노동역량이 희박해 노동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실업인구를 생산적 활동을 통해 일터와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표라고 보고 이들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조사함(EMES-PERSE 홈페이지).

PERSE는 2001년부터 2004까지 수행된 EMES(사회적경제 연구 국제 네트워크) 산하 연구 프로젝트이며, 4년간 유럽 전역에서 160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ISEs)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조사하고, 세부 기업 유형을 44개로 구분함.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예를 들어, 공공적 공간을 제공,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빈곤계층을 위한 중고품 매장 운영, 이동능력이 축소된 사람들에게 음식 전달·물품구매 대행·이동수단 제공 등 준 공공재를 생산하고 전달함. 때문에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①노동역량이 희박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실업인구의 노동시장 통합, ②(준)공공재의 생산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은 협동조합, 공제회사, 협회, 재단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정의되고 있음(Monzón and Chavez, 2012). 그러나 조직의 법률적 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중요

한 접근방식을 공유하고 있음 : ①지역 개발, 노동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의 재발견, ②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강조. 전자는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 부문 및 영리 부문과 차별점을 갖게 함. 후자는 미국의 상황에 더 뿌리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조직에 대한 보조금 축소로 영리 활동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음(Galera and Borzaga, 2009; Cafaggi and Iamiceli, 2009).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동통합 성과(2011년 유럽, 캐나다, 호주 사례)

[고용 증가 측면]

OECD(2013)에 따르면, 2011년 한해 유럽, 캐나다, 호주의 655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한 일자리는 4만7000개 이상이며, 277개(42.3%) 조직이 전년 대비 고용 확대, 74개(11.3%) 조직이 고용 축소, 304개(46.5) 조직이 현상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전년대비 풀타임 고용이 2.6% 순증가를 보임. 유급근로자 증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원 수요 증가’라고 답한 곳이 63.1%, ‘상품과 서비스 판매 증가’라고 답한 곳이 52.2%임(중복 답변).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측면]

조사 대상의 3/4 이상이 고용을 위한 훈련,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있었음. 거래를 통한 수입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직접고용에 사용됨. 상업적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직이 취약계층(직접고용보다)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분야에 집중됨.

[고용의 질 측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좋은 일자리 제공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좋은 일자리(장기 고용, 충분한 급여 지급)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정부계약의 단기적 속성과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익의 불안정성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금 지불을 어렵게 하고 있음. 아민(Amin, 2009)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가 갖는 불안정성이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가교 역할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동통합 유형과 과정

다비스터 등(Davister et al., 2004)은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유형 분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더 제시함. ①노동통합 방법, ②고용된 노동자의 신분, ③훈련 유형, ④대상 집단(target population)의 주요 특성, ⑤자원동원 방식. 이 기준을 토대로 유럽연합 소속 10개국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연구해 39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표 6] 다비스터 등(Davister et al., 2004)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기준

분류 기준	하위 범주
노동통합 방법	▶ 경과적 일자리 제공 ▶ 자체 자금 조달+평생직장 창출 ▶ 지속적 보조금+직업(2차 노동시장) 통합 ▶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사회화
노동자의 신분	▶ 공식 노동계약 / 훈련생 / 참가자(occupational status)
훈련 유형	▶ 작업장에서의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 구조화된 직업훈련(Structured training)=특정 기능향상 또는 자격 획득을 위한 체계적 훈련
대상 집단의 주요 특성	▶ 법적 기준 존재(예 : 이탈리아 B형 사회적협동조합) ▶ 법적 기준 없는 경우 : - (사회적 낙인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진 구직자 - 장기구직자 또는 수년간(2~5년) 구직활동 중단자 - 취업역량이 낮은 청년 구직자 - 소수자 집단(예 : 인종)에 속한 구직자 - 여성 구직자
자원동원 방식	▶ 금전적 자원 : 시장 수입, 비시장 자원(보조금), 기부금 ▶ 비금전적 자원 : 자원봉사, 사회적 자본

* 출처 : Davister et al.(2004)에서 정리.

위 유형 분류 기준 중 노동통합 방식의 하위범주는 ① 경과적 일자리 제공, ② 자체 자금 조달+평생직장 창출, ③ 지속적 보조금+전문적 통합, ④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사회화 등 4가지로 나뉘는데, 네 가지 노동통합 방식은 주요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는 2개 이상의 방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임(Davister et al., 2004; O'Connor and Meinhard, 2014).

- ① 경과적 일자리 제공(Transitional occupation) 유형은, 공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목표로 취업곤란계층에게 전환고용(transitional employment)을 위한 일 경험이나 작업장에서의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기회를 제공함. 경과적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은 전통적 형태의 노동계약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훈련생 신분도 포함.
- ②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한 평생직장 창출(Creation of permanent self-financed jobs) 유형은, 취업곤란계층을 고용하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초기에는 보조금을 받지만 노동자가 경쟁력을 갖게 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은 점차 줄어들며, 보조금을 받는 단계가 끝나면 기업은 (시장에서 얻은) 자체 재원으로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함. 그러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인력을 위한 특정 목적의 보조금은 계속 지급되기도 함.
- ③ 지속적 보조금을 통한 직업(2차 노동시장) 통합(Professional integration with permanent subsidies) 유형은, 노동취약성이 매우 높은 집단의 공개 노동시장 통합을 목표로 함. 이들 대상

집단에게 안정적인 중장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보조금을 받음. 이 유형의 기업 중 일부는 공개 시장으로부터 “보호받는” 작업장을 제공함. 이 유형은 주로 장애인을 고용하며, 또한 심각하게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를 가진 사람도 고용 대상에 포함됨. 보조금을 통해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산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 공개 노동시장에서 고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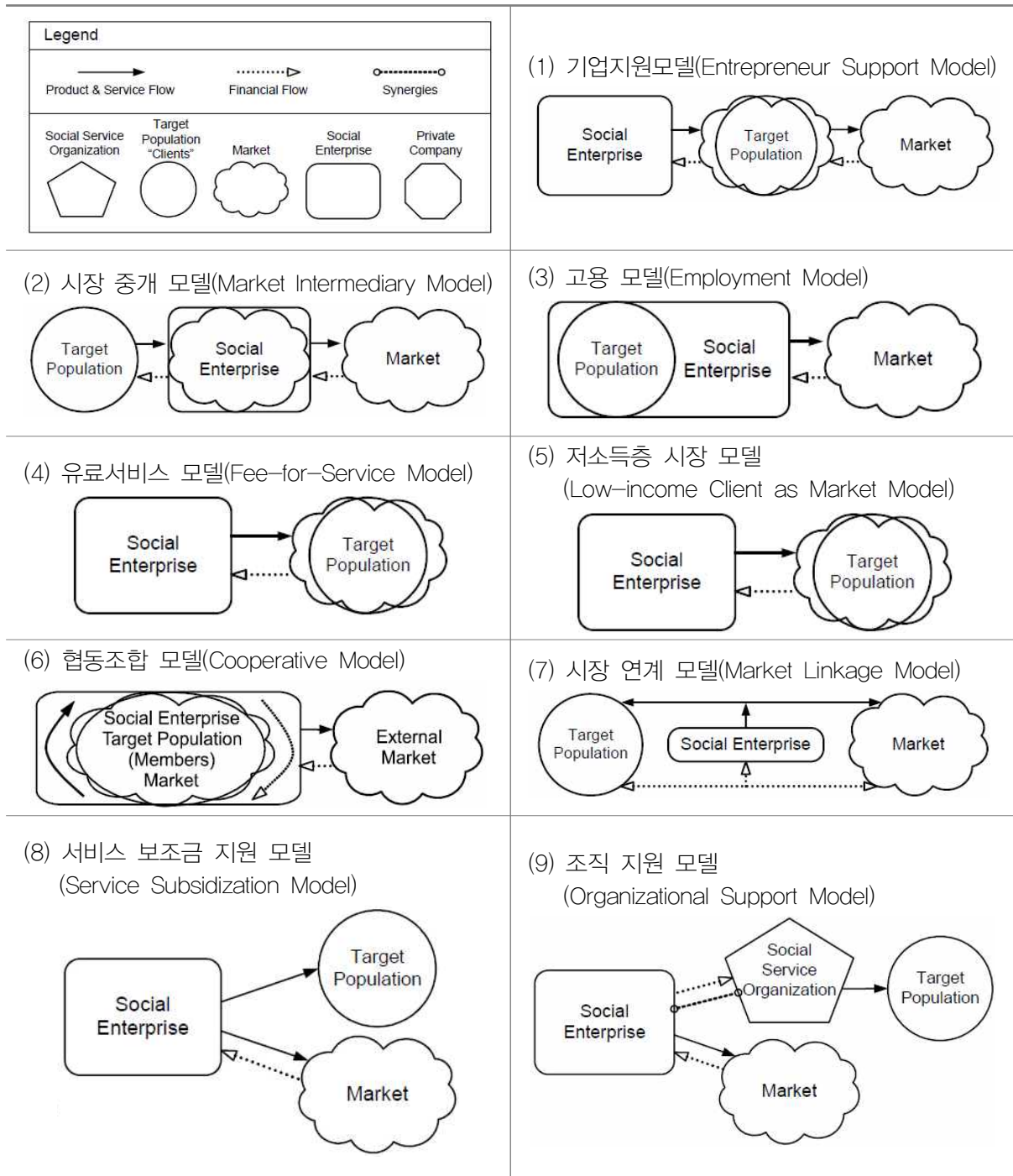
- ④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사회화(Socialisation through a productive activity) 유형은, 공개 노동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대상 집단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함. 이 유형의 기업은 알콜·약물중독자, 전과자,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심각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동시에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다비스터 등(Davister et al., 2004)의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기준이 주로 노동통합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요소들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알터(Alter, 2007)의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방식은 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

알터는 사회적기업의 ‘대상 집단’, ‘재화·서비스 판매 시장’, ‘사회서비스 조직’, ‘영리기업’과의 관계에서 재화·서비스 흐름, 금전적 흐름, 시너지 관계 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따라 9개 기본 유형을 제시함

알터의 유형 분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호 관계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도우며, 현실에서 각 주체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때 이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주요 이해관계자에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이 빠져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운영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표 7] 알터(Alter, 2007)의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 출처 : Alter(2007), pp.32-45, 각 유형에서 발췌·정리.

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과 지역 경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로 이탈리아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업곤란계층의 훈련을 통한 정규 노동시장 이행 및 직접 고용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탈리아 B형 협동조합의 노동자(조합원+고용노동자) 중 약 40%가 장애

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직업교육에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노동시장 규범 및 일반기업의 행동기준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됨(타나카 나츠코, 2014 :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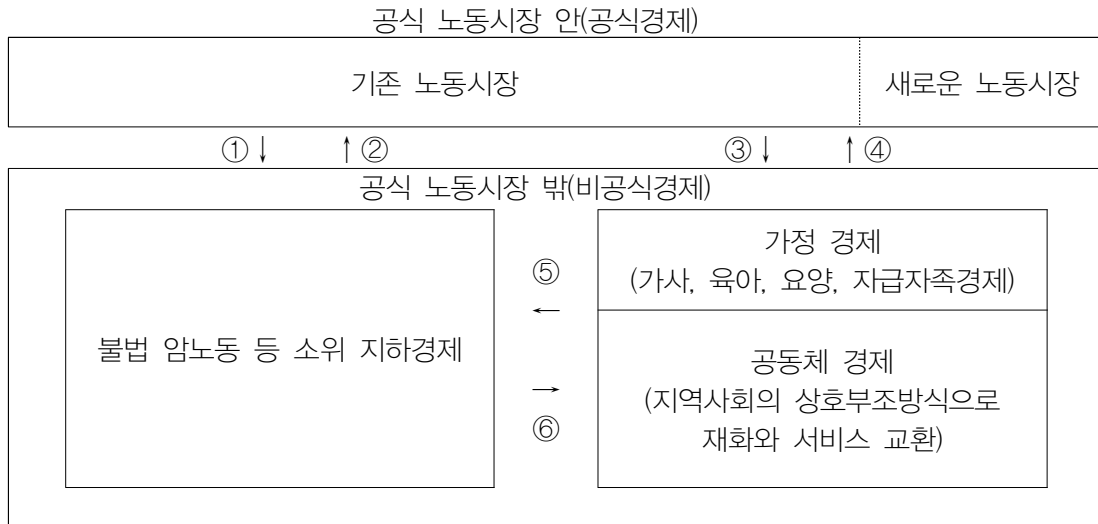
타나카 나츠코(2014)는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토양’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또한 바냐스코의 ‘제3이탈리아론’에서 비공식경제에 대한 이해를 참고해 지역경제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비공식성의 범주로 ①가정 경제(household economy), ②공동체 경제(communal economy)를 제시하며 여러 비공식 부문들 사이 및 비공식 부문과 공식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함. 가정 경제와 공동체 경제는 시장 또는 지하경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구력을 발휘한다고 봄. 예를 들면, 영리 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아 철수해버린 지역의 복지사업을 가정 경제나 공동체 경제가 지역 협력 노동을 통해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저임금노동·낮은 서비스질이 문제가 되는 요양 서비스 등을 가족요양이나 지역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대체하기도 함.

이탈리아에서 A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청년 실업자와 같은 취업곤란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근로동기 부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B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용창출과 직업교육에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노동시장의 가치의식이나 일반기업의 행동기준 변화를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의 사회적 구축’에 기여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을 위해 활동하는 영역은 [그림 5]의 개념틀로 요약할 수 있음. 공식 노동시장 안과 밖, 공식 노동시장 밖 부문들 간의 역동적 관계는 다음의 여섯 가지 형태로 나타남.

- ① [공식 노동시장→지하경제] 공식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은 자발적(높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등) 또는 비자발적(정보 부족 등)으로 불법 노동을 하게 되거나 임금착취 등 불법적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② [지하경제→공식 노동시장] 청소년 권리 옹호를 돕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도움 등으로 불법노동을 벗어나 청소년이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불법 상황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③ [공식 노동시장→가정 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 시장의 활동이 가정과 지역 공동 노동으로 대체되는 과정. 공식경제의 교육기업과 정부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개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④ [가정 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공식 노동시장] 가정 경제, 공동체 경제가 수행해온 작업이 공식 노동시장으로 외부화되는 과정.
- ⑤ [가정 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지하경제] 가정불화·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이 지하경제로 유입될 수 있음.

- ⑥ [지하경제→가정 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식사, 임시 주거공간, 상담서비스 등을 지역 NGO나 자원봉사 단체가 수행함.



* 출처 : 타나카 나츠코(2014), p.32, 그림 1-2를 토대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함.

[그림 5]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과 공식 - 비공식경제 관계 개념틀

사회적경제 조직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 및 대안적 노동과정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주체로 공식경제와 지하경제의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완충장치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원의 연계와 여러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의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함

노동시장 안의 사회적경제 조직(고용, 숙련형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 기업 등이며, 노동시장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보호, 진로 및 취업 지원, retreat 대응) : NGO, 종교단체, 복지단체, 자선단체 등임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가.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개입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2012년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27만 8천여 명에 이룸(윤철경 등, 2013).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노동배제 문제에 대한 개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됨.

학교의 관계 네트워크 안과 밖을 연결하는 장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의 경로 추적이 어려우며, 각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 연계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음. 정부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 보호관찰소, 소년원, 가정법원, 주민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생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작함.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이동경로, 행동 경향 등에 대한 현장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은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접촉을 개시할 것인지 등 문제 개입의 전체 방향에 대한 인식 위에서 조직의 목표 및 사업방식을 조율하며, 조직의 활동방향을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임.

(2) 사회복지 안전망 연계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은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들을 발굴하고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에 행정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의 접촉을 통해 이들을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하는 역할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복지단체, 자선단체, 대안학교 등이 해왔음. 이러한 활동을 해오던 시민사회조직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음. 또는 이러한 활동을 경험한 개인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을 목표로 하는 신규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3) 신뢰관계 형성

사회적경제 조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긴급한 필요를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맺기를 통해 장기적 개입의 발판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개입방식은 다른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어떤 개입과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만의 특징임. 또한 이러한 개입방식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개입을 위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일 것으로 보임.

(4) 욕구개발/파악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이 부족한 한국의 교육 풍토를 생각할 때 청소년 대다수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욕구를 개발하고 스스로 알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

최근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학생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정규 교육과정화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이와 같은 교육 기회에서 배제돼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인턴십 및 작업장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나.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1) 진로·취업 지도

정부의 노동통합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정부의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훈련 참가 의지가 낮아 중도 탈락률이 높음.

학교 밖 청소년의 희망직종과 취업역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파악과 진로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에서의 신뢰와 장기적 개입 의지가 필요함.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러한 개입을 통해 맞춤형 진로지도를 하고 있음.

(2) 보호받는 작업장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은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려우며, 직업훈련 과정에서 상담 등 치료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가 함께 필요함.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 탐색을 통해 보호받는 작업장과 연계하거나 스스로 고용하는 역할을 함.

(3) 정규 노동시장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취업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등을 통해 정규 노동시장 진입을 도움.

(4) 중도 탈락자 지원

사회적 기술이나 관계맺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훈련 과정 중 또는 취업 후 심리적 곤란을 겪거나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함. 교육·훈련 과정이나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중도 이탈은 단순히 어떤 과정이 잠깐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끼침. 따라서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재접속이나 노동 복귀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는 교육과정에서 청소년이 중도 이탈하는 경우, 개별적 만남과 상담, 재교육 등을 통해 노동통합 과정에 재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나간 경우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때문에 이들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탈 시에도 조력자로서 개입이 가능함.

다. 지역사회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배제 요인 개선

(1)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앞서 언급한 여러 단계의 개입은 단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으로 모두 해낼 수 없음. 또한 이미 존재하는 지역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조직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가 없음.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물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함.

(2)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청소년 관계 형성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취업 지도를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인력과 단체, 기업 등을 협동 네트워크에 접속시킴.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상호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이러한 기회의 증가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함.

(3) 사회적 배제 요인 개선 및 지역 발전 추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복지·교육 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의제 설정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공 부문의 노동통합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인권침해 사례 청취를 통해 지역 지하경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대안적 가치가 반영된 고용창출과 직업교육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가치의식이나 일반기업의 행동기준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뢰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지도 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만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이 낮은 다양한 위기청소년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음.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의 협동 네트워크는 시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8]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수요와 사업 전략

객관적 조건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에 대한 수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정책의 실질적 수행주체 부재 ▶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진로태도 성숙과 취업동기화를 유도하는 정규 노동시장 진입촉진 정책의 미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인식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료적·교육적 개입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호된 작업장의 부재
주체적 역량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약점을 보완하는 조직화 전략)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기 노하우의 축적 ▶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맞춤형 진로·취업 지도 프로그램 제공 및 수혜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 축소,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성취감 증대 ▶ 지역의 협동 네트워크를 통한 OJT, 인턴십, 정규 고용 가능 사업장 연계 ▶ 협동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비대칭 개선(청소년의 협상력 상승, 고용주의 계약 비용 감소)

03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

| 공공·시장 부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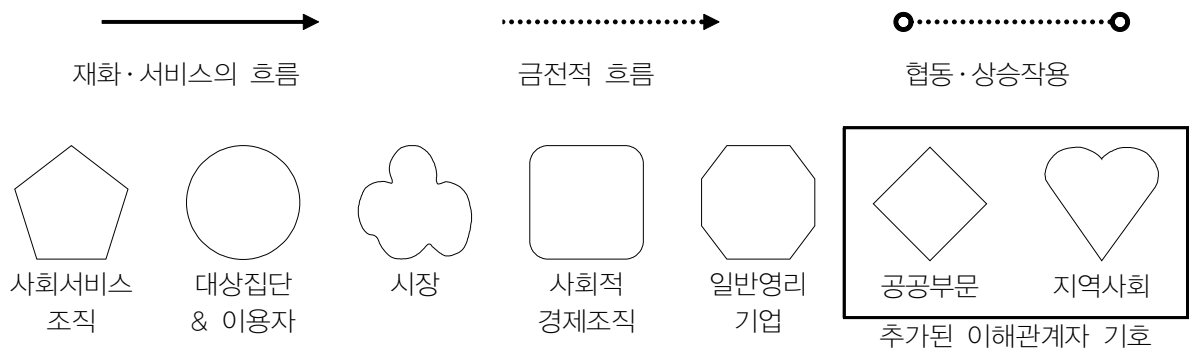
공공 부문과 시장 부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분석을 위해 [그림 6]에 반영된 ‘노동통합’ 관점을 구체화해 아래 표와 같은 분석틀로 재구성함.

[표 9] 공공 및 시장 부문의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틀

노동통합 관점 범주	하위 범주
회복탄력성 강화 측면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지원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 지원 대상의 욕구 좌절-퇴행 상태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 지원 대상의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노동시장 진입 지원 측면	▶ 지원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게 적합한가? ▶ 지원 서비스는 효과성을 발휘하는가?
사회적 배제 요인 개선 측면	▶ 지원 대상의 자산·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가? ▶ 지원 대상의 관계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가? ▶ 지원 대상의 제도적 문화 자본 부재로 인한 불평등 상황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 지역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 실태 분석틀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 사례 분석을 위해 먼저 알터(Alter, 2007)의 사회적기업 유형분류 방식을 사용해 사회적기업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알터의 이해관계자 구분에 공공부문과 지역사회를 추가함.



[그림 6]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기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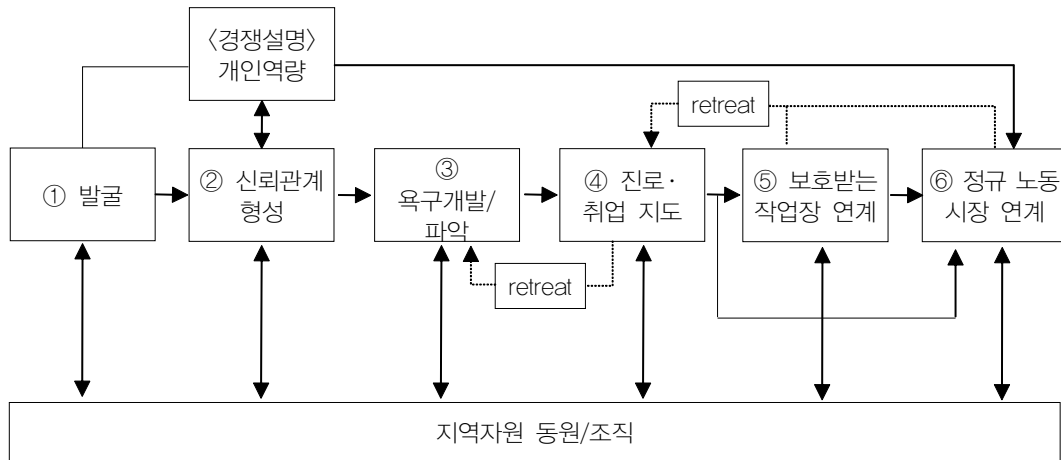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은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을 수립하고, 이 모델에 근거해 각 사례 조직이 어떻게 노동통합 효과성을 발휘하는지 분석하고자 함.

논리모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들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규정하고 조작화하는 분석기법으로 경험적으로 관찰된 사건을 이론적으로 미리 예측된 사건에 매칭시키는 사례연구방법임(Robert K. Yin, 2016 : 276).

앞서 검토한 문헌들의 이론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결합해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가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단계를 논리모델로 구성할 수 있음. 이 논리 모델은 사례연구 대상 SEOs의 구체적 실천들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용됨.

연구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확보를 위해, 논리모델에 청소년의 노동통합이 SEOs와는 관계 없이 청소년 개인의 역량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는 경쟁 설명을 포함시킴. 각 사례 조직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경쟁 설명이 고려됨.

아래의 논리모델은,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목적 양 측면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신뢰관계 형성'과 '지역자원 동원/조직 능력'임을 전제하고 있음. 수혜 대상이자 서비스 소비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들이 제공받는 교육·훈련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SEOs는 다른 경로로 서비스 생산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서비스 공급 비용을 낮춰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한 SEOs의 전략은 '관계 자원(relation capital)' 동원방식이 결정적임.



[그림 7]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



제 3 장

공공 · 시장 부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 · 취업지원 현황



01

공공 부문의 지원 정책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가. [1960-70년대] '낙오자' 보호와 관리 수단으로서의 직업교육

1960년대 초 사회제도의 통제권 벗어난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법(1961.12.13. 제정·시행, 1999 폐지)과 아동복지법(1961.12.30. 제정, 1962.1.1. 시행)을 도입함.

노동통합(직업훈련) 정책 주 대상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국한됨. 산업교육진흥법 제정(1963),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개편(1963), 직업훈련법 제정(1967),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사업(1974), 국가기술자격법(1974),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1974), 직업훈련기본법(1976년), 직업훈련촉진기금법(1976), 산업교육진흥계획(1976) 등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청소년 노동력을 양성함.

정부의 엄격한 대학정원 통제로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 분절. 국가의 집중적 투자로 풍부한 청소년 노동력 풀이 형성되고 높은 생산성을 거뒀던 데 반해 청소년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했음(김미란, 2005 : 93).

나. [1980년대] 중등교육 보편화, 경기 침체 등으로 청소년의 직업 이행 시기 지연

1980년대 중반부터 학교 중도탈락률이 가시화됨. 대졸실업 문제 등장.

1982년부터 기업의 직업훈련의무범주가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으로 확대됨(이세영, 1999).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직업훈련에서 청소년 훈련 비중은 점차 감소.

다. [1990년대 이후] 학교교육 위기 현상과 대안교육 정책 도입

198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 담당 중앙부처(체육부)에 청소년국 신설(1988.6), 각 시도에 청소년과가 설치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가 도입됨.

1996년 교육부는 기존 학교 운영체계 개선 방안과 부적응 학생을 위한 소규모 특성화 고등학교·대안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학교중도탈락자 종합대책’을 발표함.

1997년 9월 교육부는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활성화 유도, ‘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대책’ 추진.

2001년 2월 서울시교육청,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계획 발표. 9월에는 서울시의 주도로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대안스쿨 시작.

2002년 ‘공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에 ‘중도탈락학생대책 수립·추진’포함.

20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 제정·공포.

라. 2000년대 중반 이후

2007년부터 위기청소년 진로·자립 지원을 위해 ‘해밀’과 ‘두드림’ 사업 운영(여성가족부).

2012년 정부는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2012.2 개정, 2012.8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해 왔음. 이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상 정규학교를 중도포기 및 비진학한 9세~24세의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및취업·자립을 지원하도록 함.

2015년 5월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5). 학업 중단 사전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교육부=학업 중단 예방사업, 여성가족부=학업 중단 후 진로지도 및 의료지원 등, 고용노동부=직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지원을 맡음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확립.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15년 199개소)

2016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발표(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 확립

-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비행형, 은둔형 청소년 발굴에 중점을 둬. 경찰, 보호관찰소, 소년원,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으로부터 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해 비행형 발굴. 주민센터, 민관협력,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등을 통한 은둔형 청소년 적극 발굴.
-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교육부(교육과정 지원), 여가부(진로·심리상담 지원), 고용부(직업훈련·취업 지원) 협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학습경험 인정 등 학업복귀 연계 방안 마련.



[그림 8]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연계망('16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정부 관련 부처의 지원 현황

가. 통합지원체계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구상은 2015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구체화돼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①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②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③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④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⑤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

통합지원체계는 실태조사→발견→통합지원(육구파악→유형별 지원→사후관리)→학력취득·취업으로 구성됨.

[실태조사]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육구, 생활실태, 지원체계,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숙려제,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취업사관학교, 쉼터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함. 여성가족부-미래부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과제 추진.

[발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자원의 발굴·연계·협력을 담당하는 주요 정책 전달체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규정하고, 각급 학교장과 CYS-Net에 포함된 단체장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함. 각급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있음. 학생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중.

[육구파악] 센터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집단 또는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파악

[유형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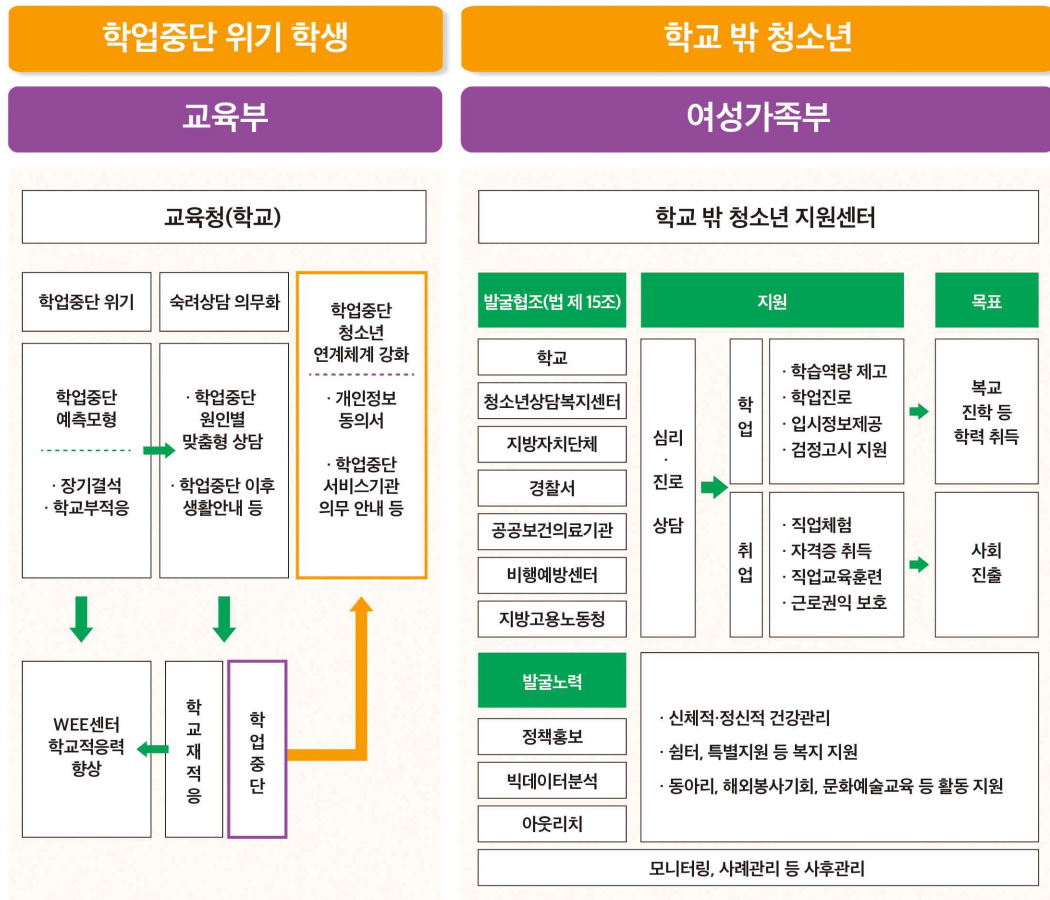
- 학업형 : 복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및 검정고시 이수 지원
- 직업형 :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전문대·폴리텍 대학 비학위 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다양화
- 비행형 : 소년원 입소 청소년에게 학업연계, 직업훈련, 자립의식 고취교육 실시
- 무업형 : 상담,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설정
- 은둔형 : 찾아가는 동반자 전담 배치, 가족상담, 자조모임,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사후관리] 사회진출 후 상담·멘토링을 통해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표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5대 중점 추진과제	18개 세부 추진과제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강화 ▶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기반 마련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학업형)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 (직업형)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 (집중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립 동기부여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위기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 지원 ▶ 긍정적 사고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환류시스템 마련 ▶ 범부처-지역-민간 협업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5), p.4.



[그림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5), p.17.



[그림 10]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흐름도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5), p.10.

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 검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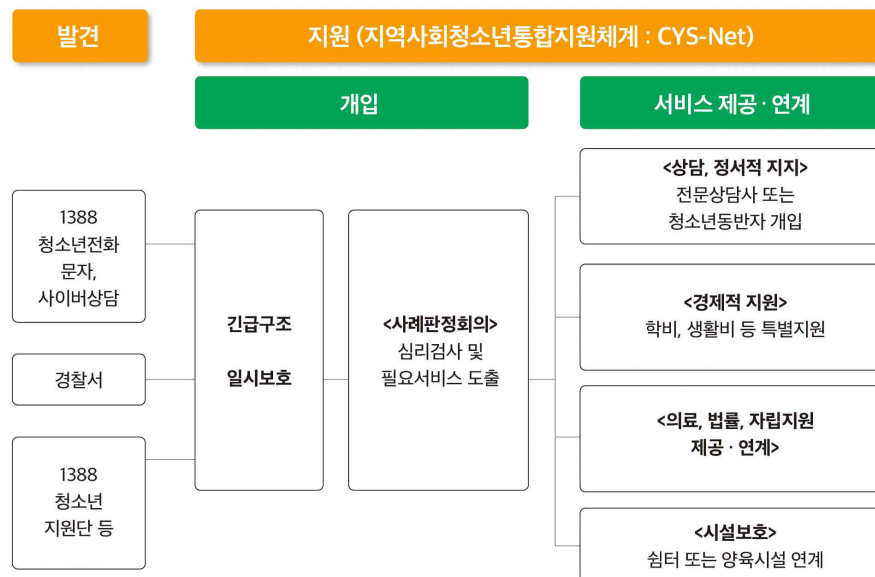
(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9세~24세)과 가족이 이용 대상이며 위기청소년·가족과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더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정보 연계를 의무화하고 있음.

중·고 위기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인터넷중독 → 인터넷중독 치유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연계 지원함.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아웃리치 실시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긴급지원을 실시함.

주요 전달체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2016. 7월말 현재 전국에 221개 센터 운영 중.



[그림 11] CYC-Net 서비스 지원절차 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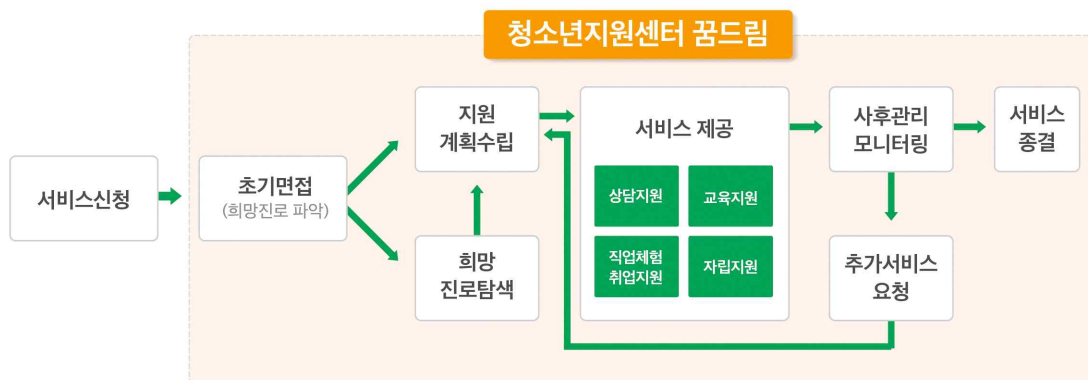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대상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표 11]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 프로그램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대학 등) 진학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 진로교육활동,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 취업을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자료 : 여성가족부 [http :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에서 정리.



[그림 1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서비스 지원 단계

* 출처 : 꿈드림 홈페이지 [http : //www.kdream.or.kr/](http://www.kdream.or.kr/)

(3) 청소년동반자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보다 심화된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청소년전화 1388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달체계를

청소년(9~24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은 위기스크리닝 결과 중·고 위험군인 청소년(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

(4) 청소년전화 1388

전화(1388),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

(5)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들(9~24세)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의식주 제공 등 대체가정의 역할 및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

- 일시쉼터 : 24시간~7일 이내
- 단기쉼터 : 3개월 이내(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 중장기쉼터 : 3년 이내(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씩 지속 연장 가능)

[표 12] 청소년쉼터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 프로그램
실생활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생활법률 자문
상담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부모·가족과의 집단상담
교육	검정고시, 개인 및 집단학습지도, 학업 상담
문화여가활동	다양한 체험학습, 공연 및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경제적 자립	개인 자산관리교육, 진로탐색, 적성검사, 직업·자격취득 훈련지원, 취업상담

* 자료 : 여성가족부 [http :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에서 정리.

(6)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설립한 거주형 치료·재활시설로, 정서·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보호+치료+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함

지원 대상은 정서·행동 영역에서 우울, 불안, 의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학교·대인 관계 부적응을 겪는 청소년(만 9세 ~ 18세).

[표 1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상담 (개인, 집단, 부모), 치료 (음악, 미술, 동작, 정서, 명상, 원예, 승마, 통합 예술, 놀이, 모래놀이등)
대안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중·고 대안교육·검정고시 준비
공동체	공동가정생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자립	개인 관심,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자립 생활
보호	생활습관 및 사회적응 행동, 대인 관계 기술 습득

* 자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http : //www.nyhc.or.kr/](http://www.nyhc.or.kr/)에서 정리.

다. 교육부

(1)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험군 청소년, 학교 안·밖 경계에 있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학부모에게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해 학업중단 방지하는 제도임

이 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 교육지원청별 위(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외부기관에서 심리·진로상담을 받거나 직업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자립지원 사업(경제·주거·교육·취업지원,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등이 있음.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 지원 대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 아동, 가정복귀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일부)
- ▶ 지원 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 없음).
- ▶ 지원 기간 : 0세부터 만 18세미만까지(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
-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취업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그룹홈의 기본 요건, 종사자 자격요건 등의 기준에 따라 예산 지원함

(3)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 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1인당 100~500만원 지급(지자체 별로 다름).

-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결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아동
- ▶ 지원금 사용 용도 :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비용

(4)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영구임대·대학생 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공동생활가정 입주지원

[표 14] 보건복지부-LH 주거 지원 사업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영구임대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퇴소자에 대해 추천서 작성 후 퇴소 아동의 거주 희망 지역 시·도지사에게 입주신청	▶ 기본거주기간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 시세의 30%수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 중 만 23세 이하로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1순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15년 기준) ▶ 2년 단위계약, 3회 재계약(최장 6년 거주) 가능(졸업 후 재계약 불가능) ▶ 지원한도 - 일반주택 : 서울, 경기, 인천 7,5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 공공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퇴소한 자로 만 23세 이하의 자 - 신청 시점이 23세에 도달하기 6개월 전이어야 함 - 해당 지자체에 신고 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한 자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이자(연 2%)를 부담하되,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1인 단독세대는 50㎡)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의 자(6개월이내 퇴소에 정자 포함)	▶ 입주인원 : 5인 내외 ▶ 임대료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 납입 ▶ 입주기간 : 2년(연장가능)

* 자료 : 아동자립지원단 <http://jarip.kohi.or.kr/> 에서 정리

(5)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화 및 내실화 제고,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 지원 대상 : Ready? = 보호 중인 아동, Action! = 보호 종결 아동
- ▶ 자립준비프로그램 8대 영역 :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그림 13]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흐름도

* 출처 : 아동자립지원단 <http://jarip.kohi.or.kr/>

(6)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시설퇴소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

- ▶ 지원 대상 : 만 18세 ~ 25세까지
-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 ▶ 시설 현황 : 서울 3곳, 부산 1곳, 대구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충청 2곳, 전라 2곳
- ▶ 시설 정원 : 30~40명.

마. 법무부

(1) 청소년자립생활관

교정시설 퇴소 후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소년을 비롯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 ▶ 지원 대상 : 만12세~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기관 추천(의뢰)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
- ▶ 입주 기간 : 최하 6개월이며 자립의지를 평가해 2년까지 연장 가능.
- ▶ 비용 구조 : 입주비, 급식비 받지 않음. 학교 수업료와 취업 및 자립에 필요한 교통비는 후원금에서 일부 지급.

- ▶ 시설 현황 : 경기 1곳, 부산 1곳, 광주 1곳, 대구 1곳, 대전 1곳, 경기 1곳(여자), 전북 1곳, 강원 1곳
/ 시설 정원 : 12~20명

(2) 창업 보육 기업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처를 제공하며 판매 수익금 전액 불우 위기청소년 사업에 재투자함. 운영기업은 오션 베이커리(제과·제빵), 엔씨위즈(광고 인쇄물 제작) 등

(3) Y.E.S 센터(Youth Education Service center, 사회정착지원센터)

영국 영파운세이션의 종합대안학교에 착안해 세워진 기숙형 종합기술교육센터.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무료숙식 제공. 전문 기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 유도.

- ▶ 대상 :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대상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 ▶ 교육 과정 : IT, 골프매니지먼트, 자동차정비, 용접 4개 과 운영. / 모집 정원 : 60명
- ▶ 교육 내용 : 인성, 적응, 직업 교육

[표 15] Y.E.S 센터 교육 내용

구 분	내 용
바른품성 인성교육	기업가정신, 조직사회에 필요한 태도, 고객응대법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인성교육
현장맞춤 적응교육	실습위주 프로그램 운영, 신기술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 확대
전문기술 직업훈련	실질적 전용 교과과정 개발, 교육훈련목표제, 국내산업체 연계 취업방안 모색, 자격증 취득 등

* 자료 : 한국소년보호협회 <http://kjpa.or.kr/> 에서 정리.

바. 고용노동부

(1) 취업사관학교

학업 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를 통해 건전한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 ▶ 지원 대상
 - (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참여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숙사 시설을 갖춘 기관(훈련시설 및 법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 의한 시설,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 ▶ 지원 내용 :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에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원(훈련비 및 기숙비용 무료),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실시, 학업(검정고시) 지원 등 개별적 맞춤 서비스 지원.
- ▶ 훈련 기간 : 6개월 이상(집체훈련)
- ▶ 훈련 직종 : 민간훈련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직종으로 실시

(2) 고용디딤돌 훈련

대기업·공공기관 주도로 자체 훈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업훈련 실시. 훈련 종료 후, 필요시 숙련도 제고 등을 위해 청년인턴제와 연계. 수료생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창업도 지원(∼'17 시범사업).

- ▶ 지원 대상 : 만 15~34세의 work-net 구직 등록자
- ▶ 참여 기업 : 삼성, SK, LG, 롯데, 현대차, KT, GS, 두산, 현대중공업, 한전, 카카오, 동부 등 12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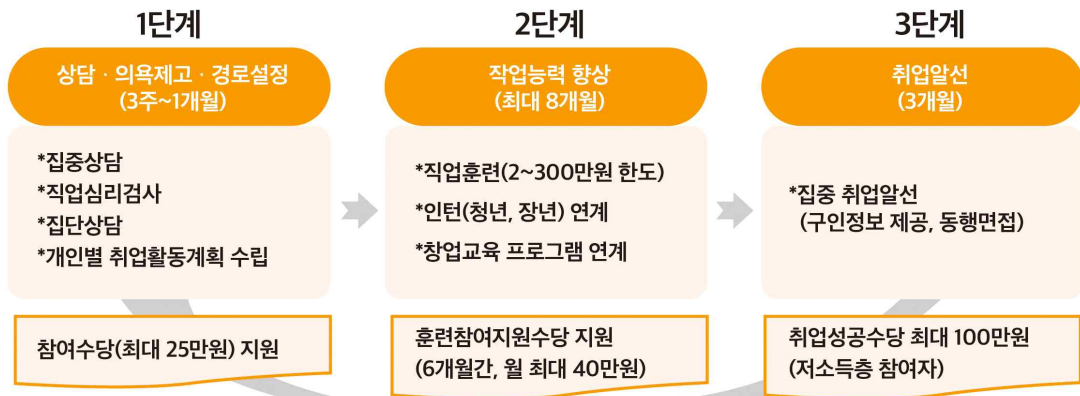
(3)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해 제공하고자 함(전병유 등, 2012 : 4).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제공되며,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과 빈곤탈출 촉진.

진행 절차는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 ▶ 1단계(진단·경로설정, 1개월) : 상담·직업심리검사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 2단계(의욕·능력증진, 최장 8개월) :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창업지원 등
- ▶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그림 14]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절차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 : //www.moel.go.kr/](http://www.moel.go.kr/)

[표 1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과 내용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 I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 ¹⁾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35~64세) ²⁾	청년(18~34세, 소득무관) ³⁾
지원 내용	참여수당 (1단계 수료시)	최대 25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원		월 최대 28.4만원
	훈련비 지원 (200~300만원) ⁴⁾	자부담 면제	10~30% 자부담	월 최대 11.6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1)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NEET족,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등

2)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종료 후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등

3) 고교·대학·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맞춤형기병.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비 한도 300만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구성원에 해당하는 참여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학교중도탈락·폭력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 자료 : 고용노동부 [http : //www.moel.go.kr/](http://www.moel.go.kr/) 에서 정리.

[표 17] 각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소관 부처	주요 사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여성 가족 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CYS-Net)		9세~24세 위기청소년 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학 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 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시도, 시 군구 상담복지센 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24세 정규학교 중 단·비진학 청소년	1:1 상담을 통해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 직업 체험 및 취 업, 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을 제공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9~24세 가출, 비행· 폭력, 학업중단, 성매 매 피해 청소년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청소년쉼터		9~24세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들에게 의식주 제공 등 대체가정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청소년쉼터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정서·행동 장애로 학교 및 대인관계 부적응을 겪 는 청소년(만 9세~18세)	정서·행동장애 고위험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생활공동 체, 문화·집단 활동, 진로체험 등을 통한 치료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센터, 국립중앙 청소년디딤센터
교육 부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험군 청소 년, 학교 안·밖 경계 에 있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외부전문 상담을 받 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해 학업중단 방지	학교, 교육지원청 별 위(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보건 복지 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0~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 활가정, 가정위탁 등) 및 기초생활수급아동 일부	아동(후원자보호자)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하여 적립	디딤씨앗지원사 업단,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동 자 립 지 원 사 업	경제 지원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아동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초기자립에 필 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 비 등으로 사용	관할 주민센터
	주 거 지 원	영구 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아 동복지시설의 장이 퇴 소자에 대해 추천서 작성 후 퇴소 아동의 거주 희망지역 시·도 지사에 입주신청	▶ 기본거주기간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 부 : 시세의 30%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관 부처	주요 사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추진 체계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아동복지시설 보호종 결 또는 연장보호 대 학생 중 만 23세 이하 로 대학 소재지 이외 의 시·군 출신 학생(1 순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전세지원금 중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15년 기준) ▶ 2년 단위계약, 3회 재계약(최장 6년 거주) 가능(졸업 후 재계약 불가능) ▶ 지원한도 - 일반주택 : 서울, 경기, 인천 7,500만원 / 광역시(인천제외)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 공공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소년 소녀 가정 등 전세 주택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퇴소한 자로 만 23세 이 하의 자 - 신청 시점이 23세에 도달하기 6개월 전이 어야 함 - 해당 지자체에 신고 된 복지시설의 장 또 는 아동자립지원단장 이 추천한 자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이자(연 2%)를 부담하되,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1인 단독세대는 50㎡)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공동생 활가정 (그룹 홈) 입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서 만23세 이하의 자(6 개월이내 퇴소예정자 포함) ※ LH 사업으로 아동복 지법에 의한 공동생 활가정(그룹홈)과 다 름	▶ 입주인원 : 5인 내외 ▶ 임대료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 납입 ▶ 입주기간 : 2년(연장가능)	▶ 신청대상 : 지 자체(시·군· 구청장) 또는 최근 3년간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는 법 인, 아동복지 시설 ▶ 선정 : 시·도 지사(운영기 관 선정위원 회)시·도지사 (운영기관 선 정위원회)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Ready? Action!)	Ready? : 보호 중인 아 동 Action!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 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 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영역) ▶ Action! : 보호종결 후 자립생 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 비스 지원 프로그램	한국보건복지인 력개발원 아동자 립지원단

소관 부처	주요 사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만 18세 ~ 25세까지	시설퇴소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 상담·자립·정서·생활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법무 부	청소년자립 생활관	만12세~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기관 추천(의뢰)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	교정시설 퇴소 후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대상 청소년을 비롯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
	창업 보육 기업	명시 안 됨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처 제공, 판매 수익금 전액 불우 위기청소년 사업에 재투자, 오션 베이커리(제과·제빵), 엔씨위즈(광고 인쇄물 제작) 운영	
	Y.E.S 센터 (사회정착지원센터)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대상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무료숙식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고용 노동 부	취업사관학교	17세 이상 24세 미만 위기청소년	학업중단·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 자립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디딤돌 훈련	만 15~34세 work-net 구직 등록자로서 고교·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	대기업·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우수한 자체 훈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직업훈련 실시(~'17시범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I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18~34세, 소득무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빈곤탈출 촉진	고용센터

| 서울시의 지원 현황

가. 서울특별시

2012.7.30. 조례 제정(2013.10.4.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으로 정의함

2014년 대안교육기관(38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센터 이용,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지원 등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해 4개 분야 및 16개 과제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함

[표 18]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지원대책 의견

구 분	내 용
안정적 공간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공간에 입주 희망
우선적 처우	수련관 등 시설·프로그램 이용시 대안기관 우선 배려
보조금 지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확대
인식개선	자치구별 조례제정 등 사회적 인식개선방안 마련
교육·행정지원	재학생 교육지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행정지원

*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4)에서 정리.

[표 19] '1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

추진 기본방향	세부 내용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시 민관협력 거버넌스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급식비 등) 기준, 학교 밖 청소년대책 전반에 대한 자문 ▶ 자치구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유도 - 지원 조례를 전 자치구로 확산 유도 ▶ 서울시-교육청 협력모델 - 진로직업체험센터 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굴시스템 - 학교 이탈시점부터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학업중단 숙려기간에서부터 상담에 개입하여 학업복귀 또는 진로탐색 지원 ▶ 거리의 학교 밖 청소년 - 아웃리치(연 4회), 버스형 이동쉼터(2개소→'15까지 4개소로 확대) ▶ 은둔형·외톨이형 청소년 방문상담 - '청소년동반자' 통해 지속적 방문 상담 ▶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선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등 재교육 시설 안내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평등권 보장위한 중·장기적 지원책 검토 – 청소년증 발급(학교 밖 청소년 등록) 유인 및 지원체계 마련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 대안교육기관 안정적 공간마련 – 청소년시설 내 대안교육기관 공간 확보 – 금을 활용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임대보증금을 지원 –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제정 건의 ▶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의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 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 및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지원 – 시·자치구 등 공공시설 활용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수 및 지원 규모 확대 –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확대 – 기관별 2인 교사인건비, 학생 급식비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
유형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 1:1 맞춤형 상담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5개소 ▶ 성고민 상담 : 성문화센터 7개소 ▶ 인터넷중독 상담 : I Will센터 6개소 ▶ 주거 및 자립지원 : 청소년쉼터 17개소

*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4)에서 정리.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종합지원대책과 연동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20] '16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구 분	세부 지원계획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발굴 확대 : 45개소('15년) → 47개소('16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지속 – 학습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 기관별 2인 인건비 지원 (1,760천원/1인)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비(월 25만원) 및 재학생 급식비 지원 (초등 과정 3,150원, 중·고등 과정 4,170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마련 – 사업인원 : 45명(15명씩 3회) – 사업대상 : 체험적 진로탐색의 의지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미용실·스튜디오·카페·연극실 등 체험 선호시설에서 일정 기간(3시간/1일, 60시간/월)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탐색 동기부여 – 지원내용 : 인턴십을 위한 여비·식비 등 활동비 지원 ▶ 학습교사의 전문성 강화 시행 ▶ 자치구 차원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 유관기관(검찰청 등)과의 협업확대 및 꿈드림을 통한 발굴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홍보를 통한 발굴
학교 밖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학습·상담지원	▶ 모바일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활용 학습지원 콘텐츠 개발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대안교육의 질 향상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력관리 DB 구축으로 정책 피드백 활용 – 대안교육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성과평가지표 개발·운영

구 분	세부 지원계획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학습의 질 향상 ▶ 위기 유형별 대응을 통한 상담지원 - 지원시설 : 상담복지·성문화·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쉼터 등 - 상담방식 : 개인상담(진로, 학업 등), 집단상담(대인관계, 연계 사례관리 등), 심리상담(전화·온라인 상담 등), 학부모 상담 등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통해 지원 개선방안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면접 등을 통한 실태조사 시행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의 상담을 통한 욕구조사 시행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 청소년시설·쉼터 등 청소년시설 유관기관과 심포지엄 개최

* 자료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2016)에서 정리.

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01년 세워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가 2012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됨.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의거해 모든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소외된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임.

주요한 사업은 학교 밖 배움터 지원, 교육지원, 교육연구, 홍보 및 대외협력임.

- ▶ 학교 밖 배움터 지원 : 컨설팅, 간담회 및 재협약, 재정지원(교사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 ▶ 교육지원 : 대안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 길잡이교사 교육,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상담, 연합행사
- ▶ 교육연구 : 정책동향, 지원방안, 학교 밖 배움터 평가 및 가이드라인, 심포지엄
- ▶ 홍보 및 대외협력 : 온·오프라인 컨텐츠 개발 및 홍보, 사회자원 네트워크 사업, 문화예술관람 지원

서울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중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도시형 대안학교 35곳, 징검다리 거점공간 10곳으로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일반학교·대안학교 등 어떤 배움터에도 속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등 징검다리 학습과정을 기획·운영하는 징검다리 학습 연계망의 거점 공간임.

[표 21] 서울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중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연번	시설별	운영주체	소재지	정원	교육과정
도시형 대안학교					
1	공간민들레	민들레(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다길 8-2 성북구청소년문화공유센터	50	1년 단위 수시모집
2	꿈지락학교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12	1년2학기 수시모집
3	꽃피는학교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93-16(연희로 22길 15-3)	30	정시모집

연번	시설별	운영주체	소재지	정원	교육과정
4	꿈꾸는아이들의 학교	(사)청소년의꿈	서울시 관악구 당곡길31 (보라매동 704-11) 1,2층	15	2년4학기 수시모집
5	꿈이있는학교	회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76-134 회원종합사회복지관	15	1년2학기 수시모집
6	꿈터학교	꿈터청소년대안공동체 (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178-4번지	15	2년 과정 기숙형
7	꿈틀학교	(사)청소년내길찾기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6길 19 (서교동 247-208)	30	2년4학기 수시모집
8	다음학교	(사)느헤미야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81 (서초동 1490-31 영일빌딩 2층)	40	중고등통합 수시모집
9	단재학교	단재학교(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7-3번지	20	6년12학기 수시모집
10	대안학교한들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150-8 송파청소년수련관 2층	20	2년4학기 정시모집
11	도시속작은학교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서대문청소년수련관 3층	20	2년4학기 수시모집
12	돈보스코 영상특성화학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30	1년2학기 상하반기
13	동방학교	충만교회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9-24 신사코아 아파트 2층 203호	20	2년 4학기 수시모집
14	로드스콜라	트래블러스맵(사회적기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등포역고가로 79 하자센터 103호	20	2년4학기 상하반기
15	비전학교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88번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활동팀	15	1년2학기 수시모집
16	사람사랑 나눔학교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15-14 성지빌딩 3,4층	20	1년2학기 정시모집
17	사랑의학교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9길 31 금호빌딩 4층 401호	20	중고등통합/ 기숙형
18	삼각산 재미난학교	(사)삼각산재미난마을	강북구 4,19로 8길 7-22	72	중등 정시모집
19	내일새싹학교	서울전인새싹학교(비)	양천구 월정로 50길 6 명일빌딩2층	45	초중등통합 수시모집
20	성미산학교	성미산 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비)	마포구 성산동 256-31	145	초중고 통합12년
21	성장학교 별	(사)청소년과 가족의 좋은친구들	관악구 청룡동 922-20 대원빌딩 3층	60	2년4학기 수시모집
22	푸른나무 미디어학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용산구 한강대로 255 (갈월동 101-5)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4층 미디어스쿨	15	3년6학기 정시모집
23	스쿨제프	교육공동체 제프(비)	도봉구 방학2동 394-6	10	1년2학기 수시모집

연번	시설별	운영주체	소재지	정원	교육과정
24	아름다운학교	(사)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광진구 구의2동 75-26	32	2년4학기 수시모집
25	영세프	오가니제이션요리(사회적 기업)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등포역고가로 79 하자센터 102호	10	1년2학기 정시모집
26	원두학교	푸른나무 청예단	금천구 금하로 30길 54	10	통합과정
27	인디학교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성북구 종암로25길 29번지 2층	15	중고등통합 수시모집
28	인투비전스쿨	인투비전스쿨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12	36	초중고등통합 수시및정시
29	우리들학교	우리들학교(비)	관악구 신사동 526-10	30	2년4학기 수시모집
30	은평씨앗학교	청소년대안공간돋움(비)	은평구 녹번동 155-13번지 4층	20	2년4학기 수시모집
31	이룸학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4층	15	수시모집
32	통(通,桶)	서울YWCA	성동구 금호동3가 1266번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12	1년단위 수시모집
33	티움터학교	(재)서울YMCA	종랑구 망우로87길 140 시립망우 청소년수련관	15	1년단위 수시모집
34	하자작업장학교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등포역고가로 79 하자센터 102호	45	3년6학기 정시모집
35	희망오름행복학 교	손과 발	서초구 방배천고 16길 17	15	중고등통합 수시모집
징검다리 거점공간					
36	나도 꽃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구 노원로1-나길 10 (공릉2동 87-5)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	상시운영
37	꿈꾸는다락방	꿈꾸는다락방	은평구 역촌동 38-1	40	상시운영
38	도깨비학교	강북교육지원센터도깨비	강북구 노해로23길 58(수유2동)	50	상시운영
39	몽담몽담	(사)청소년의 꿈	관악구 당곡동길 31 (보라매동 704-11) 1.2층	80	상시운영
40	와락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	노원구 상계로 193-25 2층	40	상시운영
41	작공	마을⑩도서관	은평구 갈현2동 477-36	50	상시운영
42	JU(주)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은평구 역촌동 56-12	10	상시운영
43	티움	(사)청소년내길찾기	마포구 서교동 247-208	10	상시운영
44	캔틴스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마포구 동교로 17길 37	20	상시운영
45	하품	오륜교회	강동구 암사길 57 강동청소년누리터내	10	상시운영

* 자료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2016)에서 전재.

02

시장 부문의 지원 현황

|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YOUTH STAND 프로그램, SK 뉴스쿨

가. YOUTH STAND 프로그램

YOUTH STAND(일하며 배우는 청소년 일터학교)는 창조적 공익문화공간을 표방하는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임.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롯데면세점, 아르콘, 성동구가 함께 성동구 서울숲 진입로에 116개의 컨테이너로 조성한 공익문화공간임. 7개의 가치를 담은 스탠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예술가,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함. 유스스탠드는 언더스탠드에비뉴 및 외부 인턴십 네트워크를 연계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임. 교육과정은 현장 직업 체험과 일터학교로 구성됨. 일터학교는 1년에 1회 모집.

▶ 현장 직업 체험 프로그램

- 신청 대상 : 13세~18세 청소년
- 체험 기간 : 1일 3시간 프로그램
- 체험 가능 직종 : 네일아트 디자이너, 애견미용사, 제빵사, 음식 조리사, 바리스타, 파티쉐, 심리치료사, 문화콘텐츠 기획자

▶ 일터학교 프로그램

- 신청 대상 : 18세~24세 자립지원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 과정 기간 : 5~6개월
- 교육 과정 : 네일아트 디자이너, 애견미용사, 제빵사, 음식조리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파티쉐, 편집삽판매관리자

▶ 선발 우선 순위

- 교육 및 취업과정(주5일 이상)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가짐이 있는 청소년
-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가정형태 및 가정소득증명 제출)
- 모집 분야에 대한 기초 소양 및 기술이 있는 청소년
- 지자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 청소년

[표 22] YOUTH STAND 일터학교 운영 프로세스

구분	선발	OT	직업 체험		일터 학습
명칭	선발면접	입문교육	직업체험(기초)	직업체험(전문)	인턴십
기간	1일	1일	1개월/주3일	1~2개월/주3일	3~4개월/주5일
내용	직무 심화교육, 현장 실습, 리더십 교육	교육과정 안내, 인성 교육, 서비스 교육	진로 교육, 직무 기초 이론, 현장 체험	직무 심화 교육, 현장 실습, 리더십 교육	인턴십 근무 취업 교육 역량 교육
지원 및 근무조건	적합자 우선 선발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 식비 지원	인턴십 급여 지급
기타	- 교육 시간 및 기간은 과정별 상이 - 인턴십 채용은 직업체험 과정 수료생 대상으로 평가과정을 거쳐 선발 진행				

* 자료 : 언더스탠드에비뉴 홈페이지 [http : //www.understandavenue.com/](http://www.understandavenue.com/) 에서 전재.

나. SK 뉴스쿨

뉴스쿨은 SK 행복나눔재단의 교육사업 중 하나로, 푸드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조리과 외식 서비스에 대한 무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임. 지원 대상은 20~29세 푸드 분야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정으로 요건을 제한함.

[표 23] SK 뉴스쿨 교육 과정

교육 기간	3월~12월 (매주 월~금 09 : 00~18 : 00)
교육 대상	20~29세 외식산업 분야 직업을 필요로 하는 청년
교육 인원	▶ 조리학과 - 전문 셰프를 꿈꾸는 20명 ▶ 서비스학과 - 외식서비스 전문가를 꿈꾸는 20명
교육 장소	SK 뉴스쿨 전용 교육장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위치)
교육 내용	▶ 조리학과 - 프렌치, 이태리, 한식, 제과제빵 등 전문교육 ▶ 서비스학과 - 외식서비스의 이론과 실제, 서비스 영어, 와인, 커피 등 전문교육 ▶ 공통과정 - 인문예술교육, 외식산업의 이해, 직업윤리 등

* 자료 : SK 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 : //www.skhappiness.org/](http://www.skhappiness.org/) 에서 전재.

| 사업비 지원을 통한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주거-자립’ 지원 : 한국타이어 나눔재단¹⁾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보호사업’, ‘자립사업’, ‘교육사업’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

▶ 보호사업 : 이상한나라(들꽃청소년세상) 지원(2015년 선정)

- 청소년 스스로 자립계획을 세우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과 다양한 자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공동체 지원함
- 정원 : 여자청소년(약간명)
- 지원 내용
 - 공간지원 : 안정된 주거지원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자립 준비 지원
 - 공동체 생활 지원 :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 자립 지원 : 청소년 스스로 자립계획을 세우고 사례관리르 통해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자립 지원

▶ 자립사업 : 커피동물원(성심수도회) 지원(2015년 선정)

-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스스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18-24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에 훈련의 기회를 더하여 직업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을 습득할 기회를 단계별로 지원함
- 지원 대상 : 18~24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
- 지원 내용
 - 기초직업훈련매장 : 가톨릭대학교 내 커피매장 일자리 제공
 - 직업전문훈련매장 : 2호점 창업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 제공
 - 직업교육훈련 : 기초과정에서 심화까지 사회기술 훈련 제공
- 협력기관 지원 내용 : 창업비용 1억원 + 운영비용 연 1억원(5년간, 총 5억원)

▶ 교육사업 : 손미나애편에서 운영하는 ‘인생학교’와 함께 위기청소년의 내적 성장과 자립의지 강화를 높이기 위한 ‘동그라미 + 인생학교’ 사업(2016년 선정)

- 자립을 준비하는 위기청소년의 내적 성장을 지원하여 자립(직업) 분야 확대 및 자립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지원

1)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사업소개 <http://hankooktirefoundation.or.kr/> 참조.

- 지원 대상 : 18~24세 자립을 하고자 하는 위기청소년
- 지원 내용 :
 - 인문학을 통한 내적 성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학, 예술, 철학, 한국사, 글쓰기 등의 참여형 교육 과정 지원
 - 체험 및 봉사 실습을 통한 다양한 경험확대 지원

| 창업 자금 지원 : KT&G 상상펀드²⁾

2011년 3월 도입돼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³⁾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금기부 활동으로 2016년 5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단체인 (재)소년보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금 5억원을 지원함. 창업 후에도 멘토링 등 지원을 지속하기로 함.

| 창업 인큐베이팅 및 고용 : 에스원⁴⁾

2013년 10월, 보안기업 에스원은 소년원 퇴소 청소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시설인 사회적협동조합 ‘카페 원(One)’ 창업을 지원함. 소년원, 소년보호협회가 에스원과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 소년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전문바리스타와 함께 카페를 운영. 에스원 수원사옥 1층의 유휴공간에 위치함. 수익금은 추후 일반상가 밀집지역으로 매장을 늘리는 데 사용. 새로운 매장에서 소년원 퇴소 청소년을 바리스타로 고용.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소년원 퇴소 청소년이 새로운 매장의 멘토(매장 운영자)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2) KT&G 홈페이지 ‘KT&G 소식’의 “KT&G 임직원, 위기청소년 창업 지원 나선다”(2016.05.26.) 참조
<http://www.ktng.com/ktngNewsView?cmsCd=CM0019&ntNo=1008&rnum=228&src=&srcTemp=>

3) 매칭그랜트 방식이란,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1~50구좌 자율선택(1구좌 1만원)해 적립한 후원금을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지원하면 기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조성하는 방식.

4) 에스원 홈페이지 ‘뉴스 및 공지’의 “에스원, 소년원생 자립 돕는 ‘착한 카페’ 활짝”(2013.10.01.) 참조.
<https://www.s1.co.kr/content/notice/view.do?seqId=1806>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생활관 설립 : 삼성전자⁵⁾

삼성전자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년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지원 센터 건립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2015년 9월, 처음 문을 연 대구 자립지원센터는 개인 독립공간, 체험공간 등 32실로 이뤄짐. 자립 준비, 자립 체험, 자립 생활 등 3단계로 구성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 부산, 강원도 추가 건립 예정. 자립지원센터와 프로그램 지원 기금은 2013년 12월, 삼성 신경영 20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지급된 격려금에서 조성

5) 삼성 뉴스룸 “보호 만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2016.06.10.) 참조.

<https://news.samsung.com/kr/?p=283947>

03

공공 부문과 시장 부문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 공공 부문 지원방식의 의의와 한계 및 시사점

가. 회복탄력성 강화 측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과 생활지원을 통해 위기 요인에 대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노동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연관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로 동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체험활동 지원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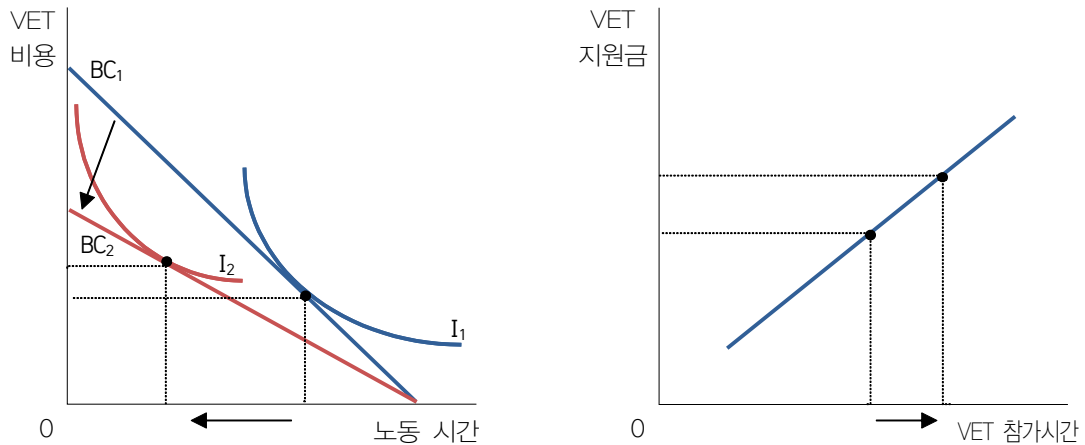
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측면

직업훈련 정보가 축적되는 과정에 직업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훈련과정의 내용·운영방식 등을 파악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업무와 비교해 미약함(김강호, 2016 : 30). 최종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애초에 본인이 희망했던 훈련과정’(85.7%), ‘패키지 상담원이 권유한 훈련과정’(8.2%), ‘훈련기관에서 권유한 훈련과정’(6.1%) 순으로 나타나(전병유 등, 2010 : 16), 상담과 훈련과정 선택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통합적인 취업지원 강화를 통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을 사업과제로 제시함. 이 사업은 취업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효과는 취업 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의 소비자이자 수혜자인 취업 곤란계층의 선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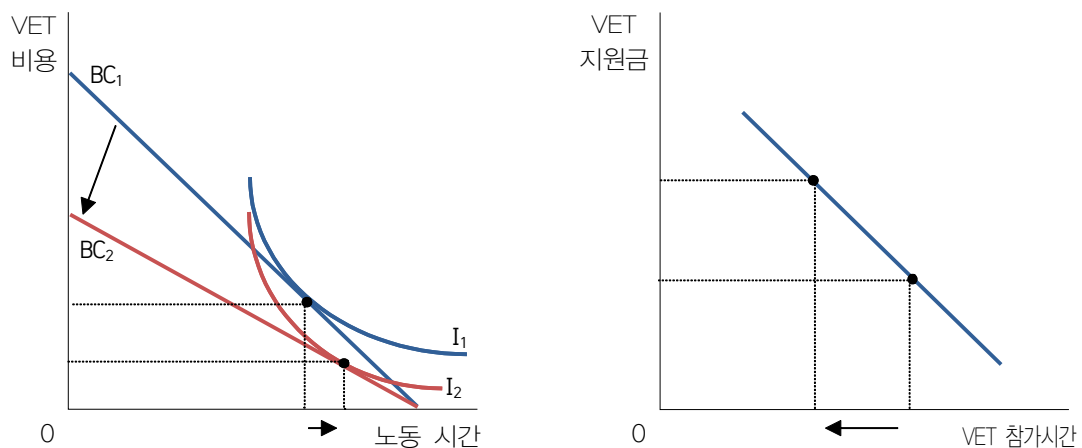
취업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취업 곤란계층의 교육·훈련을 받는 시간의 증가

를 유인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은 교육 참가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림 15]와 같이 참가자의 예산제약선을 안쪽으로 회전시켜 BC₁에서 BC₂로 이동시킴. 그 결과, 취업 곤란계층의 선호 무차별곡선은 I₁에서 I₂로 이동함으로써, 취업 곤란계층은 현재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훈련 참가시간을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5]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 효과(취업훈련 참가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계산과 예측을 취업 곤란계층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금전적 지원 증가가 예산 제약선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고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취업 곤란계층의 선호 무차별곡선은 [그림 16]에서와 같이 이동할 수도 있음. 이처럼 취업 곤란계층의 선호가 형성되는 경우 금전적 지원이 증가하더라도 취업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시간은 오히려 감소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6]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 효과(취업훈련 참가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취업 교육·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참여 후에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가 [그림 16]과 같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현재의 노동시간 대신 취업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막는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해서는 그 전단계의 진로 동기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 단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 설계가 필요함.

다. 사회적 배제 요인 개선 측면

통합지원체계의 도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디딤씨 앗통장, ‘자립정착금’)과 주거 안정을 돕는 지원사업(자립생활관, LH 전월세 지원) 등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모델이 구축되고 있음.

다만 자립정착금은 규모가 작고, 청소년쉼터(중장기)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지금 대상이 아님. 주거 안정 지원 시설은 대부분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2년 이내에 불안정 노동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 자립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자립을 위한 지원을 부처별로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생애 주기 모델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그에 맞는 연계된 지원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통합지원체계의 주요 전달체계인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질적 수행주체들(민간)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함.

| 시장 부문 지원방식의 의의와 한계 및 시사점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에는 기업 사회공헌사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점, 각종 매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루는 사례들이 많아진 점,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조명 받고 있는 점 등이 몇몇 대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동기일 것으로 예상됨.

YOUTH STAND 프로그램과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지원 방식은 대기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는 낯선 영역에서 대기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인 사업 구상 및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사례임.

- ▶ 유스스탠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자립지원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다양한 현장체험 수요가 생겨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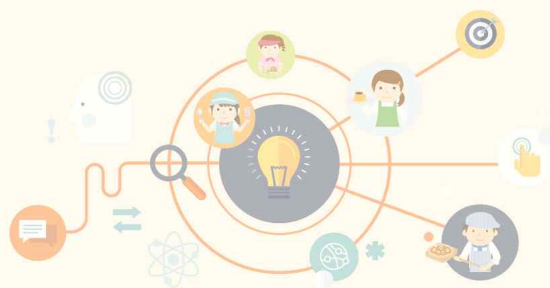
는 현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자립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모두 반영한 사업모델임.

- ▶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지원 방식은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 왔던 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돕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임대보증금 등 자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도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음. ‘현장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원해 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CSR 모델이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움. 이점은 청소년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원제약을 이유로 성과를 단기간에 내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될 만한 사람만 뽑기(cream-skimming)’ 전략을 선택할 유혹으로 작용함. 기업의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장기적이고, 수혜 당사자 중심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01 조사개요

| 조직 대표 및 교육·훈련 담당자 면접조사

가. 조사대상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사례가 많지 않고, 조직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1차 사례 수집은 인터넷을 통한 사례 수집으로 시작해 눈덩이 표집 방식(snowballing)을 활용함.

- ▶ 총 12개 조직의 대표 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조직당 1회씩(2시간 이내) 면접조사함.
- ▶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숙지를 요청했지만,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지향함.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질문지 문항에 대한 서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새로운 발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함.
- ▶ 추천된 다른 조직은 노동통합단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같은 지역 내 조직이거나 자기 조직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타 지역 조직이었음.

[표 24]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 기초 조사 개요

	조직명	형태	설립시기 (실제활동 시작)	소재지	면접대상자/직위	비고
1	들꽃청소년세상	사단법인	2003.02	경기도 안산시	전상일/교사 (들꽃피는학교 소속)	카페 피네 운영
2	함께하는 친구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2015.11	경기도 수원시	정한주/대표	
3	성남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15.05 (2011.)	경기도 성남시	이준호/상임이사	중간지원조직
4	유스바람개비	사회적기업	2011.01	경기도 성남시	김정삼/대표	바람개비스쿨 운영 카페 소리울 운영
5	오가니제이션 요리	사회적기업	2007.02	서울시 영등포구	한영미/대표	도시형 대안학교 영셰프스쿨 운영
6	일하는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3.02 (2012.)	경기도 성남시	이정현/사무국장	카페on온 운영
7	나눌레몬	예비사회적기업	2013.09 (2012.12)	서울시 서초구(부천)	홍충보/감사	2016.03. 사업종료
8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노원구 청소년문화의집 · 공공도서관	2010.12	서울시 노원구	이승훈/센터장	징검다리 거점공간 '나도, 꽃' 운영
9	인디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2014.01	서울시 성북구	송민기/교장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 크 부설. 청소년 휴카페 인디 운영
10	세상을품은 아이들	사단법인	2014.05 (2008.)	경기도 부천시	박새미/운영팀장	법무부 위탁 소년보호시설 운영
11	커피동물원	중소기업 (비상장)	2009.09	경기도 부천시	김정미/대표	청소년 자립 작업장
12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그룹홈(비인가)	2004.	경기도 부천시	이정아/대표	청개구리밥차 운영

12개 조직 사례 중 ‘주요 표적집단’, ‘조직(이행) 형태’, ‘노동통합 방법’ 세 기준에서 최대 편차(maximum variation)를 보이는 인디학교, 일하는학교, 커피동물원,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 등 네 개의 사례를 집중 분석함.

[표 25] 사례연구 대상 개요

	주요 표적집단	조직(이행) 형태	노동통합 방법
커피동물원	여성 가출청소년	쉼터+예비사회적기업 → 일반 중소기업	자체 자금조달 + 정규직장
인디학교	지역의 빈곤계층 학교 밖 청소년	비영리단체 → 도시형대안학교	경과적 일자리 연계 + 정규 노동시장 연계
세품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교회+비영리단체 → 사단법인+소년보호시설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사회화
일하는학교	지역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사회적협동조합	경과적 일자리 연계 + 정규 노동시장 연계

나. 조사내용

질문지는 크게 ‘사업 전략과 성과’를 묻는 범주와 ‘외부환경과 협력모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범주로 구분됨. ‘사업 전략과 성과’ 범주는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배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영역과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영역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하위 범주의 질문들을 구성함. ‘외부 환경과 협력 모델에 대한 인식’ 범주는 외부 환경 인식에 대한 영역과 협력 모델 구상에 대한 영역으로 세분화함.

[표 26] 사례 조직 조사내용의 구성

구분	1차 하위범주	2차 하위범주
사업 전략과 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표	▶ 표적집단 설정 이유 ▶ 표적집단의 유입 경로 ▶ 사업 구체화 과정 ▶ 자립의 정의(노동통합의 목표) ▶ 제공 서비스와 사회문제 해결의 관계 ▶ 제공 서비스의 비교 우위 ▶ 국내·외 참조 모델 ▶ 표적집단이 부담할 비용 ▶ 표적집단의 생계, 주거 부담 ▶ 교육·훈련 종료 후 진로
	조직 유지 목표	▶ 인적·물적 자원의 유입 경로 ▶ 재정구조 ▶ 갈등해결 기제
외부 환경과 협력 모델에 대한 인식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 공공 부문·시장과의 관계 ▶ 지역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 ▶ 사업상의 변화 또는 외부 환경 변화
	협력 모델 구상	▶ 표적집단 발굴에서의 협력 ▶ 노동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

| 교육·훈련 서비스 경험자 FGI

가. 조사대상과 방법

청소년 인터뷰는 사례 조직들의 개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청소년들 개인의 경험과 인식 층위에서 수집하는 것이 목표임. 사례 조직에서 진로·취업 지도 서비스를 받았거나 고용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함. 이들 청소년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중도 이탈한 경험은 있지만) 모두 수료하고 현재는 대부분 취업한 상태임.

해당 조직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소년만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소수사례가 과대대표 됐을 가능성, 소개받은 청소년들이 조직 대표나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여서 호의적 답변만 했을 가능성, 자신의 솔직한 발언이 공개돼 불이익을 받을 것을 꺼려해 부정적 사실은 숨겼을 가능성 등 다양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해석의 편향과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발언이 합리적 추론과 거리가 있을 경우 다른 각도에서 다시 질문하거나 인터뷰 후 다른 자료와의 대조 과정을 거쳤음.

[표 27] FGI 대상 청소년

참여 조직	구분	성별	현재 나이	부모 결혼상태	정규학교 중단시기	소속 전 노동유무	공공 프로그램 참여 유무	현재 노동통합 단계
커피동물원	A	여	21	이혼	고1(17세)	유	무	보호받는 작업장 고용
	B	여	23	이혼	고2(18세)	유	유(취업성공패키지)	보호받는 작업장 고용
인디학교	C	남	21	함께생활	고1(17세)	유	무	보호받는 작업장 고용
	D	남	20	이혼	중3(16세)	유	무	정규 노동시장 고용
	E	여	19	이혼	중1(14세)	무	무	진로·취업지도
세품아	F	남	19	함께생활	중3(16세)	무	무	대학 진학 준비 중
	G	남	19	이혼	중2(15세)	무	무	대학 진학 준비 중
일하는학교	H	여	22	이혼	고1(17세)	유	무	정규 노동시장 진입
	I	여	22	이혼	중1(14세)	유	무	정규 노동시장 진입
	J	남	21	이혼 후 재혼	대학 비진학	유	유(취업성공패키지)	보호받는 작업장 고용
	K	남	23	사별	고2(18세)	무	무	보호받는 작업장 고용

청소년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가 있어 익명으로 처리함. 2~3명 단위로 독립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1회씩(1시간 30분 내외) 집단인터뷰를 실시함. 집단인터뷰를 원하지 않은 J와 K는 개별 인터뷰를 실시함. 연구참여 청소년에게는 사전질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작성된 사전질문지는 소속기관의 대표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초점 집단 인터뷰 전에 미리 입수해 숙지함.

나. 조사내용

사전질문지는 연구참여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과거 노동경험 및 소속 기관 프로그램 경험 관련 객관적 사실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함.

[표 28] FGI 대상자 사전질문지 구성

구분	1차 하위범주	2차 하위범주
기본사항	응답 대상자 판별	▶ 이름, 소속 기관
	사회인구학적 특성	▶ 나이, 성별, 학력, 부모 결혼 상태
	경험 및 의식	▶ 소속 기관 오기 전의 일 경험 (종류, 시기, 수입, 노동시간)
진로·취업지도 관련	공공 지원 프로그램	▶ 공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소속 기관 프로그램	▶ 소속 시기/중단 경험 ▶ 참여했던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흥미도 ▶ 프로그램 참여도 ▶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실질적 도움을 준 프로그램 ▶ 진로 선택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소속 기관이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미래에 대한 인식	▶ 미래 희망직업 유무 ▶ 미래에 대한 기대감 평가

FGI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진입의 맥락과 경험’을 연구한 김지영(2011)의 심층인터뷰 질문을 참고해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재구성함. 이 연구에서는 현 소속기관 이전과 소속기관 교육·훈련 참여 이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경험과 인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함.

먼저 인생곡선 설명을 통해 청소년이 소속 기관에 오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파악함. 자신의 삶의 맥락에 대한 회상과 연결해 노동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함. 이 이야기를 통해 소속 기관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함.

[표 29] FGI 질문 구성

구분	세부 질문
라포 형성	▶ 자기 소개와 인생곡선 설명
노동 동기와 내용	▶ 학교 밖으로 나온 이후 생활 ▶ 노동 시기와 시작 경로 ▶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 활동들 ▶ 작업장 경험들의 차이 ▶ 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
현 소속 기관 이전의 노동경험과 인식	▶ 현 소속 기관 이전 노동을 떠올릴 때의 기억과 느낌 ▶ 현 소속 기관 이전 노동의 좋은 기억 ▶ 현 소속 기관 이전 노동의 나쁜 기억 ▶ 일을 계속해야 했던 이유 ▶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 다른 수입원이 있어도 노동을 할지 여부
현 소속 기관 이후의 노동경험과 인식	▶ 현 소속 기관 이후 노동을 떠올릴 때의 기억과 느낌 ▶ 현 소속 기관 이후 노동의 좋은 기억 ▶ 현 소속 기관 이후 노동의 나쁜 기억 ▶ 현 소속 기관 서비스나 노동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노력 ▶ 현 소속기관 이전 과 이후 노동의 공통점과 차이
삶에 대한 인식	▶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 ▶ 삶에서 달라지면 좋을 것 ▶ 미래에 대한 상상

* 출처 : 김지영(2011), p.158의 심층인터뷰 질문을 참조해 재구성.

02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정책의 실질적 수행주체가 없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정규 노동시장 진입촉진 정책이 준비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네 개의 사례 조직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을 지원하는 독특한 방식과 그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 분석틀로 제2장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을 사용해 각 조직이 보이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함.

| 커피동물원

가. 설립 배경과 현황

커피동물원은 가톨릭 재단법인 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던 중장기 여성 청소년 쉼터(성심디딤돌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2009년 창업한 커피전문점임. 2014년 쉼터에서 분리·독립해 현재는 독립된 기업으로 운영 중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기숙관에 1호점 매장을 두고 있으며, 2016년 9월 현재,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2호점을 신축 중임. 직원구성은 대표 1명, 교육·훈련 담당 직원(자립훈련교사) 3명, 청소년 직원 5~7명임. 가톨릭대학교로부터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모법인이었던 성심수도회는 교육 사업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음. 청빈, 정결, 순명에 이어 “청소년들의 교육에 몸바칠 것”을 네 번째 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1995년 성심여대가 가톨릭대학교와 통합됨에 따라, 1999년 수도회는 성심여대를 대신하는 사역지로 여성 ‘거리 청소년’을 위한 단기 청소년 쉼터(모퉁이 청소년쉼터)를 시작함. 이후 단기 쉼터 입소 청소년들의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할 필요에 따라 2005년 중장기 쉼터를 시작함. 당시 정부는 중장기 쉼터에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그

그룹홈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받지 않았음. 또한 기한이 차서 쉼터를 나가야 하는 청소년에게는 그룹홈과 달리 자립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성심디딤돌쉼터는 입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 기간을 고려해 4년간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함.

중장기 쉼터에서 독립 후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인후원자 연결 및 스스로 일을 해 얻은 수입을 적립하는 모델을 구상함. 이를 위해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외부기관은 이들을 “불쌍한 아이”로만 보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제공할 수 없었음. 때문에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청소년이 많았음.

직업훈련을 직접 할 엄두를 못 내던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카페 창업을 결정하게 됨. 당시 취업에 좌절을 겪고 있던 한 청소년에게 YMCA에서 연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연계했는데, 교육에 다녀온 청소년이 배운 것을 연습하는 모습에 쉼터 청소년들이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임. 이런 호응은 이례적인 것이었고, 쉼터의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과정이 적절한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김정대 대표와 쉼터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카페 창업을 제안함.

준비기간 2년을 갖고 2009년 창업함. 카페를 개점할 때는 목표를 매장운영보다 테이크아웃에 초점을 두고 시작함.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환경에 대한 고려, 공정무역

나. 운영 체계와 노동통합 방식

커피동물원은 장기 쉼터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취업훈련, 매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복합적 개입 전략을 취함.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의 자립과 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 그림에서 드러나는 같이 세 가지 개입 전략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음.

카페 사업의 시작도 중장기 쉼터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세 가지 개입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쉼터가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함. 중장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진로태도가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았으며, 장기적 목표를 둔 훈련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임. 오랜 기간 사회적 성취 경험이 희박했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았던 청소년에게 장기적 훈련 프로그램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음. 때에 따라서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했고, 청소년들과 오랜 시간 관계 맺기를 통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사전 단계가 필요했음.

“뭔가 방향을 찾고 싶은 아이들은 단기에서는 위낙 들고나는 곳이니까 안 되고, 좀 더 보호된 공간, 안정된 공간이 필요해서 2005년에 중장기 쉼터를 시작했어요. …(중략)… 단기에서 같이 살다가 같이 온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혀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중장기로 오니까. 마치 처음 본 아이들 같은. 아이들한테 터지는 사안들이 달라요. 자살 시도도 하고 자해도 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고 약도 먹는 아이도 있게 되고…. 저도 감당이 안 돼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

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에 켜켜이 쌓여진 것이 많다, 나오면 나올수록 도움이 되는데 나올 수 있는 통로가 그동안 막혀 있다가 중장기습터라는 것이 아마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3개월이나 이렇게 살다 나가야 하는 아이들은 들어올 때 그 준비가 됐기 때문에 3개월 같이 살 정도만 풀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 정도라는 거죠.”(김정미 / 커피동물원 대표)

취업훈련과 매장 운영이라는 목적이 동시에 수행되기 위해서는 매장의 명확한 업종을 정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과 품질관리가 요구됨. 이는 일견 자립훈련이라는 목표와 맞지 않아 보임.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 카페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바리스타는 취업 기회 측면과 취업 안정성 측면 모두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김정미 대표는 커피동물원을 묘사하는 서술에 ‘직업훈련매장’과 ‘자립훈련매장’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음(김정미, 2015). 이러한 경향은 대표의 용어 사용 착오가 아니라, 커피동물원이 추구하는 최종 단계의 자립과 실제 이뤄지고 있는 훈련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17] 커피동물원 훈련 단계

* 출처 :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http://hankooktirefoundation.or.kr/>

[표 30] 커피동물원 직업훈련 단계 및 직급

훈련단계		직급	역할
1단계		어시스턴트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개인차,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각각의 스텝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 사이드 음료 및 샌드위치 제조 ▶ 매장 청결 활동 등
2단계		바리스타	▶ 소요기간 : 1개월 ~ 3개월 이상(개인차,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손님응대 및 매장 내 모든 음료 제조 ▶ 커피에 대한 이해 및 부재료 특성 파악
3 단 계	1	메인 바리스타	▶ 소요기간 : 2개월 ~ 6개월 이상(개인차,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손님응대 및 매장 내 모든 음료 제조 ▶ 매장 내 음료 및 베이커리 제조에 대한 판단 및 책임 ▶ 재고 관리 및 발주 업무

훈련단계		직급	역할
	2	선임 바리스타	▶ 소요기간 : 2개월 ~ 6개월 이상(개인차,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선임바리스타 포지션은 [메인바리스타에서 매니저]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 ▶ 스텝 교육 방법 및 기초 회계·행정 교육 등 매니저 교육
4단계		매니저	▶ 소요기간 : 2개월 ~ 12개월 이상(개인차,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매장 내의 모든 운영에 대한 관리 ▶ 스텝 근무시간 관리 / 급여 기안 등 회계 업무 / 거래처 관리 등
		POS	▶ 소요기간 : 1개월 ~ 2개월 이상(개인차,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2단계(바리스타)부터 스텝의 개별 상황에 따라 훈련시기가 정해짐 ▶ 메뉴설명, 메뉴추천, 계산 등 손님응대

* 자료 :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2015), pp.105-106에서 전제

커피동물원은 훈련과정을 기초훈련과 심화훈련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단계를 설정함. 기초훈련은 직업체험 성격의 프로그램이며, 각 단계는 꽤 긴 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카페의 훈련과정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임. 즉, 매장에서의 직업훈련은 청소년이 원할 경우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심터 청소년의 적응력과 진로태도, 학습력, 관심 등을 고려해 중간 단계의 훈련 과정에 다양한 자립훈련 요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래도 뭔가 하나 넘을 수 있고, 아이들이 호감을 보일 수 있고, 너무 어렵지 않고, 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했던 게, 커피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도구, 호기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만, 그 당시는 제가 애네들이 다 바리스타가 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맞는 아이도 있고, 안 맞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애네가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 접했으니까 이걸 시작하는 것뿐 이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이 아이들을 커피라는 도구로 훈련을 시키지만, 여기서 한 1년 정도 과정이 끝나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자리로 가더라도 애네들이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배짱, 책임감, 자기를 보호할 권리를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요.”(김정미 / 커피동물원 대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커피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었고, 제가 제 돈 주고 커피를 사먹은 적도 없고 커피숍을 애용하던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 때부터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나오게 됐던 것 같고, 몸이 힘들고 계속 서있는 일이라 발바닥이 처음에 엄청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랬지만, 그래도 옆에서 잘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계속 나오면서 커피를 배우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제 나중의 직업으로, 로스팅도 완벽하게 해서 지금은 로스터가 되는 거랑 이것저것 바리스타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또 도전해서 2호점에 갔을 때 잘 쓸 수 있도록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연구 참여 청소년 B)

“저는 원래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고 나서, 애들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장래희망이. 지금은 이 일도 재밌지만, 책을 찾아보니까

음료 제조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중략)... (연구자 : 그러면 계속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쪽에 있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 가끔씩 스텝음료라고 하루에 음료 몇 잔을 먹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가끔씩 만들어서 먹어보죠. 다른 카페들 거, 카페 음표들 레시피 카피해서 먹어보고 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하면 다 뺏아먹죠. ...(중략)...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신메뉴 딸기라떼 만들 때 팀을 많이 드렸죠.”(연구 참여 청소년 A)

매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립훈련은 공식적 훈련과 비공식적 훈련으로 나눌 수 있음. 대표적인 공식적 훈련으로 스텝회의가 있음.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영업 종료 후 모든 직원이 참가하는 스텝회의가 열림. 스텝회의는 매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며, 매니저나 자립훈련교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메인바리스타·선임바리스타 중 1인이 서기를 담당하며 실무자도 공동 기록함. 회의 의제는 먼저 ‘활동보고’임. 모든 직원이 한 주간의 근태, 활동내용, 어려운 점, 개선된 점 등을 보고함. 활동보고와 함께 ‘단체코칭’이 이뤄짐. 활동보고가 끝난 후 동료 상호 코칭과 자립훈련교사 코칭이 이뤄짐. 회의 후에는 바리스타 교육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이뤄짐. 대표나 자립훈련교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민주적 회의를 통해 매장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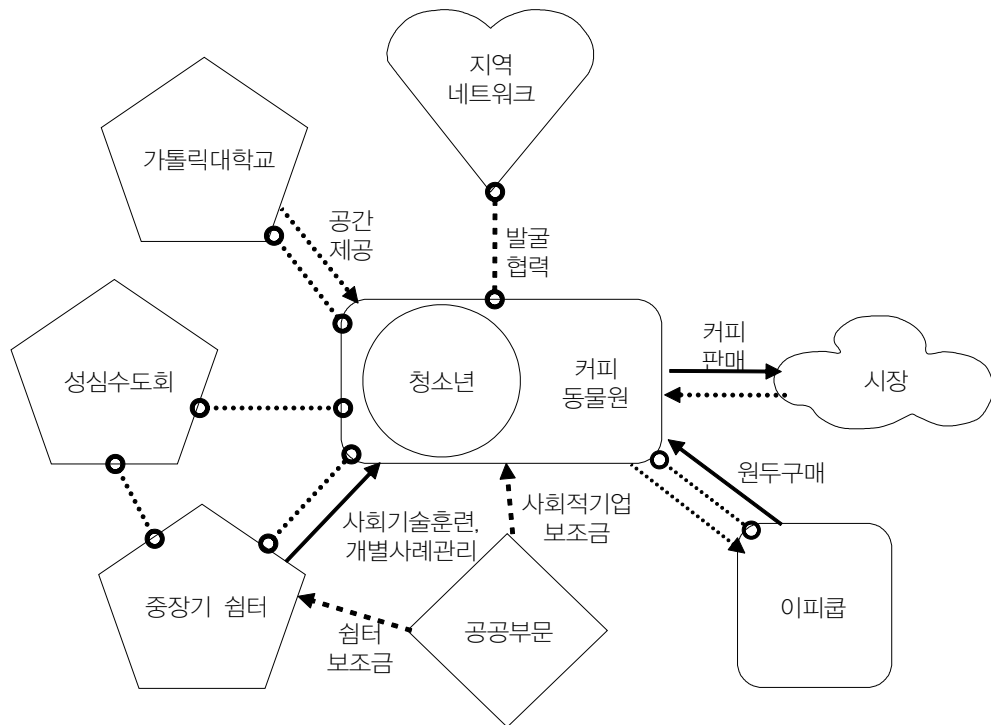
비공식적 훈련으로 일 경험을 통한 자기반성을 들 수 있음. 동료·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경험임.

매장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 전문 교육과정 이수, 이피쿱을 통한 원두 공동구매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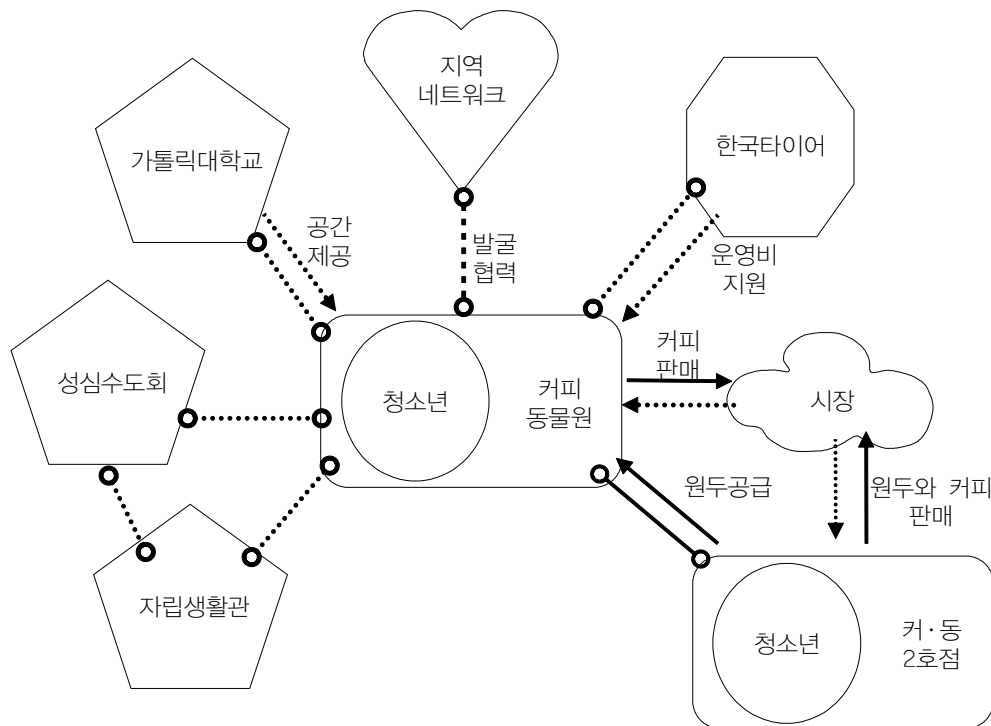
자원의 원천과 비용의 흐름에 관해서 우선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매장 부동산 임대와 시설 유지·보수는 가톨릭대학의 무상임대와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음. 정부 및 지자체와의 관계를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보조금·전문인력배치가 2015년 잠깐 있었지만, 커피동물원의 상황과 맞지 않아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철회함. 또한 쉼터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과 쉼터 운영비 보조금이 있었음. 쉼터는 커피동물원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청소년의 생활영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했음.

커피는 가톨릭대학 매장에서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2천원대임. 텀블러를 소지하면 300원을 할인함. 샌드위치, 토스트 등의 메뉴도 함께 공급됨. 대학생이 주 소비자인 점, 유기농 식재료와 공정무역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함. 수입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

위 ‘진상 손님’이 없고 아직 숙련되지 않은 청소년 직원의 실수를 손님들이 너그럽게 받아주는 점 등 대학의 호의적 환경은 청소년이 서비스 품질 문제로 해고될 위험을 줄이는 완충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18] 커피동물원 운영 체계(2014년 센터 분리 이전)



[그림 19] 커피동물원 운영 체계(2014년 센터 분리 이후)

2014년 센터와 분리된 후 운영체계에 변화가 있었음. 가장 큰 부분은 청소년의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주체가 없어졌다는 점임. 커피동물원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 복지 자원 연계를 위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음. 센터와 연계돼 있었을 때는 커피동물원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 또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청소년과 생활영역의 접점을 통해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끊긴 상태임. 김정미 대표는 쉼터 분리가 훈련과정 중도이탈율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쉼터와의 분리는 모법인인 성심수도회 내부 결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중장기 쉼터는 2015년 운영을 중단함. 모법인에 요구해 중장기 쉼터가 있던 공간을 현재는 주거시설이 필요한 청소년 직원의 자립생활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커피동물원은 지역 네트워크 또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 쉼터가 했던 역할을 대체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김정미 대표는 ‘자립팜 이상한 나라(들꽃청소년세상 운영)’,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연계돼 들어온 청소년들이 공개채용을 통해 유입된 청소년보다 교육·훈련 과정을 잘 견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재 가장 오래 근무 중인 청소년들도 위 두 기관을 통해 커피동물원에 참여하게 됨.

2015년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이 공모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중 ‘자립사업’ 파트너로 선정돼 창업비용 1억원 + 운영비용 1년에 1억원(5년간, 총 5억원)을 지원받게 됨. 이 지원금으로 커피동물원 2호점을 준비하고 있음. 개점 준비 중인 커피동물원 2호점은 대학 내가 아니라 일반 상권에서 운영해야 함. 2호점은 월급제를 도입하고(1호점은 시급제임), 지속고용이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원두 로스팅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다면 1호점의 재료비도 낮출 수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특이사항과 시사점

진로·취업 지도를 하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청소년이 쉼터에서 생활지원, 치료적 개입, 신뢰관계 형성 등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이후 교육·훈련 과정 적응력에 큰 영향을 끼쳤음.

커피동물원은 취업곤란 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이 ‘실업 →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조직의 법률적 형식이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과 교육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커피동물원처럼 영리기업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공익 조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은 해당 기업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커피동물원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매장운영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함. 인건비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추가 고용 및 급여 인상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을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지원이 끊긴 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음). 때문에 아예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짐.

[표 31] 커피동물원의 노동통합 모델

노동통합 단계	내용
발굴	▶ [쉼터 분리 이전] 단기 쉼터 → 중장기 쉼터 → 커피동물원 ▶ [쉼터 분리 이후] ‘자립팜 이상한 나라’,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의 추천, 구인사이트 통한 공개모집(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신뢰관계 형성	▶ 쉼터의 개별 사례관리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 자립훈련교사의 역할
육구개발/파악	▶ 강요하지 않고 의견을 표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을 결합한 교육과정
진로·취업지도	▶ 외부 전문교육과정 이수한 자립훈련교사 배치 ▶ 직업훈련과정의 세분화 및 승급단계 설정
보호받는 작업장 연계	▶ 커피동물원 1호점
정규 노동시장 연계	▶ 커피동물원 2호점(준비중)
중도이탈 대응	▶ 커피동물원 2호점(준비중)
외부자원 동원/조직	▶ 가톨릭대학교와 협력 관계 ▶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 인디학교

가. 설립 배경과 현황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소년 학교”를 표방하는 인디학교는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2014년 1월 6일 개교함. 청소년의 휴식, 문화 공간인 청소년휴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교육목표는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 일하면서 공부하고 자립하는 청소년,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자기능력을 계발하는 청소년임

학생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정원은 15명, 특별반 35명임. 모집 대상은 13~20세 청소년이며 수업료는 무료(입학금 3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상근교사 4명, 자원봉사 인원 15명이 활동 중임. 중고등 통합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학제는 없음.

송민기 교장은 2007년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방문학습 멘토링 파견 사업에 참여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가정을 방문하던 중 그 아동의 중·고등학교 형제, 자매들이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됨.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상을 비진학, 저학력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설정함. 이 사업을 계기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 2013년 가을부터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의 공동사업으로 인디학교 설립을 추진함.

2014년 개교할 당시에는 생명의 전화 복지관 20평 창고를 무상임대해서 교육공간으로 사용함. 이 공간을 무상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협력활동으로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진로상담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때 만들어진 관계망 덕분이었음. 회원 단체의 공간으로 옮겨 다니다 현재의 교육공간으로 입주함. 현재 이용 중인 공간도 2017년 말 계약이 만료되므로 교육공간에 대해 고민 중임.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소속단체가 32개이지만, 소속단체 중에는 성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작은 도서관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단체가 있어 소속 개별단체의 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초기 사업기금 2500만원을 마련해 시작했는데, 이 기금은 희망연대노조 C&M 지부의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임. C&M과 노조는 단체협약에 사회공헌사업을 노사 공동으로 함을 명시함. C&M이 조성한 30억원 중 3억원을 노조에 할애했고, 성북 지역에 6000만원 배정됨. 그중 25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고, 올해는 1000만원 지원받음. 2015년 10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도시형 대안학교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교사 2인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됨. 올해부터 노조에 자발적으로 금액 요청함. 현재 CMS 후원은 월 50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나. 운영 체계와 노동통합 방식

인디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잘 매칭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입에 중요 목표를 두고 있음. 이 목표에는, 정규학교의 교육과 정부의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는 결국 수요자인 청소년·청년층의 요구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이 담겨 있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복지 관점에서 보면 10정도의 프로토콜로 구성돼 있다면, 인디학교는 학생들이 그중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열 가지를 다 해도 되고 그렇게 저희는 구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대한민국 학교의 특성이 완전체를 구성해 놔놔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이 학교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에 충실해야 돼요. 이 모든 구성 요소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충실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환영받지를 못해요. …(중략)…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를 크게 잡고 그 안에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갖춰놓는 것, 좀 험령험령 하게. 그래서 오는 학생의 구성이 어떤 학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모양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죠.”(송민기 / 인디학교 교장)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해) 그런 사례들 죽 보면서 제가, 이거는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 활동이 필요하겠단,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업들 참여하는 사람들 모여서 워크숍 평가회 할 때,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 사업에는 매뉴얼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겠다, 매뉴얼 때문에 사람 잡겠다. 왜? 매뉴얼에 맞춰 다 껴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껴 맞춰질 정도로 기본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왜 오겠냐, 그게 안돼서 여기 온 건데 여기서까지 매뉴얼 들이대고 거기에 껴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질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송민기)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인디학교의 개입전략은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을 돕고,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체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임. 기초학력 취득 지원(검정고시 지원)은 학력 취득 및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인디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부적응한 경우지만, 대체로 학업부진이 부적응의 원인이었음. 학업부진과 정규학교 중단 경험은 청소년에게 자존감 훼손과 자기효능감 저하를 초래해 부정적 자기인식을 낳게 할 수 있음. 때문에 기초학력 취득은 부정적 자기인식을 극복하는 계기로 볼 수 있음. 인디학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요시하는데, 체험의 가치를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체험들을 먼저 규정하고 제시하기보다, 청소년 개인이 여러 체험들을 받아들이는 방식, 체험에 대해 보이는 흥미와 의지가 어떤지에 주목하고 계속하기를 원하는 체험을 동아리 활동이나 직업체험 등으로 연계 발전시키는 지원 방안을 탐색함.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뮤지컬, 카페 봉사, 요리 등을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했고, 네트워크 내 애견미용샵, 어린이집, 미용실 등 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인턴 지원 사업’을 진행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학교에선 문제였지만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할 것을 권장함.

“○○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일하는 거지만, 하루에 12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정말 노동착취적인 노동현장이예요. 이런 곳은, 기존 노동시장이긴 하지만, 불법 압노동은 아니지만,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사업장은 아니예요. 근데 저 친구도 노동인권 배우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적응하는 이유는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중략)... 제가 볼 때는 저기를 이제 적응할 정도 다녔으니까 저기 그만둔다 해도 웬만한 사업장에 적응은 충분히 몸에 습성화됐을 거다, 습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웬만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저 친구에게는 적성과 소질과 잠재성을 따져서 진로 설정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다, 저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 받는 사업장인데, 저런 데 다니는 것 왜 묵인하고 있느냐, 왜 지지하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경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송민기)

수요자 맞춤 체험 프로그램은 많은 비용과 자원 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인디학교는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의 넓은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음.

“인디학교 같은 경우는 성북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인 네트워크가 만든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본적인 자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원망을 총 동원해서 이 학생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평가를 확인한 다음, 또 거기에 맞는 자원을 발굴해내고 연계, 협력해내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미 기본자원은 형성해 놓은 거예요. 학교 세우기 전에 예비 학생의 예비 수요가 검증된 상황인 거죠. 우리가 대규모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은 없어요.”(송민기)

직업체험이나 인턴 과정에서의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인디학교는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함. 사전 조율은 일주일에 한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피드백을 긴밀히 하는 노력을 하며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조직 간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인턴십 진행이 어려움.

현재 당면한 과제는, 건물이 포화상태가 돼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공간 계약기간이 내년 말 도래한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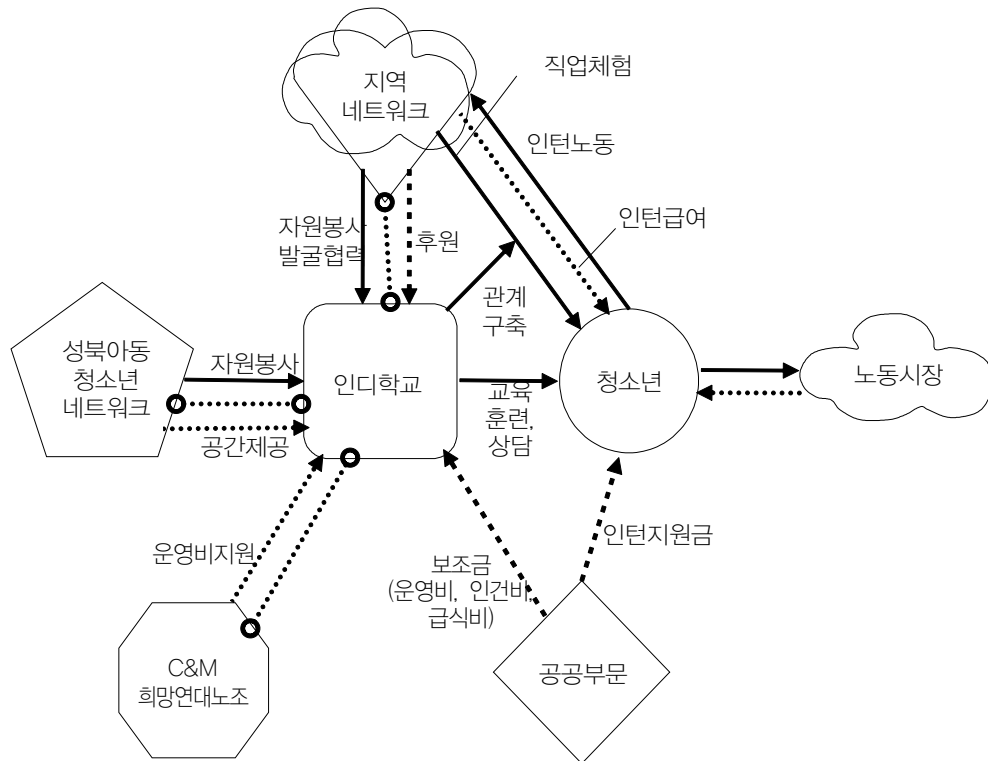
인디학교의 장기적·근본적 과제는 졸업 준비 단계, 졸업 후 초기 단계에 청소년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하는데 체험, 아르바이트로만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고용과 교육이 결합된 ‘학교 밖 청소년 일터+배움터+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임.

인디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만든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단절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효과가 나온 것은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뤄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세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표현을 하나면,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왜? 놀고먹고 싶어서. 자기가 경험해본 아르바이트 사업장 업주는 놀고먹는 사람이에요. 일은 알바가 해, 사장은 놀고먹어. 그런데 알바에 비해서 수입은 두세 배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 만나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학교 그만두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밖에 나와서 자기 엄마 세대 다른 사람들 만나보니 다른 거예요. 객관화된 타인으로서의 기성세대 어른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죠. …(중략)… 이 건물에 있는 성인들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한번이라도 해본 데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 같지 않다고. 얘기해보면 그런 거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엄청 컸던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은 두려움의 존재, 럭비공, 말도 안 듣고 사고뭉치, 정말 도깨비였던 거죠. 그런데 막상 접해보니까 자기 사춘기 자녀보다 온순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휴카페 오는 청소년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거든요. 여기 청소년도 그런 얘기해요. 저 오빠 학교 밖 청소년 맞아요?”(송민기)

“(연구자 : 인턴 과정에서 좋았던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연구 참여 청소년 D] 전 칭찬받은 거? [연구 참여 청소년 C] 나는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런 기억이 있죠. (연구자 :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연구 참여 청소년 C] 선생님은 자기 지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존경스럽고. 그래가지고 꿈이 더 커진 것 같고. 물론 나쁜 선생님도 많겠죠. 요즘 남자 선생님 말 많잖아요, 유치원에서 특히. 그리고 저도 유치원 처음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과고

말 많았고, 근데 세 달 다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치원 부모님들이 절 찾더라고요, 왜 요즘 안 오냐고, 길가다 만나면. [연구 참여 청소년 E] 그럼 고용해주세요. [연구 참여 청소년 C] 어,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웃음) 부모님들 아직도 날 기억해주시고, 선생님들하고 가끔가다 연락도 하고.” (연구 참여 청소년 C, D, E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림 20] 인디학교 운영 체계

다. 특이사항과 시사점

인디학교의 접근 방식은 ‘취업동기를 작동하게 하는 동기’에 주목한다는 점이 특징임. 인디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취득과 다양한 체험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 노동통합을 전체 사회적 과정에서 바라볼 때, 취업동기를 동기화(activation)시키는 요인을 노동통합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인디학교 사례는 보여주고 있음.

인디학교는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해 학제, 모집방법, 프로그램의 기획까지 유동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디학교는 ‘지역 협동 네트워크+현신적 교사+교육공간’의 교육 플랫폼에서 핵심모듈로 기능하며 맞춤형 진로·취업 지도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례임.

인디학교는 직접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내부에 경과적 일자리를 구축하게 돕고 청소년과 그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음. 정규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지원하는 인디학교의 노력은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 안에 보호받는 일터를 앞으로 (질적·양적 두 측면에서 모두)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공공부문(서울시)의 지원은 인디학교의 운영을 돕고 청소년 인턴노동에 대해 소득 보전을 해준다는 점에서 ‘지역 협동 네트워크+헌신적 교사+교육공간’의 교육 플랫폼 구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을 지원하는 기구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와 협업을 통해 고용과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봄.

[표 32] 인디학교의 노동통합 모델

노동통합 단계	내용
발굴	▶ 수시 모집 ▶ 지역 협력 네트워크 단체의 추천과 지역사회 입소문을 통한 유입
신뢰관계 형성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 교사의 역할
욕구개발/파악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 동아리 활동의 적극 지원
진로·취업지도	▶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청소년의 욕구를 기반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구성 ▶ 취업동기의 동기를 개발하도록 지원
보호받는 작업장 연계	▶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청소년 선호에 맞는 인턴십 활동 개발, 지원 ▶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문제상황 예방 및 개입
정규 노동시장 연계	▶ 지역 네트워크 내 신뢰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업장 고용 가능성 높임
중도이탈 대응	▶ 교사-학생 관계 개별 관리
외부자원 동원/조직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체험 기회, 인턴 작업장 발굴 ▶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긍정적 기대를 기반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역할

| 세상을 품은 아이들

가. 설립 배경과 현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세품아는, 법인설립은 2014년 5월에 이뤄졌지만, 실제 활동은 명성진 목사(부천예수마을교회)가 2005년부터 아들의 가출한 친구들을 교회에서 재우면서부터 시작됨. 초기에 교회에서 지냈던 2명의 친구(한 친구는 잦은 가출로 인해 독립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함)는 현재 세품아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음.

세품아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 수탁기관으로 선정(2016.1)돼 운영되고 있음. 6호 처분이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

탁(소년법 제32조 제1항)”하는 처분임. 6호 시설은 가정복귀와 시설수용의 중간적 형태로, 인성교육·시민교육·학과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학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춰야 하는데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몫임.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꺼리거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점이 기관들의 6호 시설 수탁 기피 이유가 되고 있음(김두상 등, 2016 : 13-14).

처음부터 법원 위탁 사업을 한 것은 아님. 초기에 함께 한 청소년들은 주변 지역에서 유명한 ‘일진’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심각한 본드 중독인 경우가 많았음. 명성진 목사 부부는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찾아낸 해결책). 보컬, 건반, 드럼, 일렉기타 등의 교육을 통해 Miracle Generation Band(MG밴드)를 결성하고 주기적인 공연 발표를 하고 있음.

법인 인가 전에는 비영리단체로 활동했으며, 당시에는 상근직 2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었음. 주로 부천 예수마음교회 구성원과 기독교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운영돼왔음. 2014년 법인 인가 후 급속한 조직확대가 이뤄져, 2016년 9월 현재 채용된 직원 14명이며, 사업조직은 경영지원실, 가족생활1팀, 가족생활2팀, 교육상담팀으로 세분화됨.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치유와 회복, 교육, 자립준비를 돕는 유스캠퍼스(Youth Campus) 모델을 구성하고 추진 중임.

[표 33] 세품아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미션	‘문제아’라 낙인 찍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문제해결자’로 다시 서는 것을 목표합니다.
비전	위기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써 ‘유스캠퍼스 Youth Campus’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복제, 확산되기를 지향합니다.
핵심 가치	▶ 삶을 함께하는 대안적 가족공동체입니다. ▶ 아이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 한 사람의 전인격적 변화를 지지합니다.

* 자료 : (사)세상을품은아이들 홈페이지 <http://www.sepuma.or.kr/>

세품아는 2014년 7월부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수탁해 운영하고 있음. 위기청소년의 비행화, 재범, 성인범죄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취약성과 가정의 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법률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임.

나. 운영 체계와 노동통합 방식



[그림 21] 세품아 운영 단계 모형

* 출처 : (사)세상을품은아이들 홈페이지 <http://www.sepuma.or.kr/>

(1) **발굴 단계** : 사법부를 통한 발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청소년 네트워크에 의한 발굴 세 가지로 구분됨

- ▶ 사법부를 통한 발굴 : 사법부에서 6호 처분을 받고 위탁된 청소년
-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의뢰된 사건,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발굴
- ▶ 청소년 네트워크에 의한 발굴 : 비공식적인 비행·범죄 이력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주변 네트워크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림 22] 세품아 유스캠퍼스의 위기 청소년 발굴 절차

* 출처 : (사)세상을품은아이들(2014), p.45에서 전재.

청소년 네트워크의 활용은 발굴 단계뿐만 아니라, 중도 이탈에 대한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범죄 생태계 또는 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이 갖는 위상을 활용하는 방식은 공식적 발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저희는 소수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저희는 아이 한 명이 백 명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아이 한명의 네트워크를 그리면 한명이 이백오십 명 정도 나와요. 한 다리 건너면 250명까지 알아요. 어른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만 전화하면 그 외의 친구들 다 아는 거예요. (시설에서) 이탈을 하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싹 알아서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가 와요. 선생님들이 움직이기보다 위에 형들 누구

한테 전화하고 사진 보내고 그러면 애들이 페이스북 통해서 짹 찾아요. 지금 어디 있대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박새미 / 경영지원실 운영팀장)

(2) 신뢰관계 형성 : 세품아는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① 대안가족 모델을 통한 접근, ②관계가 열리기를 기다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세품아에 오게 되는 청소년 중 많은 경우, 가족관계 단절, 빈곤, 학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안정적 가족관계 결핍), 또한 안정적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보호해주는 관계가 없다는 점(자신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외부세계를 경험하지 못함)에 착안해 대안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공동체인데, 처음에는 진짜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엄마, 어머님, 아버지 이렇게 다 부르기도 하고, 저도 그냥 애들이 형이라고 부르고. (웃음) 여기 선생님들 다 거의 그렇죠.” (박새미)

“지금 여기 공간이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바뀐 거거든요. 사실 저희 되게 열악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아이들은 그런 거에 거부감이 조금 있어요. (연구자 : 너무 깨끗해져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애들도 너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와도 편하게 있을 곳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애초에 알았던 선생님들이 외근 나가고 없으면 되게 그렇잖아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애들이 왔을 때도 늘 변함없이 맞이해주고 반겨주는 그곳, 그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거거든요. 길가다 애들이 가끔 아이스크림 사들고 들어왔다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연락 하나도 안 되다가 “새미 쌤 저 집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연락 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친절하게, 1년 만에 연락 왔어도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시면 아이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맺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박새미)

관계가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청소년이 낯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교사와 기존 입소 청소년들이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함.

“(연구자 : 처음에 관계 맺을 때 어려움이 많겠어요.) 다른 쉼터를 전전하다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오면 뭔가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일주일만 그냥 뒹요. 애들이 오면 대체로 일주일동안 창밖만 바라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여기 온 아이들이 자기는 여기로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범죄를 저질렀고 큰 죄를 졌지만, 자기는 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오면 되게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드리고 함부로 하면 더 일어나거든요, 이탈할 수도 있고. 일주일동안 프로그램 참여도 안하고, 외출도 안 시키고 그냥 뒹요. 한 5일정도 지나면 슬금슬금 나와요. 아이들 속에서 티비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가 인 부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또 있어요. 친구를 붙여주거나 애랑 잘 맞는 성향의 애를 붙여줘요. 그럼 개랑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처음에 상담을 하는데 애가 어떻게 왔는지,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고, ‘적어라 뭐해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기초생활부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같이 팔짱 끼고 나갔다가 음식 뭐 좋아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관계가 쌓이고 같이 자랐아요. 그러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관계가 쌓이면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해요. 자기가 이 얘기 저 얘기 다하는 거죠. 그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관계가 열릴 때까지.”(박새미)

(3) 욕구개발/파악 : 청소년 욕구의 개발과 파악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역 자원의 연계 또는 내부 인력을 통해 조직하고 제공함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은 정례화돼 있지만,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한 후 원하는 활동을 연결하고자 노력함.

“한 아이는 복싱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오정경찰서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경찰서에서 아는 분이 복싱협회 회장을 소개시켜 주셔서, 요 근처에서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개는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우승하고 오고. (웃음) 어처구니없이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타잖아요. 개도 있고. 지금 미용하고 싶은 아이도 있어서 미용 쪽은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그 아이도 미용 1, 2차 면접 다 봐서 합격해서 실습 나갈 예정이고, 다른 아이들 세 명 정도는 수능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중에서 아이들 선택이에요, 하고 싶은 거. 대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요. 아이들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몰라요, 뭐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짜증내고 욕하고 하다가, 하다보면 또 재밌는 거도 있고, 하다보면 맞는 애도 있고 안 맞는 애도 있고. 한 선생님이 랩을 되게 잘하세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랩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랩을 되게 잘 쓰더라구요. 가사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쓴 가사로 랩을 만들어서 무대 공연 가서 랩 하고, 뮤직비디오 찍거나 영상작업 하고, 그거로 공연해서 수입을 벌기도 했었고.”(박새미)

(4) 욕구개발/파악 및 진로·취업지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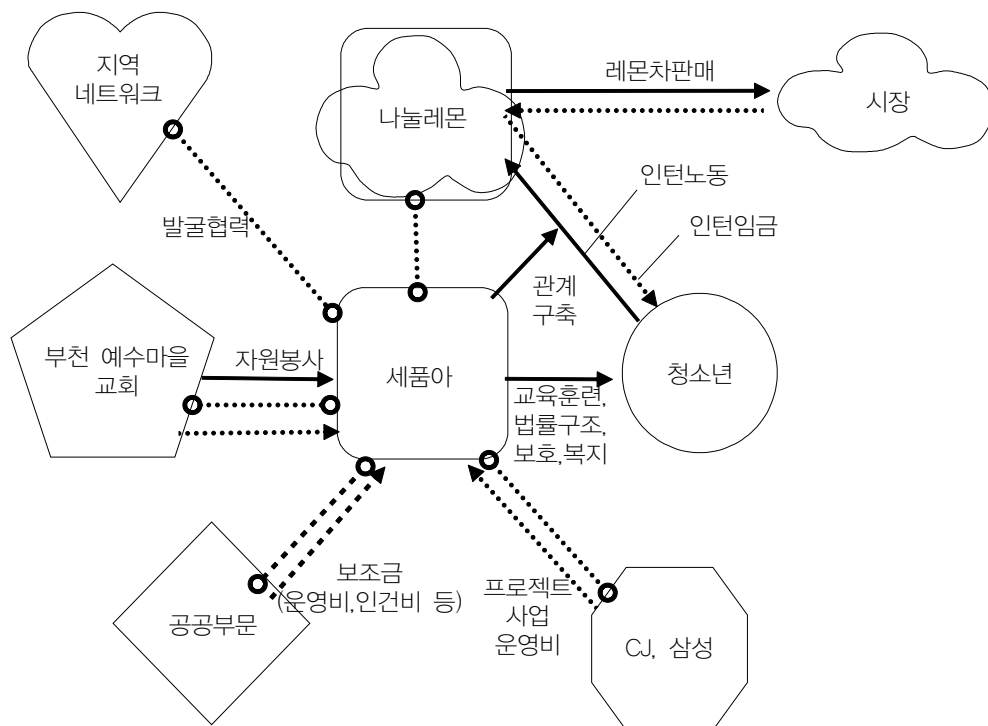
세품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돼 있음. 공공 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극 치료, 영상제작, 3D 프린터 교육 등을 수행함.

욕구개발 및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 원하는 것을 먼저 청소년에게 물어보고, 충분히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업종의 사업장을 모색하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을 이해·수용하는 업체수가 매우 제약돼 있음. 또한 청소년이 노출됐을 때 낙인효과, 편견 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함.

(5) 나눌레몬과의 관계

세품아는 사회적기업 나눌레몬과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폐업) 파트너십을 유지함. 세품아와 나눌레몬이 직접 경제적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눌레몬은 일당 7만원을 지급하는 보호된 노동시장 역할을 했음.

세품아에 오는 청소년들은 중고차 거래, 폰팔이, 성매매, 절도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건전한 경제관 형성 교육이 필요했음. 나눌레몬은 직업체험 또는 진로·취업 교육의 성격이라기보다, 시간약속, 돈 버는 습관 등의 교육을 위한 ‘일을 통한 사회화’ 목적이 강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3] 세품아의 운영 체계

다. 특이사항과 시사점

세품아는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세품아를 거쳐간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과적 일자리 또는 보호받는 작업장을 설립하고자 준비 중임.

비영리기구였던 세품아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6년 6호 인가 시설이 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방식의 체계화와 공식화, 외부자원의 연계 가능성 증대 등을 가능하게 했음. 그런데 조직의 변화는 대상 집단 발굴·관계 형성 단계에서 취했던 기존 방식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세품아는 청소년과 관계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완급을 조절하고 자신만의 흐름을 구축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그러나 인가 시설이 된 후 경직된 조건이 조직 구성원의 피로도와 청소년 이탈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음. 앞으로

관련 부처 또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저희가 법인이 되고 6호 시설로 인가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해요. 올라오실 때 문이 있었는데 문도 단 지 얼마 안됐어요. 6호 시설 인가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전에는 저희가 관계로만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문제가 많았죠. 맨날 밤에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탈율이 높지 않거든요. 지금이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 전에는 저희가 판사님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꼭 세품아에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대체로 두 가지예요, 완전 일진 짱이거나, 초범인데 집안이 되게 힘든 아이들,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소년원 가면 또 범죄를 배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우리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6호 인가 후로는 저희한테 일정 통지가 없어요. 그냥 오늘 몇 시까지 와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일주일에 두 명일 수도 있고, 갑자기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 케어하는 가족생활 팀 선생님들만 6명이 계세요. 지금 애들이 15명이 있어요. 애들에 비해서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주거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주거지 이탈이거든요. 한명 나갈 때마다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당직 서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피로도도 높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1:1로 관계를 맺는게… 사실은 그 전에는 애들이랑 되게 오랜 시간 새벽 네시까지도 얘기하고 맨날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힘들어졌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저희도 고민이에요.”(박새미)

외부의 지원방식이 갖는 경직성과 일회성, 세품아의 작업 주기와는 맞지 않는 단기적 지원방식, 조직의 성과를 청소년의 숫자로 파악하는 점 등은 세품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식과 조율을 이루기 어려움. 성과 평가 시 청소년 개인 단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한 청소년의 변화가 그 청소년과 연계된 범죄 생태계에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평가하는 측정 지표를 개발해야 함.

[표 34] 세품아의 노동통합 모델

노동통합 단계	내용
발굴	▶ 사법부를 통한 발굴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 청소년 네트워크에 의한 발굴
신뢰관계 형성	▶ 대안가족 모델을 통한 접근 ▶ 관계가 열리기를 기다림
육구개발/파악	▶ 최소한의 정해진 (공동생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육구 중심 ▶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체험기회 제공
진로·취업지도	▶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육구 중심 ▶ 노동시장 진입보다는 ‘노동을 통한 사회화’에 초점
보호받는 작업장 연계	▶ 신뢰관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친화적 작업장 연계 ▶ 독립적인 사업장 준비 중

정규 노동시장 연계	▶ 자립의 우선 목표를 시장 진입이 아닌 ‘가정 복귀·회복’에 두고 있음
중도이탈 대응	▶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파악과 대응
외부자원 동원/조직	▶ 법원,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 보조금 수령. 공공사업 수탁. ▶ 부천예수마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 복지재단, 기업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I 일하는학교

가. 설립 배경과 현황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공동체’를 표방하는 일하는학교는 2012년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시작함.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2013년 6월에 이뤄짐.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진로와 직업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됨.

[표 35]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창립선언문 일부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청년, 청소년의 자립, 특히 우리 사회의 경쟁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우리 마을의 청년,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온 마을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다. 더불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상호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로의 건강한 발전의 길을 새롭게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성심껏 수행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함께 만들어 간다.

하나. 우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교육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마을,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

하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과 함께 한다.

* 자료 : 성남 복지넷에서 재인용.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NEET족 등은 20대가 되면 학교와 아동복지 네트워크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이 어려워짐. 보통 사람들이 가진 자원이 없는 이들 청소년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관계망도 갖지 못함. 이들 청소년들의 일자리 진입 기회, 일자리 진입 후 문화적으로도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했음.

이정현 사무국장은 2006년부터 성남의 디딤돌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돼서는 아르바이트 외에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게 됨. 디딤돌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교사, 후원자 등 4명이 모여 부모 배경이나 자원이 없는 소외된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

해 훈련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2012년 만 18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공부, 자립기술 훈련, 진로 탐색, 청년 커뮤니티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하는학교를 설립함.

“기존 서비스들은 너무 취업을 시키거나 직업훈련을 하거나 이거에만 너무... 20대는 각자 사는 거라는 생각이 강하니까요. 청소년기야 각종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20대 이후에는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런 역할이 대학 안에서 약간 비슷하게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일하니까 그런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일하는 청년들,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전부터 야학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20대에 자리잡는 거는 못 봤고, 하나 본 게 서울의 ○○에서 하는 활동들인데 저희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일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특수한 사례고, 지역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비교할 수 없이 자원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20대 초반 후기 청소년들과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이정현 / 일하는학교 사무국장)

[표 36] 일하는학교 초기 교육 내용

구 분	내 용
일공부 (함께 일하는 방법)	▶ 준비교육 : 문제해결 프로젝트, 협업을 통한 일 경험, 청소년 마을 봉사단 ▶ 인턴십 : 마을일자리 및 멘토 연계, 자체사업장 운영, 지속적인 평가·상담
자립의 기술 (책임감 있게 일하기)	▶ 의사소통 : 경청, 의사전달, 비폭력 대화법 ▶ 시간관리 : 준비, 여가, time 매트릭스 ▶ 정서관리 ▶ 생활연습 : 요리, 청소
진로 탐색 (자기 길 찾기)	▶ 인문학 ▶ 치유적 글쓰기 ▶ 학부모 상담·교육
청년 커뮤니티 (일하는 의미)	▶ 인문학 스터디 ▶ 진로상담

* 자료 : 일하는학교 초기 홍보 브로셔

사회적협동조합인 일하는학교는 ‘생산자조합원(교육제공 또는 인턴십제도 운영하는 사업체)’, ‘후원자조합원(재정적·물질적 지원을 하는 개인과 기업)’, ‘직원조합원’, ‘소비자조합원(일하는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 등 네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출자금 3만원과 월회비 1만원을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음. 30세 이하는 최소 출자금 1만원, 월회비 5천원임. 아직 일하는학교 출신 청년 조합원 수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음.

재정구조는 후원 30~40%, 성납 보조금으로 30%,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이 나머жим.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사업은 없고, 외부강의에서 받는 강사료가 5%정도임.

나. 운영 체계와 노동통합 방식

발굴 초기에는 자체 홍보망이 약해서 인맥과 지역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서 교육 대상을 모집함. 그동안 관계를 통해 형성된 온라인 청년 네트워크 통해 하는 홍보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작년부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을 알고 찾아오는 청년이 증가함. 유입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신청과 기관 연계 둘로 나뉘는데, 전자는 후자보다 취업동기화가 더 강하게 돼있음. 때문에 두 집단 간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출발선에 차이가 있었음. 탈가정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은 쉼터, 대안 학교 등 관계 기관 추천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음.

“탈가정청소년은 바로 오지는 않아요. 쉼터에 있다가 오는 경우가 있죠. 2014년까지는 거의 다 동기도 낮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마을활동 하면서 모집 단계에서 좀 더 뚜렷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비슷한, 약한 청소년들만 모아놓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는 10명 정도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모았더니 ‘엎어져 있는’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동화해서 열심히 하고… 전에는 안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하기 싫으면 아예 못 오게 되면서 멤버에 변화가 생겼어요. 장점은 따라가는 사람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단점은 동기가 약한 사람들은 아예 떨어져 나가거나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몇 명이 바로 서는 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바꿨어요.”(이정현)

초기에는 대부분 저소득 가정 배경의 학교 밖 청소년이었는데, 진로동기화나 취업동기화가 안 돼 있는 동질적 집단만으로는 교육 진행에 한계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청소년들을 받는 비율을 조정함. 반수인 10명 정도는 자발성이 높고 의지가 강한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그 결과 수업시간에 ‘엎어져 있는’ 청소년이 사라짐. 그러나 동기가 약한 청소년은 과정에서 탈락할 위험도 있음.

“학교 밖 그룹에서도 잘 놀았고, 강하고 그런 친구들은 여기 안 와요. 자기 네트워크 통해서 일하고 돈도 많이 번 경우도 있고, 진로 고민도 선후배 관계 통해서 해결하죠. 그런 친구들은 가끔 오지만 금방 자기 주변 그룹으로 돌아가요. 친구, 선후배 자원, 사업체하는 형·누나들 있으니까. 여기 오는 친구들은 중간층이거나 온순해서 치였던, 인간관계 힘들어했거나 상처를 잘 받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이런 청년들… 혼자 자기 삶을 살았던 청년들끼리 모여 있으니 충돌이 없죠. 그런데 가끔 센 아이들이 오는데 그때 충돌이 있어요. 적극적인 친구가 있으면, 알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분화하면, 10명 남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반 정도고, 부모 지지가 있는 다른 요인 때문에 학교 밖이 된 친구들이 25%, 나머지 25~30%가 오래 은둔해 있었고, 할 때마다 자꾸 포기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서는 재밌게 어울리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한 번에 안 되고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오고 두 번 세 번 정도 한 후에 수료를 해요.”(이정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교육비(1년에 3천만원) 지원을 받아 ‘쫓겨한녀석들(청년마을활동)’, ‘길찾는학교(인턴십 과정)’ 수강생을 받고 있음. 교육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무료로 수강함. 청년마을활동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 청년에게 마을에서의 활동 경험을 통해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음.

“작년에 ‘쫄쫄한녀석들’도 그거로 진행을 했어요. 연간 3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성인기,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과 그걸 활용한 지역 마을공헌활동을 하는 게 주된 테마구요. 보통, 직업훈련은 배워서 취업하는 방식인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어도, 성취경험도 없고 부정적 경험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속력이 부족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해요. 조금 하다 힘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청년·청소년들한테는 배운 걸 활용해서 성취감도 많이 얻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마을활동이라는 걸 주되게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잘 되면 좀 더 심화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진학·취업을 하도록 연계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직업훈련보다는 동기향상 강화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죠.”(이정현)

마을활동은 네 개의 팀이 아동복지·디자인·바리스타·수공예목공예 각 영역을 맡아서 진행함. 진행과정은 기초교육→지역 수요조사(문제 찾기)→문제해결 방법 구상→타당성 검증→마을활동으로 이뤄짐. 마을활동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역 협력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각 단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함.

사업 초기부터 마을활동이 도입됐던 것은 아니며, 취업지원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①취업동기와 노동 지속력 약함, ②단기노동경험에서 겪는 자존감 하락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었음. 2015년 마을활동과 함께 노동인권교육, 청년 커뮤니티 형성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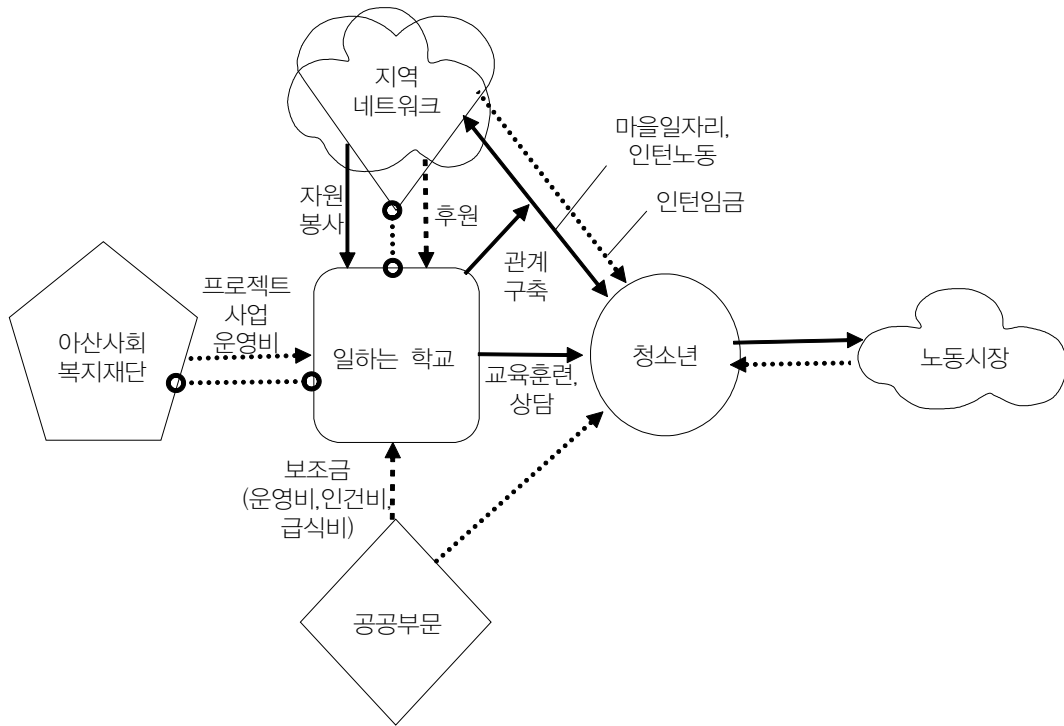
“2014년까지는 주로 인턴십, 돌봄 일 경험 이런 사업을 주로 했어요. 중소기업장과 네트워크 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 그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해보고 얼마 돈을 받고, 자기 희망하는 거와 잘 맞으면 취업을 하거나 진학 훈련을 받는 그런 사업을 2014년까지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게 학교 밖 청소년이 인턴십을 하거나, 취업에 준하는 뭐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에 대체로 간극이 너무 멀리 있다는... 이런 걸 채우는 동기도, 지속력도 많이 향상돼야 하고. 이런 게 없이 직업으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2015년부터 마을활동을 도입해서, 여기까지 된 친구들을 인턴십이나 취업 지원하는 것으로 변동이 됐죠. ... (중략)... 당분간 진로결정을 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많이 하거든요. 진로와 무관한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오가는 친구들 다 알바, 비정규 노동을 하는데, 열악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고, ‘나는 이 정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또 그런 게 있어서, 작년부터 낮시간에는 길찾기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퇴근 후 계속 모여서 재미난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형태, 영어공부모임을 하거나, 볼링모임을 하거나... 작년부터 낮에는 진로 프로그램, 밤에는 노동인권과 청년 커뮤니티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이정현)

마을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활동을 접하고 그 분야로 취업이나 진로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음. 마을활동은 지역의 사업 협력 네트워크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이자, 청소년과 지역사회 간의 인식 개선 및 신뢰 형성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음.

“그때그때 필요한 파트너 사업체를 찾는 것도 하지만, 마을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낮은 단계부터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또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하고 신뢰감을 갖는 과정도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분들도 너무 방어적이고, 이 친구들도 기대치가 다르고 해서 기껏 연결해도 잘 안 되고 금방 깨지는 경험 많았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수위, 필요한 만큼만 결합, 협업을 하다가 여기가 필요로 해서 이 친구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가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목표는 지역 사업장들이 하나하나가 일배움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게 잘 맺어진 케이스가 어린이집 다섯군데가 협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의를 나와 보고, 봉사활동을 같이 해보고, 마을활동 같이 해보면서 이 친구의 역량을 보기보다 사람으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인턴십도 지원하고 취업도 지원하겠다고 된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밟아나가야겠다 생각했어요.”(이정현)

인턴 과정 이후에는 정규 노동시장 진입 또는 보호받는 작업장으로서의 연계를 돕고 있음. 또한 일하는학교를 통해 만나게 된 또래집단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됨. 청소년과 교사 간 그리고 청소년 상호간의 신뢰관계는 교육과정에서의 중도 이탈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에서의 이탈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함.

“(인턴 이후는) 아직 체계화 안됐고, 체계화도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아동복지팀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원을 1년 다니면, 인턴 했던 곳에서 채용이 돼요. 교육원 다니는 1년간 힘닿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요. 학원과 연락도 하고, 안 온다고 하면 전화해서 가게도 하고, 선생님 한 분은 아침마다 찾아가서 교육 가게 만들고... 아동복지팀은 원장님들이 채용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격만 취득해오면 되는 거고. 목공, 공예 팀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인턴십 후 직업 훈련 받는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연구자 : 그런 과정 마친 후 노동부 과정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과 다른 게 뚜렷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경험해봤고 재미도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흔들릴 때 여기 와서 의논을 할 수 있고, 하다 또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해서 다른 데를 또 시도해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누가 관심도 가져줘야 학원도 가고 하는데 완전 혼자 하고 있으면 버티기 어렵죠. 매주 한 번 모이면 뭐가 힘들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힘도 되게 큰 거 같아요, 내가 가서 힘든 걸 토로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정현)



[그림 24] 일하는학교의 운영 체계

다. 특이사항과 시사점

일하는학교의 ‘청년마을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긍정적 기대를 기반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 또한 장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창의성·주체성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창의성 증진 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친구들은 너무 역량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 외에 조금 더 지식노동을 하기에는. 그나마 저희가 여기서 하려는 건, 힘이 된다면 청년들이 여기서 같이 풀타임은 못하더라도 알바와 병행하며, 급여를 받으면서 지식 생산노동, 생산적 일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동인권활동 하면서 실태조사 사업을 해요. 청년 두 명을 주 4일씩 100만원 주고 4개월 간 일하게 하는데, 한 친구는 생계형 알바만 해왔어요. 이런 일을 되게 낮설어 해요. 자기가 뭔가 생각해서, 고민을 해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 자체가 너무 낯선거죠. 영리한 친구인데도 뭐를 해야 할지 딱딱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서를 써야 되고 이런 거가.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럼 서비스 현장생산 말고 할 게 없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소셜 디자인, 돈은 적게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다수는 그런 걸 할 만한 경험이나 역량 훈련을 받지 않아서 기획하고 문서화하고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일단, 그런 분석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학교 밖이나 교육경험이 일천

한 청년이 지식활동이나 생산적 기획활동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할 텐데, 그거를 하려면 그 간극이 큰 거죠.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걸까... 검색도 못하거든요. 구글도 모르고, 한글 문서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준대학권, 대안적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적 활동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걸까, 어떤 역량개발을 해야 이 친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경로로 해야 하나... 저희는 일단 그냥 한 번 해보고 있는 거고.” (이정현)

[표 37] 일하는학교의 노동통합 모델

노동통합 단계	내용
발굴	▶ SNS를 통한 공개모집 ▶ 관계기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추천
신뢰관계 형성	▶ 청년마을활동 ▶ 청년 커뮤니티 활동 ▶ 교사의 헌신적 노력
육구개발/파악	▶ 청년마을활동
진로·취업지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 길찾기프로그램(인턴십 과정)
보호받는 작업장 연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 연계 및 추후 고용 가능성 높임
정규 노동시장 연계	▶ 교육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및 전문 교육과정 정보 제공
중도이탈 대응	▶ 교사-청소년 유대 관계 ▶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커뮤니티
외부자원 동원/조직	▶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프로젝트 진행 운영비(교육비) 지원 ▶ 지자체, 청소년상담센터와 협력

| 4개 조직 비교분석 및 시사점

4개 사례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서 다음 두 가지 공통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음 : ①취업동기 활성화 이전에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을 취하며, 이 전략을 조직의 목표·활동과 조율하고 있음, ②SEOs가 지역사회에서 협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핵심모듈로 기능하며, 협동 플랫폼은 자원의 동원방식, 교육·훈련 구성 방식,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전략 등의 근간을 이룸.

가.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는 노동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음.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의 발굴, 신뢰관계 형성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이 조직의 프로그램을 이탈하거나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노동통합이 불가능했음. 또한, 강화된 회복탄력성은 노동통합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작용하며, 진로태도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음.

발굴 단계에서 안전한 주거·문화공간 및 식사 제공, 심리·법률상담,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와 권익 옹호 활동이 이뤄짐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

신뢰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적·제도적 전략을 통해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함. 이 단계에서는 ‘대안가족 모델’, ‘수평적 동료 관계’, ‘생태적 가치’와 같은 문화적 전략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등 제도적 전략이 혼용되고 있었음.

또한 교육과정이 체험활동 중심으로 편성돼 있었고, 교육과정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욕구 개발/파악이 이뤄져 맞춤형 개입이 이뤄지고 있었음.

나. 협동 플랫폼에서의 핵심 모듈 기능

볼드윈과 우더드(Baldwin and Woodard, 2009 : 19)는 “시스템 내부의 다양성(variety)과 진화 능력(evolvability)을 지원하도록 여러 요소들 간의 연계를 규율함으로써 형성된 안정적인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플랫폼을 정의함.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조직설계, 교육·훈련 방식은 SEOs가 ‘협동’의 원리로 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의 관계를 규율하며 조직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 플랫폼의 핵심 모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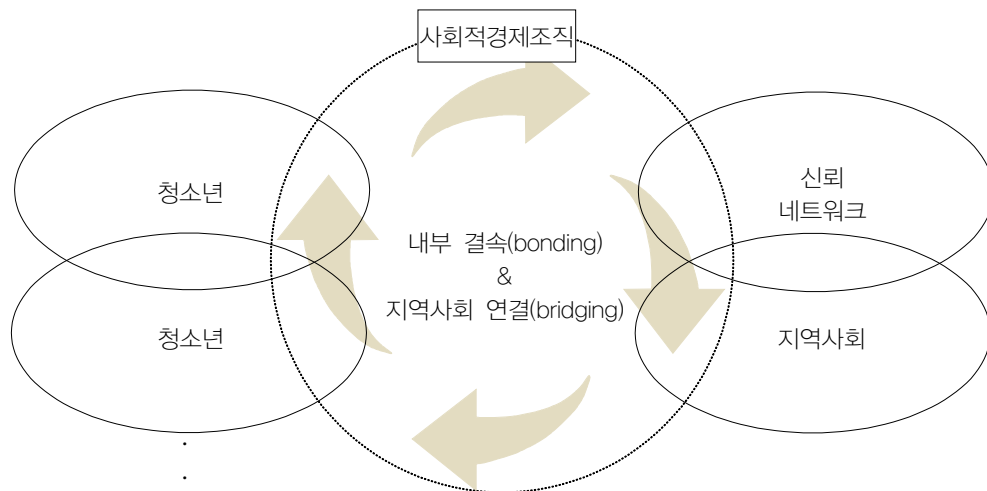
각 조직이 구상하고 있는 최종 노동통합 단계를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단일 조직 내에 모두 보유한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음.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는 조직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네트워크의 필요가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노동통합 과정의 각 단계에서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음.

이러한 신뢰기반 지역 협동 네트워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호받는 작업장을 공급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일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리로 지역사회의 협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축 방식은 아래 [그림 25]와 같은 개념틀로 요약할 수 있음.

다.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노동시장 진입 촉진-사회적 배제 요인의 개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관점을 가질 때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SEOs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내부화하고 자기 경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택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복합성과 청소년 개인 상태의 비동질성, 조직 보유자원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었음.



[그림 25]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신뢰 형성

SEOs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청소년 개인에게 동기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청소년에게 실제적 효용과 만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의 이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SEOs의 개입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림. 때문에 SEOs는 협동 네트워크 안에서 청소년의 요구와 조직의 성과를 적절히 조율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SEOs가 핵심 모듈로 기능하며 구축한 협동 네트워크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외부효과는 자동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공공 부문과 시장 부문의 공백과 실패에 SEOs가 개입해 만든 효과라는 점에서 협동 네트워크의 효과는 상황의존적(contingent)이라고 할 수 있음.⁶⁾ SEOs가 어떤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 자본이 공공적 성격의 시민적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이익집단의 논리가 될 수도 있음.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 자본이 시민적 자본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SEOs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즉 호혜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환대(유사 가족 전략, 수평적 동행관계 프레임 등)의 확대 등 사회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추구하는 노력은 협동 네트워크가 생산하는 관계자본과 사회·경제적 장(field)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특징짓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이재혁(2007)은 사회적 자본이 도구적 성격을 갖는 관계 자본(relation capital)의 충위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의 충위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았음. 그는, 네트워크가 개인에게는 동기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성격을 가지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선형적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존적(contingent)이라고 주장함.

03

해외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 호주의 '카페 호라이즌'과 공공부문의 지원 정책⁷⁾

카페 호라이즌은 샌드위치 전문점이자 커피 전문점이며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목표로 도제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호주 정부는 도제식 직업훈련을 위해 채용한 전문 훈련교사와 직업훈련 참여자를 위한 모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따라서 카페 공간 마련 및 유지를 위한 자금과 기관 운영비는 공모사업, 후원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음. 훈련교사와 청소년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재료비만 조달하면 됨. 이러한 지원 환경과 재정적 조건은 1일 6시간 영업만으로도 카페 운영이 가능하게 했으며, 카페가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은 호주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자격증명으로 사용됨.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협력⁸⁾

기요카와는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A형 사회적협동조합 : 취업상담, 취업지도, 기술훈련, Job Coach 파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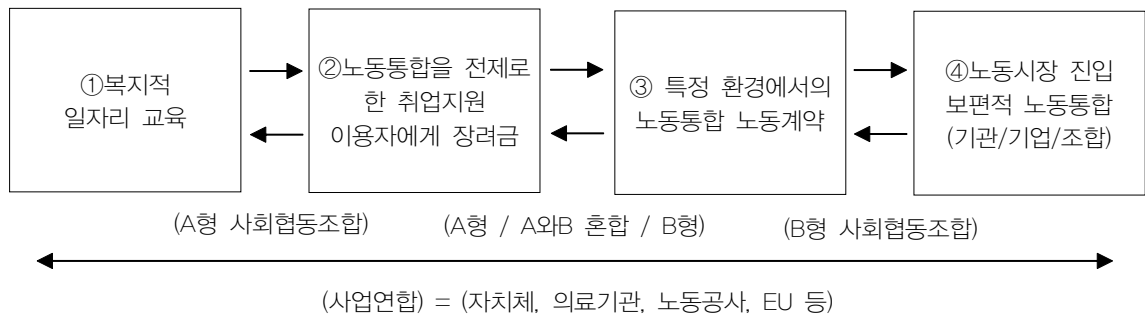
B형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업 내 일자리창출,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직장환경의 조성, 취업연수 등

기요카와는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래 그림과 같은 연대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노동

7) 사례 연구에서 언급한 커피동물원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호주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매장인 '카페 호라이즌'을 참조했다고 함(김정미, 2015 참조).

8) 한국의 장애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운영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해 연구한 기요카와 치하루(清川千春, 2007)는 다비스터 등(Davister et al., 2004)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유형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한국 사회적기업과 유럽(특히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을 비교·분석함

자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회통합을 추구한다고 주장함.



[그림 26] 이탈리아의 소외계층 노동통합을 위한 연대작업

* 자료 : 기요카와 치하루(2007), p.55, 그림 2-8 전재.

[표 38] 4개 사례 노동통합 모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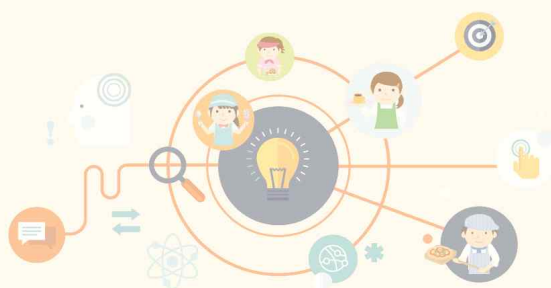
노동통합 단계	커피동물원	인디학교	세품아	일하는학교
발굴	▶ [쉼터 분리 이전] 단기 쉼터 → 중장기 쉼터 → 커피동물원 ▶ [쉼터 분리 이후] ‘자립팜 이상한 나라’,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의 추천, 구인사이트 통한 공개모집(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 수시 모집 ▶ 지역 협력 네트워크 단체의 추천과 지역사회 입소문을 통한 유입	▶ 사법부를 통한 발굴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 청소년 네트워크에 의한 발굴	▶ SNS를 통한 공개모집 ▶ 관계기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추천
신뢰관계 형성	▶ 쉼터의 개별 사례관리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 자립훈련 교사의 역할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 교사의 역할	▶ 대안가족 모델을 통한 접근 ▶ 관계가 열리기를 기다림	▶ 청년마을활동 ▶ 청년 커뮤니티 활동 ▶ 교사의 헌신적 노력
육구개발/파악	▶ 강요하지 않고 의견을 표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을 결합한 교육과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 동아리 활동의 적극 지원	▶ 최소한의 정해진(공동생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육구 중심 ▶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체험기회 제공	▶ 청년마을활동

진로· 취업지도	▶ 외부 전문교육과정 이수한 자립훈련교사 배치 ▶ 직업훈련과정의 세분화 및 승급단계 설정	▶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청소년의 욕구를 기반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구성 ▶ 취업동기의 동기를 개발하도록 지원	▶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 중심 ▶ 노동시장 진입보다는 ‘노동을 통한 사회화’에 초점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 길찾기프로그램 (인턴십 과정)
보호받는 작업장 연계	▶ 커피동물원 1호점	▶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청소년 선호에 맞는 인턴십 활동 개발, 지원 ▶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문제상황 예방 및 개입	▶ 신뢰관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친화적 작업장 연계 ▶ 독립적인 사업장 준비 중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 연계 및 추후 고용 가능성 높임
정규 노동시장 연계	▶ 커피동물원 2호점 (준비중)	▶ 지역 네트워크 내 신뢰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업장 고용 가능성 높임	▶ 자립의 우선 목표를 시장 진입이 아닌 ‘가정 복귀·회복’에 두고 있음	▶ 교육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및 전문 교육과정 정보 제공
중도이탈 대응	▶ 커피동물원 2호점 (준비중)	▶ 교사-학생 관계 개별 관리	▶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파악과 대응	▶ 교사-청소년 유대 관계 ▶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커뮤니티
외부자원 동원/조직	▶ 가톨릭 대학교와 협력 관계 ▶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체험 기회, 인턴 작업장 발굴 ▶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긍정적 기대를 기반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역할	▶ 법원,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 보조금 수령. 공공사업 수탁. ▶ 부천예수마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 복지재단, 기업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프로젝트 진행 운영비(교육비) 지원 ▶ 지자체, 청소년상담센터와 협력



제 5 장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방안



01

주요 결과의 요약

|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성격과 개입 방향 관련 주요 결과

한국사회에서 정규학교 중단·비진학은 청소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에 저임금의 불완전 고용상태로 조기 편입되는 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조건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

첫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구적·수단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형성의 기회로부터 배제됨

둘째, 학력중심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졸업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격차를 좁히기 힘들 만큼 큰 의미를 갖는 자격증(credential)이자 제도적 문화 자본(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졸업장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경쟁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함.

셋째,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돼 관계 자본(relation capital)을 형성하기 어려움. 관계 자본은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과 대비되는 용어이자 사회적 자본의 양면성 중 한 측면을 지칭함. 사회적 연결이 개인에게 발휘하는 도구적 효용성을 뜻함(이재혁, 2007).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이 이슈를 진로·취업지도 분야로 좁혀서 보면, 열악한 경제적 조건과 단절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진로 결정의 동기를 갖게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 세 개의 조직 차원의 개입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음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서는 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함.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 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는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과 취업역량 강화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함.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을 위해 개입하는 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배제 요인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부(-)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사회적 배제 요인 자체의 감소에 정(+)의 효과를 발휘해야 함.

| 공공·시장 부문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취업지원 현황 관련 주요 결과

가. 공공 부문의 공급 실태와 시사점

(1) 회복탄력성 강화 측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과 생활지원을 통해 위기 요인에 대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노동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연관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진로 동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체험활동 지원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2) 노동시장 진입 지원 측면

직업훈련 정보가 축적되는 과정에 직업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훈련과정의 내용·운영방식 등을 파악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업무와 비교해 미약함. 그리고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해서는 그 전단계의 진로 동기 활성화가 먼저 이행돼야 하며, 이 단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 설계가 이뤄져야 함.

(3) 사회적 배제 요인 개선 측면

통합지원체계의 도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모델이 구축되고 있음. 통합지원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지원을 부처별로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생애 주기 모델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그에 맞는 연계된 지원이 필요함.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통합지원체계의 주요 전달체계인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질적 수행주체들(민간)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함.

나. 시장 부문의 공급 실태와 시사점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에는 기업 사회공헌사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점, 각종 매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루는 사례들이 많아진 점,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조명 받고 있는 점 등이 몇몇 대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동기일 것으로 예상됨.

YOUTH STAND 프로그램과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지원 방식은 대기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는 낯선 영역에서 대기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인 사업 구상 및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사례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움. 이점은 청소년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원제약을 이유로 성과를 단기간에 내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될 만한 사람만 뽑기(cream-skimming)’ 전략을 선택할 유혹으로 작용함. 기업의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장기적이고, 수혜 당사자 중심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관련 주요 결과

4개 사례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서 다음 두 가지 공통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음: ①취업동기 활성화 이전에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을 취하며, 이 전략을 조직의 목표·활동과 조율하고 있음, ②SEOs가 지역사회에서 협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핵심모듈로 기능하며, 협동 플랫폼은 자원의 동원방식, 교육·훈련 구성 방식,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전략 등의 근간을 이룸.

가.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는 노동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음. 노동통합 단계 논리모델의 발굴, 신뢰관계 형성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이 조직의 프로그램을 이탈하거나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노동통합이 불가능했음. 또한, 강화된 회복탄력성은 노동통합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진로태도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음.

발굴 단계에서 안전한 주거·문화공간 및 식사 제공, 심리·법률상담,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와 권익 옹호 활동이 이뤄짐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

신뢰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적·제도적 전략을 통해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

함. 이 단계에서는 ‘대안가족 모델’, ‘수평적 동료 관계’, ‘생태적 가치’와 같은 문화적 전략과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 등 제도적 전략이 혼용되고 있었음.

또한 교육과정이 체험활동 중심으로 편성돼 있었고, 교육과정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욕구 개발/파악이 이뤄져 맞춤형 개입이 이뤄지고 있었음.

나. 협동 플랫폼에서의 핵심 모듈 기능

볼드윈과 우더드(Baldwin and Woodard, 2009 : 19)는 “시스템 내부의 다양성(variety)과 진화 능력(evolvability)을 지원하도록 여러 요소들 간의 연계를 규율함으로써 형성된 안정적인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플랫폼을 정의함.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의 조직설계, 교육·훈련 방식은 SEOs가 ‘협동’의 원리로 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의 관계를 규율하며 조직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 플랫폼의 핵심 모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각 조직이 구상하고 있는 최종 노동통합 단계를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단일 조직 내에 모두 보유한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음.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SEOs는 조직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네트워크의 필요가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노동통합 과정의 각 단계에서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음.

이러한 신뢰기반 지역 협동 네트워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호받는 작업장을 공급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일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

다.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노동시장 진입 촉진-사회적 배제 요인의 개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관점을 가질 때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SEOs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내부화하고 자기 경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택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복합성과 청소년 개인 상태의 비동질성, 조직 보유자원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었음.

SEOs가 어떤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 자본이 공공적 성격의 시민적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이익집단의 논리가 될 수도 있음.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 자본이 시민적 자본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SEOs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즉 호혜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환대(유사 가족 전략, 수평적 동행관계 프레임 등)의 확대 등 사회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추구하는 노력은 네트워크가 생산하는 관계자본과 사회·경제적 장(field)의 성격을 특징짓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해 심화 측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에는 결핍 모델 접근이 아니라 회복탄력성 강화 모델 접근법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과 생활지원을 위한 개입은 노동통합 관점에서 관련 부처간, 지자체 조직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상호 연관 속에 추진돼야 함. 진로 동기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함.

| SEOs 협력·지원 측면

교육훈련 담당자 또는 직업훈련 교사의 근로 복지 환경 개선이 필요함. 모든 조직이 실제로 담당자들의 헌신에 기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이 매우 강함. 서울시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성일 보이고 있는 SEOs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SEOs 성과 측정 지표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련된 질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립지원 매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립지원 매장과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자립생태계 조성 측면

SEOs를 통해 취업동기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일할 일자리의 양과 질은 계속 문제가 됨. 지역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의 SEOs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이후에도 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통합 관점의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함.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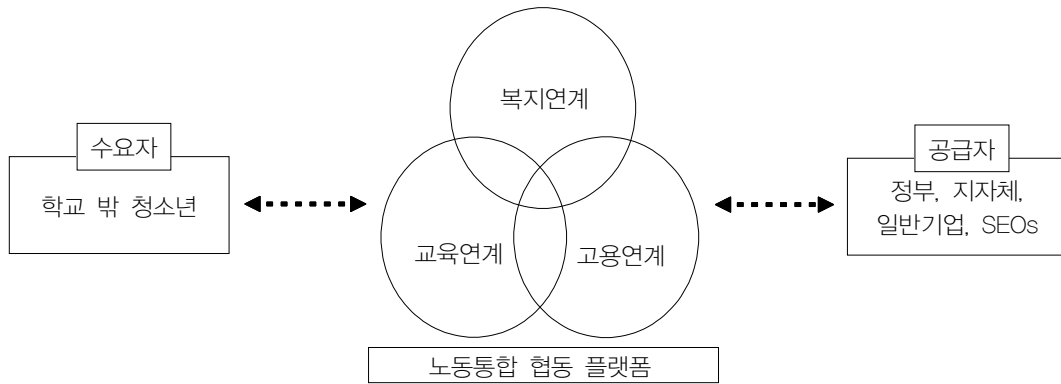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한 협동 플랫폼 구축 방안

|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에반스는 플랫폼이 수요자와 공급자 양 측면의 상호의존적 수요(interdependent demand)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함(Evans, 2003 : 328).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단계에서 수요자(학교 밖 청소년)와 공급자(정부, 지자체, 일반기업, SEOs 등) 연계가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은 복지, 교육, 고용 세 분야임. 이 세 분야 서비스를 노동통합 플랫폼의 세 가지 핵심 기능요소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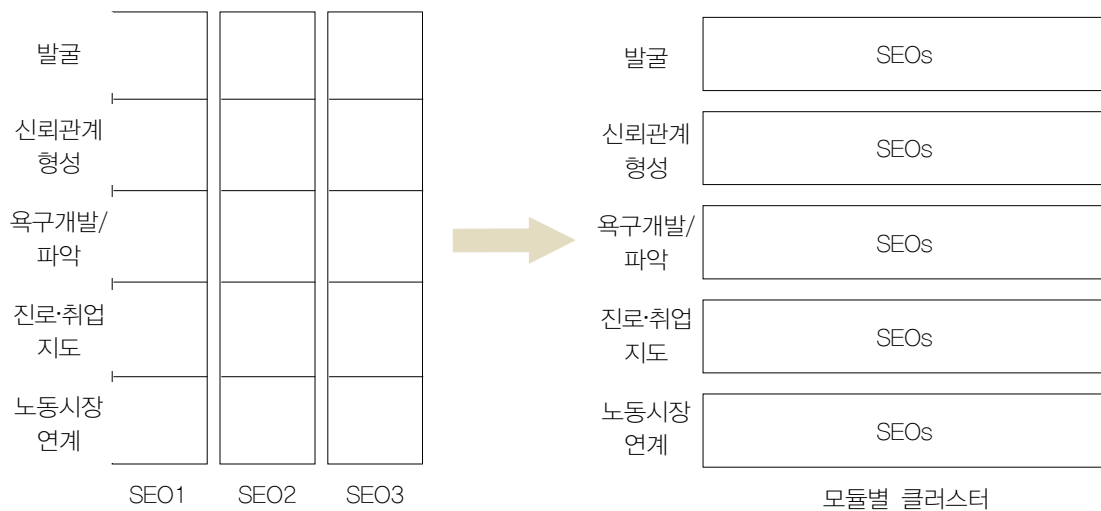
아울러 에반스는 다음 세 가지가 플랫폼 비즈니스 출현의 필수조건이라고 봄 : ①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된(distinct) 고객집단, ②간접 네트워크(indirect network) 효과, ③플랫폼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Evans, 2003 : 331-334). 즉, 둘 또는 그 이상의 고객집단이 수요자-공급자 관계여야 하고, 수요와 공급 양쪽의 수가 많아질수록 양쪽 모두 얻는 효용이 커져야 하며,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개별 집단이 내부화할 수 없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가 출현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통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서 SEOs는 노동통합 단계에서 청소년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 모듈 역할을 하고 있었음. 한편, SEOs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SEOs는 청소년에게 복지·교육·고용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SEOs는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SEOs를 연계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성은 네트워크 규모의 확대와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7]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플랫폼 기본구도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 노동통합을 위해서는 ‘발굴 → 신뢰관계형성 → 욕구개발/파악 → 진로·취업 지도 → 보호받는 작업장 또는 정규 노동시장 연계’에 이르는 단계적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학교 밖 청소년 노동통합 플랫폼에서 노동통합 단계는 각각 하나의 모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8]과 같이, 기존 SEOs의 서비스 공급 방식은 한 조직이 한두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통합 단계를 수행하고 있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모듈별 SEOs 클러스터 조성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그림 28] 노동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모듈별 클러스터 모형

* 자료 : Baldwin and Woodard(2009), p.33, 그림 2.4를 참고해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함.

| 플랫폼 구축 방안

가. 1단계

먼저, 각 노동통합 단계의 모듈별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현재 어느 단계에서 어떤 SEOs가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방식, 활동 지역, 활동의 효과 및 한계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이 작업을 토대로 모듈별 클러스터 지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함.

나. 2단계

사례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통합 단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노동통합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그런데 청소년과의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으며, 대면적 관계를 통해 형성됨. 따라서 노동통합 플랫폼 구축 시 기존 SEOs 중 핵심모듈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하고, 그 조직이 핵심모듈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다. 3단계

청소년의 존재욕구와 관련된 복지 정보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 유인(incentive)을 개발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함. 예를 들어, 주거나 식사와 같이 청소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나 가정을 벗어났거나 빈곤문제로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전략을 구상하거나 지역자원을 연계해 공급할 수 있음. 식사의 경우, SEOs가 밥차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밥차 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근래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학교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이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함. 모든 청소년은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질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담론의 확산 전략이 필요함.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 머니를 받기 위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은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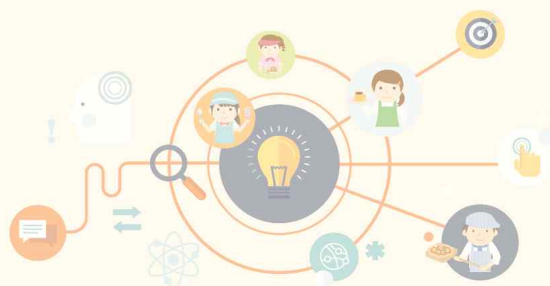
라. 4단계

진로·취업 지도 서비스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SEOs가 정보를 소통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의 기회, 온·오프라인 정보교류의 장, 소셜프랜차이즈화 등을 모색할 수 있음.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진로·취업지도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목록

(2014년 기준)



- 분야 : 간병가사, 교육, 문화, 보육, 사회복지, 산림보전 및 관리, 제조, 환경, 기타
- 유형 : 일(일자리제공형), 사(사회서비스제공형), 혼(혼합형), 기(기타형)

	기업명	분야	유형	주요 생산품, 서비스	소재지
1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교육	혼	자기주도학습, 진로설계 클리닉,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 및 심리검사 서비스	강원 원주
2	남양주 살롬의집 행복나눔도시락	사회 복지	혼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경기 남양주
3	주식회사 디자인나무	기타	일	정기간행물/홍보물 제작,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등	경기 안양
4	주식회사 유스바람개비	교육	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카페	경기 성남
5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JOBAR TE) 경기지부	문화	기	문화예술교육, 문화기획, 공연, 편집디자인, 인쇄	경기 안산
6	주식회사 엔분의일	문화	일	아동 미술교재 및 미술교구	경기 고양
7	주식회사 파이디아	교육	일	전통놀이 및 문화예술체험 교육	경남 창원
8	경남청년희망센터로컬푸드사업단	기타	일	반찬사업/식당사업(착한갈치) 운영	경남 창원
9	교육문화공동체 결	교육	혼	교육 및 문화 사업	광주 동구
10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더함	교육	기	경제교육, 진로체험학습, 컨설팅 및 연구용역	광주 북구
11	(주)포인트아카데미	교육	혼	창의·진로 체험 프로그램	광주 북구
12	(사)한누리	교육	혼	저소득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광주 북구
13	(주)한글피움	문화	일	친환경의류 및 패션소품, 텀블러, 머그컵, 티셔츠, 에코백, 수공예악세사리 등	광주 북구
14	청소년평화나눔센터 피스트레이드사업단	기타	일	공정무역상품 홍보판매	대구 중구
15	사단법인 희망사회진흥원 희망교육사업단	교육	일	진로교육 직업체험학습	대구 수성구
16	주식회사 놀이나무	교육	일	박물관 교재교구 및 콘텐츠, 교재출판, 놀이교육	서울 성북구
17	사단법인 청소년 흡연음주예방협회	간병 가사	혼	금연,금주 교육 및 인터넷쇼핑몰 운영, 취약계층에 무료 금연, 금주 교육 실시	서울 중구
18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교육	기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 축제	서울 중구
19	(주)에듀머니	교육	기	취약계층 가정 경제교육, 가게부 및 정기간행물 등 각종 개인재무관리 컨설팅	서울 서대문구

20	오가니제이션요리	교육	혼	급식, 케이터링, 카페, 교육	서울 영등포구
21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교육	기	문화예술교육	서울 은평구
22	우리가만드는미래	교육	혼	역사, 문화교실	서울 마포구
23	청소년교육전략21	교육	사	청소년 및 부모(시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출판사업	서울 마포구
24	극단 날으는 자동차	문화	기	공연, 예술교육	서울 성북구
25	사단법인 문화예술교육협회	문화	기	뮤지컬 교육 및 공연, 진로멘토링교육 등	서울 금천구
26	(주)영화제작소 눈	문화	기	영화, 영상제작 및 미디어 교육	서울 영등포구
27	(주)유유자적살롱	문화	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 및 음악 공연	서울 영등포구
28	(주)창작마을	문화	기	창작대행업, 도서출판, 무대제작기획공연, 예술문화교육특성화사업	서울 서초구
29	(주)트래블러스맵	문화	기	지역문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대안여행 서비스 및 탈학교 청소년 여행기획자 교육	서울 은평구
30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희망나눔1030사업단	교육	사	저소득층 교육서비스 지원 사업	울산 중구
31	(주)코끼리를키우는사람들	교육	기	인쇄, 출판, 광고, 성교구 제작 및 온라인 판매	울산 남구
32	사단법인 돌레	문화	지	정음 생태·역사문화탐방, 돌레문화탐방, 청소년 문화탐방	전북 정읍
33	주식회사 니스	교육	일	생태교육 교재 교구 개발 및 판매	충남 예산
34	주식회사 새움	교육	혼	진로지도프로그램 운영, 진로특강 및 학부모특강 운영,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
35	희망을여는사람들 두드림교복센터	사회 복지	일	재활용 교복	부산 진구
36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웅기종기네트워크	기타	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학습, 문화체험 등	인천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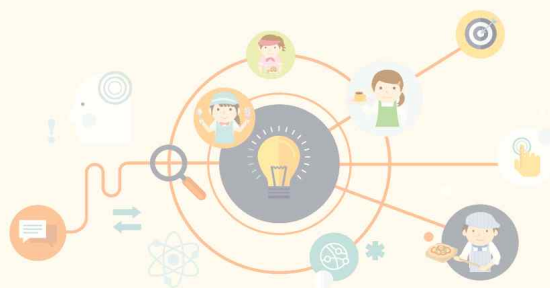
* 자료 : 『사회적기업개요집 109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에서 발췌.

** : 청소년 진로·취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위기·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내용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경우로 제한.



부록 2

사회적경제 조직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사회적경제 조직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활동 및 사업 전략과 성과]

1. 사업을 시작한 계기(개인 및 단체 차원)는 무엇입니까?(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활동과 사업을 구체화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어떤 단계별 목표를 설정했으며, 각 단계 이행 시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3. 구상하는 '청소년 자립'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4. 대안적 진로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사회문제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한국의 다른 조직이나 기존 서비스에 비해 귀 단체의 프로그램이 갖는 상대적 장점 또는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5-1. 사업을 시작하실 때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국내외 사례가 있나요? 어떤 점에서 귀 단체는 그 모델을 극복했거나 더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까?
 - 6-1.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귀 단체를 알게 되고,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나요?
7.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가격·비용지불 방식 그리고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교육비, 강사비, 운영자금 등 재정구조가 궁금합니다.(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의 구성비 등)
9. 청소년들이 '일을 배우는 과정'과 '사업장에서의 작업과정'에 간극이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그 간극은 어떻게 조율/정렬하나요?
10.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이나 노동문화가 교육·훈련 과정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통 조직이나 정기적 프로그램에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 등에 대해)
11. 귀 단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생계, 주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요?
12. 훈련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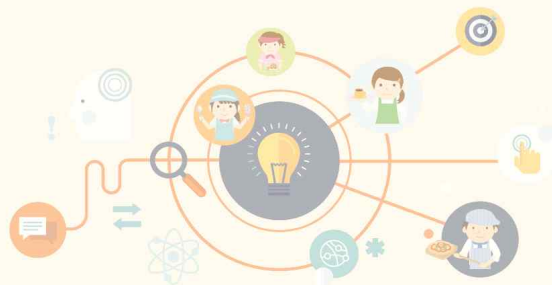
[외부 환경과 협력 모델]

1. 귀 단체의 교육·훈련 활동은 지역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대체효과, 보완재, 새로운 장 개척 등)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채널은 무엇이며, 발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고용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적 미션달성을 위해 취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계신 협력모델이 있나요?
4. 귀 단체의 지역 사회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5. 현재 맞고 있는 중요한 활동 및 사업상의 변화나 외부 환경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록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한 집단 인터뷰 사전질문지



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한 집단 인터뷰 사전질문지

이름 : _____

소속 기관 : _____

다음 질문은 집단 인터뷰 전에 귀하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표 하거나 내용을 적어주세요.

1.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 이상

4.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① 함께 생활 ② 돌아가심(사별) ③ 가출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

5.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일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 / 아니오)

어떤 일을 했나요? (했던 일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예 : 배달, 편의점 등등)	
일을 했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여러 종류의 일을 했다면 기간을 각각 적어주세요.)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일을 하며 받았던 대략의 수입을 적어주세요.	(월 평균)원
하루 또는 일주일 노동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하루 ()시간, 주 하루 ()시간 근무

5-1.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의 사항을 기록해주세요.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예 / 아니오)

6-1. 만일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한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 :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두드림·해밀 등)

7. 현 소속기관에 언제 처음 왔나요? (년 월)

7-1. 현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7-2. 현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했나요?

()부터 ()까지

8.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9.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활동은 어느 정도 흥미가 있었나요?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 (흥미가 전혀 없었다.)	2점	3점	4점	5점 (매우 흥미 있었다.)
---------------------	----	----	----	--------------------

10.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나요?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	2점	3점	4점	5점 (매우 성실하게 참여했다.)
------------------------	----	----	----	-----------------------

11.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활동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 (전혀 도움이 안됐다.)	2점	3점	4점	5점 (매우 도움이 됐다.)
---------------------	----	----	----	--------------------

12. 진로 선택 및 결정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골라 순서대로 적으세요.

(아래의 예시에는 없으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도 됩니다.)

나의 의지 및 나 자신의 노력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참여 / 나의 희망 직업 및 다양한 직업의 체험 및 실습 / 나의 희망 직업에의 취업 / 나의 희망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정보 / 일을 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 학력 취득 /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 /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정보 / 내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 자립생활을 위한 경제관리 등의 생활정보

13.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활동 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14.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가 있나요? (예 / 아니오)

15. 현 소속기관은 귀하가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진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요?
(또는 어떤 이유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6. 다음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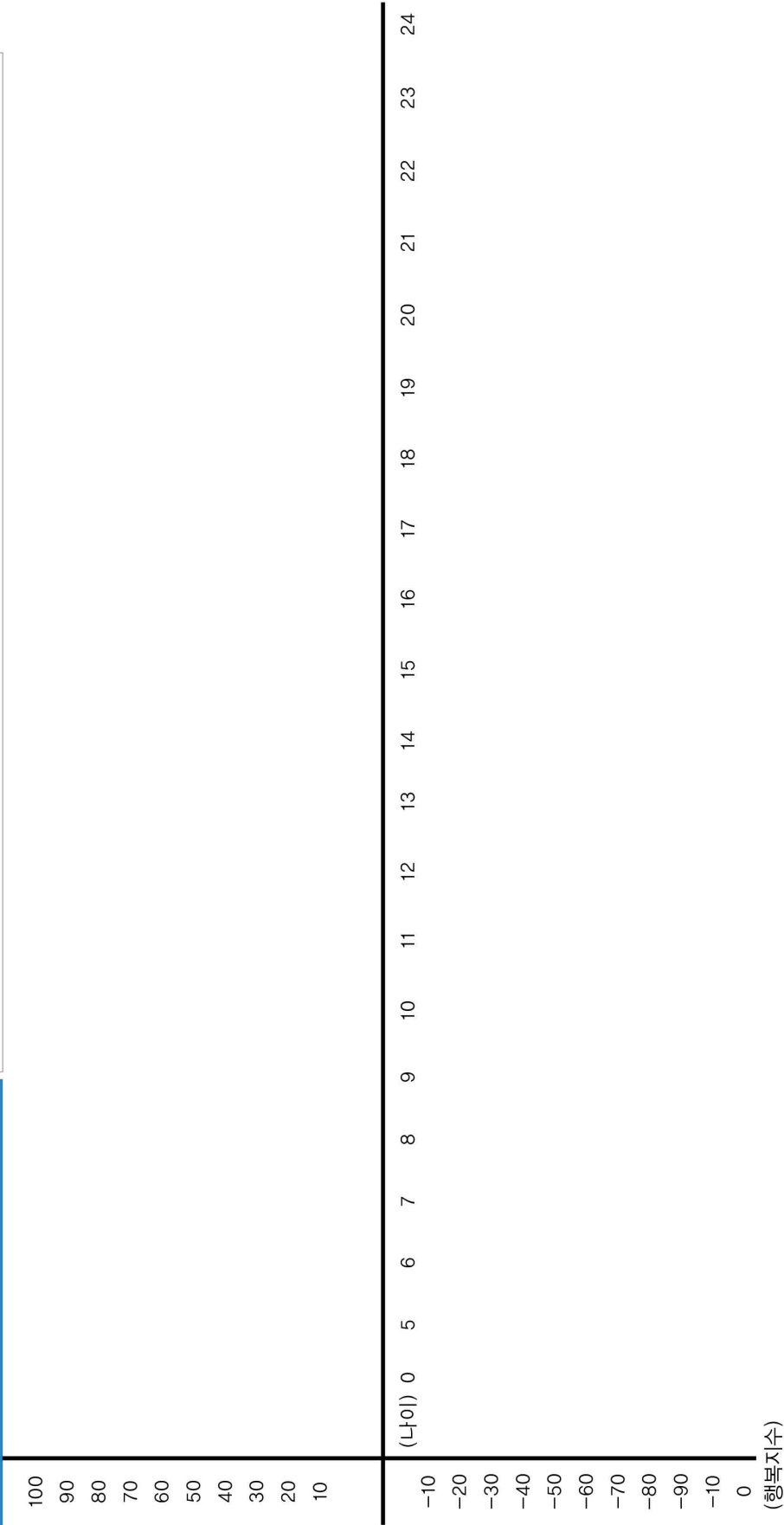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예 / 아니오
일이 잘 안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예 / 아니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예 / 아니오
장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 / 아니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 아니오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예 / 아니오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 아니오
나는 미래에 대한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 / 아니오
나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 /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생곡선 그리는 방법

- ①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점으로 찍습니다.
- ② 수평선 위쪽은 기쁨과 행복했던 사건을, 아래쪽은 괴로웠거나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찍는다. 점을 찍으면서 '몇 년도 또는 몇 살 때의 어떤 사건'의 형식으로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적습니다.
- ③ 점을 다 찍고, 사건 개요를 썼으면 0부터 각 점을 곡선으로 연결합니다.
- ④ 수평선 맨 마지막 현재의 시점에는 앞으로 인생곡선이 상승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하향곡선을 그릴 것인지 지를 생각해서 화살표를 그립니다.





부록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한 집단 인터뷰 질문



학교 밖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한 집단 인터뷰 질문

0.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생곡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노동 동기와 내용에 관한 질문

- 1)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어떻게 지냈나요?
- 2) 언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 3)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했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 모든 활동을 설명해주세요.
- 4) 일을 해본 작업장들의 각각의 특성(차이점)들은 무엇인가요?
- 5) 그 일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나요?

2. 현 소속기관 이전의 노동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문

- 1)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까지 했던 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나 느낌들을 이야기해주세요.
- 2)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까지 했던 일들 중 좋은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 3)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까지 했던 일들 중 나쁜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 4)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위험하거나 힘이 들 수도 있는데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6) 용돈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또는 부모님이 용돈을 적당히 주신다면)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3. 현 소속기관 이후의 노동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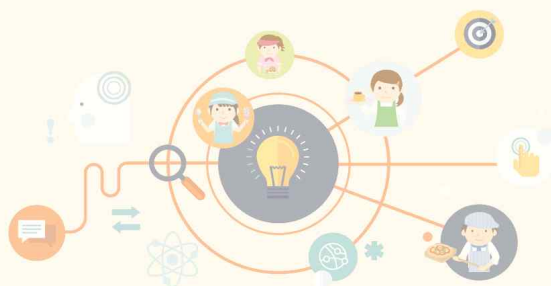
- 1)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활동,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나 느낌들을 이야기해주세요.
- 2)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일 경험 중 좋은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 3) 현 소속기관에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나 일 경험 중 나쁜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 4) 현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이나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했나요?
- 5)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에 했던 일과 현 소속기관을 경험한 이후 했던(하고 있는) 일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4. 전반적인 삶에 관한 질문

- 1)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 2) 어떤 점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 3)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합니까?



참고문헌



[문헌자료]

- 강석원, 강소영, 김경옥, 김민찬, 김지선, 엄병훈, 하태욱, 현병호. 2015. 서울시 학교 밖 배움터 길라잡이.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관계부처 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 교육부. 1996.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교육부.
- 기요카와 치하루(清川千春). 2007. 한국의 장애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강호. 2016.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에 따른 고용효과. 고용이슈, 9(2). 28-46.
- 김두상, 박상식. 2016.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1-20.
- 김미란. 2005. 청소년 이행의 관점에서 본 직업교육정책의 형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기, 이덕난, 이세바, 김은임, 김은이, 김민찬. 2014. 학교 밖 청소년 백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김정미. 2015. 숫자로 보는 커피동물원 6년. 커피동물원 거기에서 뭐하니? 직업훈련매장 커피동물원 사례연구발표 자료.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 김지경, 이상준. 2014. 학교 밖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김지영. 2011. 학교밖 청소년의 노동진입의 맥락과 경험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에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제40집 3호. 63-94.
- 라준영. 2014.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정책 혁신 : 진화론적 관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2(3). 27-57.
- 배경내. 2014.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 변화하는 청소년노동의 오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웍.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
-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세상을품은아이들. 2014. 위기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자립을 위한 Youth Campus 운영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워크숍자료집 14-S46. 27-60.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4.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6. '1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태수. 2014. 청소년 노동의식 및 노동교육 실태 조사결과 분석과 함의. 은수미의원실·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 신경희. 2014. 서울시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복지정책 제언. 정책리포트, 165. 1-23.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강호, 유성렬, 김태화, 손희정.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세영. 1999.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정체성 변화. 직업교육연구, 18(1). 147-166.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 시장적 관계 모형. 사회와 이론, 10(1). 213-261.
- 이창호, 김영란, 김택호, 박재연, 유순덕, 은혁기, 정찬석, 천성문. 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위원회.
- 전병유, 이병희, 황덕순, 김주영, 윤자영. 201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성과 분석. 고용노동부.
- 전병유, 김혜원, 김용주, 이병희, 최형재, 황덕순. 201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 타나카 나츠코 지음. 이성조 옮김. 2014.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아르케. (田中夏子. 2005. イタリア社会的経済の地域展開. 東京 : 日本経済評論社.)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기업개요집 1094.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학교밖 청소년 길찾기. 한국청소년상담원 토론회 자료.
- Alderfer, C. P. 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 142-175.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 Free Press.
- Alter, Kim. 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 Amin, A. 2009. Extraordinarily Ordinary : Working in the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Journal, 5(1). 30-49.

- Baldwin, C. Y. and Woodard, C. J. 2009. The Architecture of Platforms : A Unified View. In A. Gawer (ed.), Platforms, Markets and Innovation. Research Collection School Of Information Systems.
- Borzaga, C., and Loss, M. 2006. Profiles and Trajectories of Workers across European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M. Nyssens (ed.), Social Enterprise :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ew York : Routledge. (Marthe Nyssens 엮음. 고두갑, 박관석, 박대석, 박상하 옮김. 2011. 사회적 기업 2 : 노동통합편. 시그마프레스.)
- Cafaggi, F. and Iamiceli, P. 2009. New Frontiers in the Legal Structure and Legisl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 In A. Noya (ed.),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Paris : OECD.
- Cunningham, W. and Cohan, L. M. and Naudeau, S. and McGinnis, L. 2008. Supporting Youth at Risk : A Policy Toolkit for Middle Income Countries.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 Davister, C. and Defourny, J. and Gré goire, O. 2004.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 an overview of existing models, EMES Working Papers Series, 4(4).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 Evans, D. S. 2003.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 325-381.
- Galera, G. and Borzaga, C. 2009. Social enterprise :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Its Conceptual Evolu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Social Enterprise Journal, 5(3). 210-228.
- Garmezy, N. and Masten, A. S. and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1). 97-111.
- Kronauer, M. 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 new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poverty. In H. J. Andress (ed.),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 Ashgate.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onzó n, J. L. and Chavez, R. 2012.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Liege : CIRIEC.
- O'Connor, P. and Meinhard, A. 2014.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 : Their Potential Contribution to Labour Market (Re-)Integration of At Risk Populations. Centre for Voluntary Sector Studies (CVSS) Working Paper Series, 40. 1-111.
- OECD. 1996. Integrated Services for Children at Risk.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_____. 2013. Job creation through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LEED Programme(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Report.
- Robert K. Yin 지음. 신경식, 서아영, 송민채 옮김. 2016. 사례연구방법 (5판). 한경사. (Yin, Robert K. 2014.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 Rumberger, Russel W. 2011. Dropping out :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 Sabatini, F. and Modena, F. and Tortia, E. 2012. Do cooperative enterprises create social trust? Euricse Working Paper, 43(12). 1-23.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Walraven, G. 1998. Making Services Work for Children and Youth at Risk and their Families : Two Ways of Integration. In OECD CERI (ed.). Children and Families at Risk : New Issues in Integrating Services. Paris : OECD Publications.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 : //www.moel.go.kr/](http://www.moel.go.kr/)

고용센터 [http : //www.work.go.kr/](http://www.work.go.kr/)

교육부 [http : //www.moe.go.kr/](http://www.moe.go.kr/)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http://www.nyhc.or.kr/>

꿈드림 <http://www.kdream.or.kr/>

디딤씨앗통장 <https://www.adongcda.or.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www.cpp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http://seoulallnet.org/>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직업능력지식포털 <http://www.hrd.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http://jarip.kohi.or.kr/>

한국소년보호협회 <http://kjpa.or.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 지원센터 <http://jeonse.lh.or.kr/>

EMES PERSE 연구 프로젝트 <http://emes.net/research-projects/work-integration/perse/>

Y.E.S 센터 <http://yescenter2014.org/>

[참고 법률·조례]

아동복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소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기본법

